

이 수 자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상호의존성’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통한 주체성 연구

- 20~30대 대졸이상 비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성 미 라

‘상호의존성’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통한 주체성 연구

- 20~30대 대졸이상 비혼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

이 수 자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성 미 라

인 준 서

성미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의존성=여성성'이라는 젠더화된 등식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도전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친밀성과 의존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욕구는 매우 젠더화된 방식으로 구조화된다. 즉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의존(물질적 노동을 비롯한 감정노동, 관계노동을 토대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비가시화 되는 반면, 여성의 의존 욕구는 사회 문화적 '여성성'과 연결되면서 비하되거나 폄하되곤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대 젊은 여성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 및 사회적 요구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상호의존적 구조 속에서 경제적 심리적 딜레마를 경험한다. 우리 시대 여성들이 처하고 있는 의존성/독립성의 딜레마를 병리화하지 않으면서, 이 딜레마의 역사적 사회적 구체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페미니즘은 기존의 모든 가치와 신념체계들, 세상을 보는 방식들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으로 젠더권력화 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비판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즉 젠더권력에 의해 굴절된 가치와 관념들이 결코 '보편적'이거나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 편향성을 띤다는 점을 밝혀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해방적이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재편하는 작업(다시 젠더화 re-gendering)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본 연구는 '의존성'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수도권 도시에서 생활하는 20~30대 고학력 비혼 여성 10명에 대한 심층면접(2005년 8월 2일~9월 7일)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의존성/독립성의 딜레마를 경험하는 우리 시대 20~30대 여성들이 보이는 '의존성'에 대한 반응과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타자화되는 감정, 의존성, 친밀성에 대해 다시 젠더화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여성(성)' 혹은 '의존성=여성성'의 등식에 대한 비판적 해체를 시도한다. 나아가 의존과 감정의 욕구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등식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 주체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재거, 미현, 벤자민, 와이어 등)을 고찰한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인터뷰 참여자 10명의 심층면접(녹취록)을 분석한다. 소위 '여성(적)' 영역이라 간주되어 온 의존성, 친밀성, 감정(노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젠더화 되는지,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분열과 딜레마를 경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주체와 자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자율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개념화를 토대로 여성 주체성의 작은 가능성들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친밀성, 의존성에 대한 욕구는 현저하게 증가되는 반면 여성을 '감정적인 존재'로 폄하하는 시각은 여전히 지배적이다. '감정적인 존재'로 끊임없이 재현되거나 (일방적으로) 기대 혹은 폄하되는 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감정 구조와 경험을 갖게 된다.

둘째,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의존(성)'에 대해 어떠한 자기 개념을 가지는가. 이들에게 '의존(성)'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1) 자율성과 독립성, 자기결정권과 대립되는 것, 2) 자기상실, 3) 삶의 조건과 관계적 의미, 4) 남성성과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의존'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중에서도 자율성과 독립성, 자기결정권과 대립되는 것으로 '의존'을 개념화하는 경향이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 시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과 자율에 대한 열망과 동시에 자율과 독립의 이분화된 도식이 강하게 내면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여성들은 자신의 종속과 복종의 상태를 적절한 '타협'을 통해 받아들이거나 이러한 비난의 담론 속에서 불안을 경험하거나 혹은 이 둘 사이에서 자기 분열을 경험한다. 이러한 분열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모녀관계와 친밀성, 의존성에 대한 욕망이다.

넷째, 이러한 여성성의 이중 곤경을 돌파하고, 모순과 분열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자율성과 성찰성을 획득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는 자율성과 인정 사이의 긴장을 유지시키는 것, 상호의존과 상호주체성을 인정하는 것, 통제와 만족으로 자율성을 재개념화하는 것, 다중적인 정체성들을 화해시키고, 서로 갈등하는 정체성에 대한 해석들을 이해하고 비판하며 그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차이를 성찰을 통해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그 가능성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의존성=여성성'의 도식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는 우리 시대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러한 억압적 도식을 돌파할 수 있는 자아와 주체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한다. 앞으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핵가족' 중심의 환경에서 성장한 고학력 20~30대 여성뿐 아니라 좀더 다양한 차이를 지닌 여성들이 갖는 갈등과 딜레마, 대안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세대와 다양한 위치의 여성들의 젠더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부장제가 규정한 여성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억압적 규범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의미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 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7
II. 이론적 배경	14
A. 우리 시대의 타자화된 '의존(성)'	14
1. 현대 사회의 감정/의존성/친밀성	14
2. 의존성과 여성성의 딜레마	20
B. 여성주의 철학과 여성주체성의 가능성	28
1. 재구성되는 '주체'와 도덕적 행위성	28
2. 새로운 자아를 위하여, '성찰성'과 '상호주관성'	35
III. 인터뷰 분석	42
A. 현대 사회의 감정/친밀성과 젠더화된 의존성	42
1. 감정억압의 사회적 구조	42
1) '감정적'이라는 말의 의미들	43
2) 취약성과 두려움으로서의 감정	47
3) 거리를 전제한 친밀성	52
2. 가족과 젠더화된 의존성	55

B. '의존'과 분열된 여성주체성	62
1. '의존'에 대한 자기개념	62
1) 자율과 독립, 자기결정권의 대립으로서의 '의존'	62
2) '자아상실'로서의 '의존'	66
3) 삶의 조건과 관계적 의미로서의 '의존'	67
4) 남성성과 대립되는 이미지로서의 '의존'	69
2. 의존성과 여성성	71
1) 여성성의 이중 곤경	72
2) 애증관계, 어머니와 딸	75
3) 여성들의 의존과 사랑에 대한 욕망	81
C. 상호주체성과 자아성찰성의 가능성	88
1. 상호주체성과 상호인정	88
2. 자율성에 대한 재개념화와 자아성찰성	90

IV. 결 론	97
---------------	----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 론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 시대 20~30대 여성들이 타인들과의 관계 혹은 자신 안에서 '의존(성)'의 흔적을 왜 끊임없이 지우려 하는가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한다.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독립이 인류 역사상 가장 폭넓게 가능해진 이 시대에 여성은 여전히 '의존적'이라고 폄하되거나 인식되곤 한다. 또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독립과 의존은 매우 복잡하게 교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론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의존성'은 많은 경우 여성(적)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의존(성)'에 대한 여성들의 (때론 히스테릭한) 반응에서 잘 관찰된다.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들을 질문하면 나오는 대답은 이렇하다. "힘없음, 노예, 어린아이"를 떠올리거나 혹은 사회적 여성성 개념과 흔히 연결되곤 하는 "징징댐,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함, 자아상실" 등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와 상대 모두를 미치게 만드는 것,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의존증'의 맥락으로도 의미화된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동시에 의존이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자아에 대한 열망을 꺾는 "달콤쌉사름한 유혹"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 시대 20~30대 여성들이 보이는 이러한 반응은 여성 독립에 대한 열망과 남녀 불문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가피한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삶의 조건을 기존의 '의존성=여성성'의 등식¹⁾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요청한다. 본 연구는 '의존성=여성성'이라는 젠더화된 등식에 대한 여성주의적 도전이다. 이를 위해

1)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서구 전통이 위계화된 이분법을 통하여 세상을 해석하고 평가해 왔다고 꾸준히 비판한다. 즉, '문화/자연, 이성/감정, 정신/육체, 공(적)/사(적), 독립/의존, 능동성/수동성'과 같은 이분법 체계에서 보다 높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항을 '남성성'과 관련시키고, 보다 낮고 열등한 것으로 평가되는 항을 '여성성'과 관련시키는 과정을 통해 여성의 경험을 가치절하 하고 비가시화, 주변화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자연, 감정, 육체, 사(적), 의존, 수동성) 중에서도 '의존성'을 끊임없이 '여성성'의 속성으로 귀결시키려는 사회적 담론과 가치체계, 사회 구조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거칠게나마 이러한 남성 중심의 가치체계를 표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존성=여성성'이라는 등식을 사용한다.

우리 시대 20~30대 여성들이 보이는 '의존성'에 대한 반응과 경험을 깊이 분석함으로써 여성성에 농밀하게 드러붙어 있는 의존성 개념을 다시 젠더화하고 (re-gendering)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호인정과 성찰성을 통한 여성주의적 자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의존(성)'이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설명되거나 사용되어 왔다. 기존 철학의 영역에서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 혹은 주체와 대립되는 것 (재거, 1996)으로서,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몇 년 사이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의존성 성격장애'(민병배 · 남기숙, 2000), '공의존증'(타브리스, 1999)이라는 진단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성학의 영역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억압과 종속적 지위 혹은 그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의존'은 꾸준히 등장해온 한다. 하지만 '의존'이라는 개념이 아무리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전제는 '여성성'과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여성성'을 구성하며 동시에 남성지배의 핵심적인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친밀성과 의존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는 매우 젠더화된 방식으로 구조화된다. 즉 남성은 어머니, 여자친구, 아내를 통해 의존성의 욕구를 충족하며 이러한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질적 노동을 비롯한 감정노동, 관계노동을 토대로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의존성은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되는 반면 여성의 의존성의 욕구는 타인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의 정체성이 장려 혹은 강요되면서 충족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여성이 드러내는 의존의 욕구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거나 충족되기란 대단히 힘들다. 오히려 이러한 욕구는 사회 문화적 '여성성'과 연결되면서 비하되거나 폄하되기 일쑤다.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적 · 사회적으로 종속된 의존자의 위치를 가지며 너무 '독립적이고 당당한' 즉 '여성답지 못한' 여성은 모두가 피곤해할 뿐이다. '의존성'은 '여성성'의 상징이자, 본연의 역할이며(그러하기에 타인을 돌보는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하며) 때론 "병"이 되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여성의 나약함으로 의미화 되기도 한다. 이제 현대 여성들에게 의존은 거부할 수도 그렇다고 요구할 수도 없는 '내 안의 타자'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대 젊은 여성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 및 사회적 요구와,

동시에 다른 한편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상호의존적 구조 속에서 경제적 심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의존과 독립이 배타적인 이항대립으로 개념화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은 21세기 여성 해방 시대다. 세상은 더 이상 여성들에게 ‘어머니 세대’처럼 순종적이거나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강요하진 않는 듯하다. 또한 사회는 갈수록 복잡하게 분화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들을 포용하는 듯하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형식적인 차원에서라도)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주장하고 여성들의 ‘권리와 인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어떤 형식으로든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아들, 딸 크게 차별하지 않는’ 핵가족²⁾ 중심의 가정에서 자라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를 되뇌며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며 당당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듯하다. 여기서 “엄마처럼”은 ‘자아상실, 자기억압, 자기희생,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존재, 남편으로부터 존중과 사랑, 인정도 받지 못하는 무능한 여성, 고단한 삶’을 내포하며 이는 곧 사회 문화적 ‘여성성’과 ‘여성적 의존성’에 대한 거부로 연결된다.

이제 여성들은 외부에서 강요하는 ‘여성성’과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되려 하는 ‘여성적 의존성’을 억압해서 당당하고 주체적인 ‘남성적 여성’이 되어야만 하는 (힘겨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렇다면 ‘남성적 여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 되는가. 이는 보부아르식의 ‘주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서양 철학을 지배해온 (타자에 대한 억압과 배제를 내재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주체 개념으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즉 보부아르가 여성을 타자화했던 한계만큼 여성운동의 역사 속에서 추구된 주체의 형상은 그간 비판해왔던 ‘남성 주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³⁾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남성과 의존적이며 ‘자

2) 페미니즘 관점에서 한국 가족의 현실을 보고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 이재경(2003)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족은 근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가 병존하며, 이 둘은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조정과 전략을 통해 상호 변형됨으로써 기존의 서구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국 가족의 특수성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한국 가족은 전통적으로 직계 가족 원리와 부부 중심의 핵가족 이념의 결합이란 특징을 지닌다. 이재경, 『가족의 이름으로: 한국 근대 가족과 페미니즘』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2003).

3)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 역사학자 조안 스콧은 “페미니스트 역사가들이 근대라는 큰 틀 속에서 새로운 형식의 역사를 상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서 페미니즘이 자유주의가 내포해온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즉 ‘평등과 차이’라는 틀 속에서 형성되어 온 페미니스트 아젠다가 사실상 진보주의, 보편주의, 합리적이고 자율적 개인의 개념 속에서 권리와 소유 개념을 크게 뒤집어 놓지는 못한 채 근대 자유주의/개인주의의 범

아 경계'가 약하고 종속적인 여성이라는 오래된 이분법은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의 '해방된' 여성들은 여성의 복종과 종속에서 벗어나 어떠한 형태의 의존도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남성 형태의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고군분투 해야만 한다.

우리 시대에 관찰되는 이러한 독립/의존의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양가성과 딜레마의 기원은 공사분리를 토대로 한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공사분리를 토대로 한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에게 무제한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고무하면서도 외부세계(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안겨준다. 우리 사회는 '성장'과 '발전', '진보'가 최우선의 가치인 듯 보이며, 다른 한편에선 '외롭고 공허하며 고독한' 현대인의 황폐해진 정신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성이 '전문가'일 수밖에 없었던 사랑과 친밀성의 영역은 독일 사회학자 벡의 말처럼 우리 시대의 '새로운 종교'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대의 여성들은 독립과 의존, 개인적 성취와 친밀성의 영역 구축 사이에서 남성들보다 더 심각한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이제 여성 해방의 물결과 사회구조 및 인식의 변화는 현대 여성을 '너무 많이 알고' 그래서 '너무 많이 요구하는 여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끊임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성들의 친밀성과 소통, 평등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강력해지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출 수 없는 남성들에게는 '여자들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라는 회피와 자괴감이 난무한다. 또한 과거의 자기희생과 자기부정에서 벗어나라는 요구와 함께 자신에 대한 보살핌의 강조는 "오롯이, 온전히 너 자신이 되어라"라는 '자조 지침서'와 '자기 계발서'를 통해 절찬리에 유통되는 현실이다. '진정한 나'라는 정체성은 더 이상 남자에게 과잉의존하거나 중독적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사분리와 성별분업이 확고해야만 사회와 국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믿고 그러한 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남성 중심 사회는 여성들이 '진정한 나'로서 존재하려는 열망에 위협을 가한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피곤해 하지 않는 한에서,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나'일 수 있으며 전적으로 '여성성', '여성적 의존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주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수자, 『후기 근대의 페미니즘 담론-노동, 몸, 그리고 욕망의 변증법』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04), 181쪽.

실제적으로 이미 많은 수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⁴⁾ 실질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인적이고 일상적이며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가정, 가사노동, 아이 양육, 돌봄, 감정노동, 친밀성의 영역 등)을 여성의 역할과 책임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유혹적 제스처로 여성이 전문가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갈수록 교육수준이 높아져 가는 현대 여성들에게 '사랑', '결혼과 가정', '어머니 됨', '친밀성'은 이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전통적 의무나 숙명이 아닌 거부 혹은 선택의 영역처럼 느껴진다. 현대 여성들은 너무 고민할 것이 많아져 버렸다. '의존혐오증 사회'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남성적 여성'이 되라는 해방적(?) 요구와 친밀하고 따뜻한 '어머니 여성'이 되라는 요구, 남성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자율성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 따뜻하게 돌봄을 받고 의존하고 싶은 인간적 욕구, 남성 중심의 결혼제도에 대한 저항과 거부, 결혼 제도만을 통해서 인정받는 친밀성, 시시각각 마주하는 내면의 공허함. 현대 여성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소설의 한 여주인공의 양립 불가능한 소망은 이런 독백으로 드러난다.

나: 혼자라는 게 왜 그렇게 끔찍한 거지?

나: 그건 만약 어떤 남자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난 어떤 정체성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지.

나: 하지만 난 한 남자가 너를 전적으로 소유하고 너의 숨쉴 공간을 다 차지해 버리는 걸 네가 싫어한다는 걸 알지 않니?

나: 알아 — 하지만 난 그걸 지독하게 원해.

나: 하지만 네가 실제로 그렇게 되면, 난 뒷에 걸렸다고 느끼게 될 걸.

나: 알아.

나: 넌 서로 모순되는 걸 원하는 거야.

4) 한국여성개발원의 『2004 여성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매년 증가해서 2003년에는 48.9%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OECD 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평균 70-80%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는 결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의 가파른 상승세에 비해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58.1%)도 남성들(89.0%)보다 많이 낮으며, OECD 국가의 대졸 여성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이 83%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노동 시장의 성별 직업 분리와 임금 격차, 여성 비정규직 증가, 간접 차별 등의 문제, 기존의 남성 중심적 노동개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박기남, 「여성노동의 현실과 대안」, 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개정판)』(도서출판 동녘, 2005).

나: 알아.

나: 넌 자유를 원하고 또한 밀접함도 원하는 거야.

나: 안다니까.5)

이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본 연구가 탐색해 보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감정과 친밀성, 의존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타자화 혹은 젠더화 되는가? 남성의 합리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규범화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의존성의 지속적 비가시화는 이 시대의 여성/딸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의미화 되는가?

둘째, 한국 사회 20~30대 비혼6) 여성들은 '의존(성)'에 대해 어떠한 자기개념을 가지며 구체적인 관계들 안에서 '의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하는가? 모녀와의 관계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감정구조를 가지며 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사랑과 친밀성의 대한 욕구 안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분열과 갈등, 딜레마를 경험하는가?

셋째, 내 안의 '의존(성)'을 타자화하지 않으면서 여성성의 곤경을 헤쳐갈 수 있는 대안적 행위성과 정체성은 가능한가?

우리 시대 여성들이 처하고 있는 이러한 의존성/독립성의 딜레마를 병리화하지 않으면서, 이 딜레마의 역사적 사회적 구체성을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문제다. 본 연구는 앞으로 '의존성' 개념에 대한 여러 영역의 논의들을 다시 젠더화하

5) 에리카 종의 여주인공 이시도라의 독백.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강수영·권기돈·배은경 옮김(서울: 새물결, 1999), 134쪽 재인용.

6) 비혼(非婚)이라는 말은 흔히 쓰이는 미혼(未婚)이라는 말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등장했다. '미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다는 혹은 '미처' 못했다는 즉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의무로서의 결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중심사회에서 '비혼' 또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좀더 풍요로운 대안적 개념과 어휘들이 등장하길 기대해 본다. '비혼'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결정한 여성, 배우자와의 이혼 후 또는 사별 후 혼자 사는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도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20~30대 여성에 초점을 둔다.

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즉 남성의 의존성은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하면서 이를 위해 의존성을 여성적인 것으로 폄하하거나 병리화하는 개념화 작업에 페미니즘적 비판을 가하면서 보다 대안적인 개념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소위 '여성(적)' 영역이라 간주되어 온 의존성, 친밀성, 감정(노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젠더화되는지,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분열과 딜레마를 경험하는지를 20~30대 비혼 여성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B.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⁷⁾

본 연구는 가장 근본적으로 연구자 자신의 경험과 고민으로부터 출발했다. 20대의 끝자락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않으려는 비혼 여성으로 살아가는 연구자는 90년대 후반의 대학시절 여성운동과 성정치 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당시 접했던 페미니즘 이론들은 너무나 다른 시각으로 나와 세상을 보게 해주었고 여성으로서 나와 우리의 경험은 언어화되기 시작했다. 나와 '다르지만 같은' 경험을 나누고, 언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매'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공동체의 꿈이 가능했으며 전국의 여성주의자들을 한데 모이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여러 모임과 자조집단, 행사 및 캠프 등의 활동은 소위 '의식향상'이라는 것과 더불어 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억눌렸던 감정(이러한 감정의 내용은 주로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우울증적 분노,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한 남성성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이성애 관계의 불공정함에 대한 회의, 가족의 가부장성, 자매애의 기쁨과 레즈비언 관계의 새로움과 한계 등)을 폭발시켰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들에게 (이성애 관계의) 연애지상주의자들과 폭력적인 관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그 관계에서 머물거나 반복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5여년이 흐른 지금 그 때 그 친구들 중 일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그간 비판해 오던 남성 중심의 가족구조를 힘겨운 가사노동을 통해 재생산하고 있다. 이들과 달리 결혼체

7) 여성주의 방법론에서는 연구자와 연구대상과의 거리, 분리, 대상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면서 기존의 '연구대상자 혹은 연구사례'라는 표현 대신 '참여자'라는 표현을 쓰고자 한다.

도의 모순과 불공평함에 대해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는 '똑똑한' 여성들은 '결혼은 미친 짓'이라며 혼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다.8)

연구자는 페미니즘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성성=의존성=자아상실'로 생각하면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남성상'을 이상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 과정은 모든 형태의 의존성에 대한 거부와 함께 큰 심리적 공허함과 외로움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주어진 '선택'은 공허함과 외로움에 찌든 '남성적 여성'이 되든가, 따뜻함과 돌봄, 사랑이 충족될 수 있으리라는 환상과 친밀성의 욕구가 합법적으로 공인되는 연애/결혼을 하든가 둘 중 하나였다. 물론 지금은 친밀성의 전문가라는 역할이 사회적으로나 일상적으로 여성에게 더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것, 남성의 여성(어머니, 여자친구, 아내)에 대한 의존은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된다는 것, 남성에게 일과 사랑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지만 여성은 일보다는 사랑으로 평가받는다는 것, 여성들의 돌봄의 욕구는 인정되거나 존중받지 않는다는 것, 우리 사회는 여성의 감정노동과 돌봄 노동을 체계적으로 은폐하거나 가치절하 하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사랑의 여성화'와 '감정의 여성화'(사실 아주 오랜 역사동안 감정은 늘 여성의 영역이었다)라는 덫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상호의존과 상호배려, 상호 돌봄을 기반으로 한 관계맺음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성들이 '남성적 여성'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방식과 삶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몇 달 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9)의 한 여주인공 '김삼순'에게서 이러한 힘을

8) 현대 여성들에게 친밀성의 영역에서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거칠게 요약된다. 전통적인 여성의 의무와 역할 및 사회문화적 여성성의 규범을 수용하는 자기 체념과 적응 상태, 사랑의 대상을 바꾸고 변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공생의 관계(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공의존관계라고 한다), 늘 타협하고 조정해야 하며 때론 희생까지 강요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의한 감정과 의존성의 욕구 억압의 상태.

9) 2005년 6월 1일~7월 21일까지 방영된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제작진은 김삼순의 캐릭터를 "그녀는 스물아홉의 뚱뚱한 노치녀이다. 대학도 안나왔고, 파티쉐라는 다소 생소한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크리스마스이브에 해고당하고, 애인도 원룸도 마이카도 없다. 그녀는 평균이다. 이상과 현실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스물아홉 그 또래 여성들의 평균"이라고 묘사하면서, "삶이 그대를 속여도, 사랑이 그대들을 울려도, 나빠지지 말고 더 단단해지기를..."이라는 말로 기획의도를 밝힌다.

이 드라마는 '현실적'이고 친근하면서 동시에 강하고 당당한 여주인공 캐릭터를 통해 방영 내내 높은 시청률(50.5%, TNS 기준)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연구자를 비롯한 주위의 많은 여성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하기도 했다. 많은 언론이 이 드라마와 관련한 기사를 소개하고 TV

발견할 수 있을까. 삼순은 당당하고 씩씩하며 너무나 솔직해서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여성이다. 그녀는 늘 사랑에 실패하긴 하지만 자기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성실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족 영역에서는 여성들(어머니, 언니)과의 강한 유대와 사랑, 시기적절하게 삶의 교훈과 지침을 전수하는 꿈속의 아버지가 존재한다. 그녀는 신분의 차이를 돈을 매개로 한 계약 관계로 뛰어 넘는데다 결국엔 이 계급적 불균형마저도 사랑이란 감정에 그다지 갈등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삼순은 계급적 차이에 대한 열등감 따위는 갖지 않는데다 가진 자들의 ‘타락과 위선’을 조롱하고 끊임없이 강요되는 여성성(외모,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여성상이 드라마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재현되었다는 점에는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도 여전히 ‘사랑의 전문가’로 등장하는 삼순이는 ‘(상처를 가진 여린 마음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냉정하고 이기적이며 표현할 줄 모르는’ 상대에게 사랑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도맡게 된다. 여기서 더욱 현실적인 문제는 독립적이고 당당하며 솔직한 그래서 ‘여자답지 못한’ 삼순이를 두려움과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인정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한국 사회에서는 가뭄에 콩나듯 드물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 여주인공처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은 몇이나 될까. 혹은 이러한 여성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남성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 시대 ‘해방된’ 여성들은 ‘가부장’ 아버지와 때론 ‘무기력’한 어머니를

프로그램의 주제로 다루어 졌으며 심지어 ‘2005 삼순이 선발대회’라는 프로그램까지 제작될 정도로 사회적, 문화적 신드롬을 일으켰다.

드라마 종영 후 미디어비평 단체인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은 “내 이름은 김삼순”이 그린 바람직한 여성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 이름은 김삼순”의 인기 비결은 무엇보다 김삼순의 캐릭터로부터 출발하며 김삼순의 등장은 우리 드라마의 여성 인물사를 다시 쓰게 했고 희망을 안겨주었다”라고 평가했다(세계일보). 한 언론사(한겨레)는 “이 드라마가 신데렐라의 혐의를 완전히 벗진 못 했지만, 리얼리티를 세밀하게 살리며 삶의 진정성을 깊이 있게 담아내 공감할 자아냈다. 또한 이로부터 사회적 의제 설정 기능까지 해냈기에 기존의 신데렐라 드라마의 신드롬과는 전혀 다른 성과를 냈다”고 평한다. 그리고 이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가장 진보한 여성상”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김삼순이라는 캐릭터가 보여준 이 시대의 ‘긍정적, 진보적 여성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사랑과 일 모두에 정직하고 당당함, 씩씩하고 솔직한 모습, 사랑보다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을 우선시/투철한 직업 의식, 남성 우월주의와 지배적 결혼문화,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유쾌한 풍자와 비판, 자기 성찰 역시 솔직하고 현실적임,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적극성과 책임성,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 등이다.

가졌으며, 가족과의 관계에 '연연해' 하고, 타인들의 욕구에 민감하며 그래서 '자아 경계'가 확고하지 않아 관계에서 힘들어하던가 아니면 확고해야 한다는 강박아래 친밀한 관계조차 맺지 못하는 '외롭고 나약한' 딸들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가 되기에는 너무 힘겹고, 그러나 다른 방식의 자율과 독립에 대한 갈망은 강력하며, 감정은 통제해야 하기에 더욱 심리적 공허함과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랑은 하고 싶지만 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다. 이런 딸들에게 사회적 메시지는 강력하다. '좋은' 남자 만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진정한 어른'과 '여자'가 되라고. 그러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다. '해방된' 여성들은 진정으로 '좋은' 남자를 꿈꾸거나 삶의 동반자로 동일한 성(性)을 선택하며 결혼은 소수에게나마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여성의 독립과 자율성에 진정한 가치를 두지 않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녀들의 과제는 '(오히려 깊이 내면화된) 엄마처럼 살지 않는 것'이다. 이제 여성들은 의존과 독립의 딜레마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

본 연구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또한 길을 찾아 헤매는 20~30대 비혼 여성의 경험과 삶을 '의존성'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 시대 젊은 여성들의 경험에서 '의존(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념화되며, 자신의 정체성이나 주체성 형성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5년 8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다. 모두 10명의 여성들을 만났고 이중 반은 연구자의 친구들, 나머지 반은 여성단체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들이었다. 대부분 연구 주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면접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접은 주로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필요에 따라 사무실이나 공원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이후 분석은 녹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6-7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구성했으며 따로 질문지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질문의 주요 내용은 의존(성)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은 어떠한가,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의존관계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의존을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느낌을 갖는가, 의존성과 여성성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감정'에 대한 경험과 욕구는 어떠한가,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본인이 생각하고 꿈꾸는 사랑 혹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개념은 어떠한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자신에 대한 느낌, 평가)는 어떠한가, 관계에서의 윤리나 가치관은 어떠한가 등이

었다.

연구자에게는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하지만, 인터뷰 참여자에겐 누가 “듣는가”가 중요하다. 어떤 이들은 편안하게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워 하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들 대부분은 “듣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라는 것에서, 비슷한 경험이나 신념을 공유한다는 것에서 신뢰를 보였으며, 많은 경우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도 했다.¹⁰⁾

인터뷰 마지막엔 인터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소감이나 느낌을 질문했다. 그녀들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나(“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되고 되짚어 보는 작업,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 항상 고민스러웠던 부분을 읽게 됨, 묶여 있던 고리를 풀어나가는 느낌, 예전에 잘 알지 못하고 혼란스럽던 부분이 해소, 상담을 한 기분”) 반대로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했다(“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답답하며, 이런 생각 안하고 살아온 자신도 답답하다, 근데도 아직까지도 과연 어떻게 해야되나..... 얘기한건 좋았던 거 같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솔직하게 제대로 잘 말을 해줬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염려하기도 했다(“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여성들로 현재 대부분 수도권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한 명을 제외하고) 대졸 혹은 대학원 졸업의 고학력이며, 대부분이 자녀수 2-3명(한명만 자녀수가 5명임)을 가진 ‘핵가족’ 중심의 가족에서 자라왔다.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들 대부분은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혹은 물질적 의존을 인정한다. 인터뷰 내용으로 추이해 보면 자라오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업실패나 경제적 무책임함으로 인해) 경제적 궁핍

10) 인터뷰의 경험은 예전에 알고 있던 친구들에 대해 더 풍요로운 시각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했다. 각자가 가진 고통의 기억과 경험에 대해 용기 내어 이야기해준 참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여성들의 자기이야기(autobiography)의 실종이 내가 보기에는 오늘날 여성 조건에 특징적이다... 나는 다시 한번, 다시금 간접적으로, 다른 여성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수많은 가까운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주의 깊게 읽어냄으로써, 자기지를 가지게 되었다.” Shoshona Felman, *What Does a Woman Want?: Reading and Sexual Difference*(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5), p 15.

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으며 현재에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여기에는 실제로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자신이 직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전적으로 경제적 의존상태이거나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혼이 곧 여성의 독립으로 이해되는 사회에서 비혼 여성이 온전히 '독립'하기에는 힘든 여건들이 존재한다. 참여자들의 약 절반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결혼에 대한 의사가 있거나 고민 중이었다. 현재 연애를 하는 경우는 3명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연애 초기 단계였다. 참여자들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 페미니즘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이었다.¹¹⁾ 또한 전혀 이와 관련된 활동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참여자들도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11) 인터뷰 참여자들 중 많은 경우가 대학시절 여성학 수업을 들었거나, 여성학 모임이나 여성 운동,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략 절반가량이 페미니즘/여성주의를 자신의 삶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로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상황과 특성>12)

이름 (가명)	나이	학력	직업	인터뷰 당시 연애 관계	가족구성	거주 형태
정세나	25	대졸	구직	없음	부모, 1녀 1남 중 첫째	친척과 거주
채진영	26	대졸	여성단체 활동가	없음	부모, 1녀 1남 중 둘째	가족과 거주
임수정	27	대학원 재학	학생	없음	부모, 2녀 중 첫째	가족과 거주
박상현	27	대졸	여성단체 활동가	있음	부모, 2녀 1남 중 둘째	동생과 거주
남현지	29	대졸	공무원 시험준비	초기	부모, 2녀 중 첫째	혼자 거주
윤다연	29	석사 졸	여성단체 활동가	없음	부모, 1녀 1남 중 둘째	친척과 거주
김희진	30	석사 졸	구직	있음	부모, 2녀 1남 중 둘째	혼자 거주
이난영	30	대졸	직장	없음	부모, 3녀 중 첫째	동생들과 거주
강미정	32	대학 재학	직장	있음	부모, 1남 4녀 중 막내	가족과 거주
서지예	34	석사 졸	직장	없음	부모, 2녀 1남 중 첫째	가족과 거주

12) 인터뷰 참여자들의 이름은 가명이며, 인터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나이와 직업을 조금 변경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서로 인터뷰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의 보호를 위한 것임을 양해 바란다.

II. 이론적 배경

- 다시 젠더화해서 본 의존성, 친밀성, 여성성 그리고 상호주관성

페미니즘은 지금까지 기존의 모든 가치와 신념체계들, 세상을 보는 방식들이 얼마나 남성 중심으로 젠더권력화 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비판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즉 젠더권력에 의해 굴절된 가치와 관념들이 결코 '보편적'이거나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 편향성을 띠는 점을 밝혀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해방적이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재편하는 작업(다시 젠더화 re-gendering)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본 연구는 '의존성=여성성'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남성 중심으로 배치된, 젠더권력에 의해 굴절된 통념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의존성=여성성'이 아닌 보다 대안적이고 해방적인 자아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II장은 우리 사회에서 타자화되는 감정, 의존성, 친밀성에 대해 다시 젠더화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여성(성)' 혹은 '의존성=여성성'의 등식에 대한 비판적 해체 및 의존과 감정의 욕구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등식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 주체성에 대한 모색의 과정이다.

A. 우리 시대의 타자화된 '의존(성)'

1. 현대 사회의 감정/의존성/친밀성

20세기 후반을 특징짓는 타자들의 귀환 이후로 그동안 침묵당해 온 여러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주변화된 것들이 이론적/담론적으로 복권되는 가운데, 최근 1990년대 이후로 감정에 대한 연구가 꽃피고 있다. 에번스(Dylan Evans, 2001)¹³⁾가

13) 에번스는 플라톤 이래 서구 사상의 지배적인 경향이 감정을 이성과 대립된다 하여 이성적 사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 온 것에 대해 비판한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반박을 진화론을 통해 설명하는 점에서 흥미롭다. "마음에도 근거는 있다. 그러나 마음의 근거는 수단-목적 추론의 근거가 아니다. 감정은 주어진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라는 문제뿐 아니라 어떤 목적들을 먼저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도 관여한다. 이처럼 확장된 합리성에 이름을 붙인다면 기계렌처를 따라 "생태적 합리성(ecological rationality)"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용어를 빌자면 "진화적 합리성"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닌 선호들은 우리가 물려받은 생물학적 유산에서 심대한 영향을 받은 것들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근거를 갖는

지적인 대로, 감정은 이제 핫 이슈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감정 연구는 소수의 심리학자와 그 보다 더 소수였던 인류학자들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새로운 시각에서 진행중인 감정 연구들은 감정이 '비합리적'이거나 '미성숙한' 것으로 폄하되거나 억압되어 온 기존의 견해들을 수정하는 경향을 질게 띤다. "르네상스"라 불릴 만큼 꽃피고 있는 최근의 연구들은 현대성(modernity) 문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이 감정, 친밀성, 의존성에 대한 거부와 억압, 그로 인해 따라 나오는 여러 모순들과 분열들이라고 본다. 즉,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초반)의 사회구조적 모순의 핵심에는 감정, 친밀성에 대한 열망과 동시에 그 억압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뮌헨에서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슈미트바우어(Wolfgang Schmidbauer, 1985)는 사회구조적, 심리적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모순을 설명한다. 현대의 핵가족 문화에서는 '의존성'이 더 '개인적'인 것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개인의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위기 상황이 연출되거나 더욱 심화된다. 그는 도시 생활이나 산업화 과정을 감정의 영역과 연관시킨다. 피상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보이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으로 인해 강하게 고무된 환상은, 외부세계에 대한 통제를 잃을까봐 두려워함으로써 억제된다. 그런 식으로 자유로운 인간은 사회에 자신을 억류시키면서 동시에 무제한적인 배회에 빠진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자극되는 환상과, 다른 한편으로는 통제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경직성이 동시에 기능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모순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감정 표현 또한 통제의 대상이 되며 이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감정'인 '두려움'(그에 의하면 이 '두려움'은 '실제적 공포'가 아닌 '신경증적 두려움'으로 사회적 현실과 얽혀 있으며 사회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에 의해 통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도시화, 산업화와 더불어 친밀성, 의존성에 대한 욕구가 현저하게 증가되었다는 것은 친밀성, 의존성이 그만큼이나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욕구이자 필요사항이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의존성의 문제가 '개인화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슈미트바우어에 따르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의존성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친밀한 거리를 확보하

다면, 그 이유는 자연 선택이 다른 정신적 능력과 더불어 우리의 감정을 고안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우리는 위험하고도 흥미로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딜런 에번스, 『감정』, 임건태 옮김(서울: 이소출판사, 2002), 193쪽.

되, 서로 의존적이지 않은 것이다. 즉 사람들은 잃어버린 친밀감을 제공할 수 있는 '진짜' 파트너를 늘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망 갈 구멍을 늘 열어둔다. 그리고 만일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가 가졌던 은밀한 욕구의 무절제성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모든 책임과 의무가 기피되고 사람들은 냉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터득한다. 의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징도 의심의 대상이다. 관계는 매일 새로운 협상의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며, 단지 '기력이 왕성한' 사람만이 힘겨운 밀착 관계에 도전할 수 있을 뿐이다(슈미트바우어, 1985).

슈미트바우어의 논의와 관찰은 독일 사회학자 벡과 유명 저널리스트인 그의 부인 벡-게른샤임(Ulrich Beck & Elizabeth Beck-Gernsheim, 1990)의 논의와 만나는 지점이 있지만 이들 부부가 제시하는 진단은 오히려 그 반대다. 벡과 벡-게른샤임은 슈미트바우어가 관찰한 도시화, 산업화 속에서 개인들이 친밀성을 추구하는 문제를 '전통'의 상실과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증대된 현대 사회 환경과 연결한다. 끊임없이 존재의 안전을 위협해 오는 '위험 사회' 속에서 '사랑'은 새로운 신의 이름, 종교의 이름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근대성의 등장으로 개인이 '전통'이나 신분적 관습, 자연적 제약 등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불확실성과 끊임없는 타협과 협상, 선택지들 앞에 내던져진 자유인지를 현대 사회의 '사랑'의 의미와 구성을 통해 설명한다. 불확실성의 세계, '위험 사회', 성별이 분리된 산업사회에서 개인은 오히려 자신을 정박시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로서 '사랑'을 '선택'한다(벡·벡-게른샤임, 1990).

이처럼 현대 사회의 감정과 친밀성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고 구성되는 장이 바로 (가족, 연인, 아이, 친구를 포함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사랑인 것이다. 사랑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벡, 벡-게른샤임과 함께 영국의 사회학자 기든스(Anthony Giddens, 1992) 또한 비슷한 관점에서 친밀성의 문제를 제기한다.¹⁴⁾ 기든스는 섹슈얼리티를 서구 사회 '현대성(modernity)'의

14) 현대 사회의 성과 사랑, 친밀성, 섹슈얼리티의 맥락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거나 참조되는 사회학자가 바로 벡과 기든스다. 그만큼 이들의 설명과 분석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담론의 초석을 마련한 프로이트와 라이히, 성담론의 현대화에 기틀을 마련한 푸코, 워스, 밀레트, 현대 성담론의 사회적 맥락을 발전시킨 기든스와 벡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성과 사랑에 대한 지형학을 살핀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오세은, 「현대사회의 성과 사랑」, 『성과 사랑의 시대:

전개와 공/사(public/private) 영역분리라는 구조적 변동과 연관시켜 분석한 저서에서 특히 ‘친밀성 영역’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에게 친밀성이란 “사람들이 서로 평등한 맥락 속에서 타자와 그리고 자기와 감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친밀성 영역과 관련한 성차의 관점에서 “남성은 친밀성에 문제”가 많은 반면¹⁵⁾ “여성들은 모더니티의 감정적 혁명가라는 역할 속에서 친밀성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들을 준비해 왔다”고 본다.

기든스는 사회학자로서 우리 시대 사회구조와 친밀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사회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긴 하지만, 그의 논의는 여성=감정(의 혁명가)이라는 암묵적 가정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든스의 논의는 공사분리와 이성/감정의 체계적 분리 및 지금까지 배제되거나 가치절하 되어 왔던 친밀성의 영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암묵적인 기본 가정은 그동안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설득력 있게 공격해온 공적 영역=남성의 혹은 남성적 영역/사적 영역=여성적 영역이라는 가정이다. 결국, 기든스에게서도 서구의 전통적인 이항대립, 예컨대 남성/여성, 공/사, 이성/감정이 암묵적이지만 강력하게 가정됨으로써, 여성에 대해 억압적이었던 전통적 역할과, 그가 제시하는 대안적 모델로서 ‘여성=감정의 혁명가’ 역할이 어떤 지점에서 구별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지고 만다. 또한, 그가 말하는 감정의 혁명가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침묵한다. 여성이 진정 혁명가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일상생활의 민주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의 실질적 변화와 함께 이러한 감정(노동)영역의 책임에 남성들을 다시 강력한 상호책임-행위자(co-responsible actors)로 호출할 수 있는 담론화작업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처럼 백과 기든스의 논의에 대해 젠더 불평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성, 사랑, 섹슈얼리티』,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서울: 학지사, 2004).

15) 기든스는 “남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남자들이 일에서 자기정체성을 찾으려 할 뿐, 자아의 성찰적 기획은 미래를 향해 정연한 서사를 투사하기 위해 반드시 과거의 감정적 재구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대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본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무의식적인 감정적 의존이야말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바로 그 미스터리였다. 자기정체성에 대한 추구는 이 인정되지 않은 감정적 의존안에 숨겨지게 되었다. 기든스가 보기에 남성들이 원했던 것은 여성들이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해 낸 어떤 것이었다. 앤소니 기든스,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옮김(서울: 새물결, 1996), 107쪽.

밖에 없다. 황정미(2003)는 후기 현대의 사회변동에서 나타나는 친밀성의 변화와 양성평등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이론적 쟁점들을 고찰하는 글¹⁶⁾에서 기든스와 벡의 주장을 비판한다. 기든스는 가장 낙관적인 입장에서 친밀성의 변화는 민주주의를 사적 영역에까지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본다(개인생활의 민주화). 벡은 이와 달리 여성과 남성이 모두 노동시장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개인적 이해관계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현대인들은 더욱 사랑이라는 '신홍종교'에 매달리게 된다고 분석한다. 황정미는 양자의 논의(특히 기든스가 젠더 불평등의 구조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점을 비판하면서 '평등한 친밀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가 변화한다고 해서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양성간의 비대칭적 관계가 과연 연쇄적으로 변화될 것인지, 또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이 친밀하고 정서적인 인간관계를 어디까지 민주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기든스처럼 쉽사리 낙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기든스 안에서는 성찰성의 구조적 조건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한데 이는 기든스 식의 '성찰성'은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남(이른바 탈전통)으로서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든스는 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성찰적 주제로서의 성장으로 다소 아름답게 서술하지만, 기실 섹슈얼리티와 젠더 질서를 관통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경시하고 있다.

사회 심리학자인 타브리스(Carol Tavris, 1992)는 기든스와 (만나는 지점을 포함해서) 다른 관점에서 오히려 친밀성의 전문가로 여성을 정형화하는 최근의 흐름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녀는 1970년대 말, 1980년대에 등장한 문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고 우정을 나누는 여자들의 방식이 남자들의 것보다 더 낮고 건강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특히 캐롤 길리건이나 낸시 초도로우와 같은 대표적 문화 페미니즘의 주장—여성은 관계에 대한 노련함 때문에 사랑을 더 잘 할 수 있는 반면 남성은 독립을 과대평가하고 관계를 두려워하게끔 키워져서 애정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친밀성의 전문가로서 여성을 새롭게 정형화하고 '사랑의 여성화'¹⁷⁾를 강화하

16) 황정미, 「'후기 현대' 한국사회의 친밀성 변화와 성적 정체성의 재구성-평등한 친밀성은 가능한가?」, 『탈권위주의 시대의 여성주의 정치학』, 제19차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한국여성학회, 2003).

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여성을 칭찬하고 확실히 여성의 경험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정형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녀 모두 상당한 희생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남녀는 어떤 감정을 가지는가, 그 감정을 얼마나 강렬하게 느끼는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의 차이는 여성에겐 감정을 드러낼 것이 기대되거나 허용되고 요구되는 반면 남성에겐 감정을 거부하거나 억누를 것이 기대되거나 요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의 규칙은 멋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제도 즉 산업 혁명 후 진행된 공사 영역의 성별분리 체계에 잘 들어맞는 것이다.

타브리스는 감정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남녀 차이에 대한 관점을 역사화하면서 사랑에 대한 현대 여성의 언어와 “친밀성”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최근에 생겨난 것이며 얼마나 현대적인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문화와 연결된 것인지에 대해 고찰한다.¹⁷⁾ 여기에서 문제는 감정을 드러낼 것이 기대되거나 허용되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큰 심리적 공허함과 자기 분열을 경험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감정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사회적으로 구조화 되는 동시에(감정의 여성화) 개인 내

17) 타브리스(1992)는 남녀 사이 혹은 부부 사이에서의 일상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문제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게 친밀성을 규정하고 사랑을 표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는 행동이다. 반면 많은 여자들에게 사랑은 상대방을 흠모하고 있다는 그 생생한 느낌을 즉각 알게 해주는 것, 즉 말하는 것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남녀의 차이를 영속화하는 관점과 사랑과 친밀성, 감정에 대해 여성화된 정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양쪽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 즉 유연성이며 애정, 권력 그리고 차이에 대한 존중의 상호성이라고 말한다.

18) 캐롤 타브리스,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히스테리아 옮김(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9), 7장 「사랑의 전문가, 사랑의 희생자」 참조. 남녀의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와 같은 책은 이러한 시각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존 그레이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 사고체계와 의사소통 방식(남성은 목표지향적, 여성은 관계지향적)을 가지는가를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통해 보여주면서 상호 이해를 통해 좀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남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기술과 관련해서 기업에서도 이 책의 활용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은 97년 출간당시엔 3만부가 판매되었으나 2002년엔 30만부로 해마다 판매 부수가 급증했다(한겨레, 2003년 10월 4일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책의 출판사 대표는 독자층이 “처음에는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형성되다가 점차 30대 남성들로 확산되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 출판사 대표에 따르면 10년 가까이 이 책은 80여 만부가 팔렸다고 한다(조선일보, 2004년 5월 15일자). 이 책의 판매부수만 생각해 보아도 남녀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지되고 수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면의 감정적 욕구와 친밀성의 욕구는 꺾히거나 억압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정의 역할을 도맡거나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것과 감정적 욕구를 갖는다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적 관념과 이데올로기는 바로 '의존성=여성성'의 등식이다.

2. 의존성과 여성성의 딜레마

'의존성=여성성'이라는 등식은 근대에 들어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짧지만 굵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보아서는 '의존성=여성성'은 아무런 근거(ground)나 토대(foundation)없이 단정적으로 가정된 개념이자 지극히 가부장적인 근현대 담론화의 통합적 일부이다.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의존성은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병리적인(pathological) 것으로 접근되곤 한다. 예컨대, 의존성에 대한 연구 역사를 개괄하고 있는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2000)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전제에서의 적절한 의존이 아닌 전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자기 생존의 필수 자양분을 얻으려 할 때 병적인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의존성 성격의 소유자들은 두 사람이 마치 하나의 공생체인 것처럼 여기는 심리적 미분화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심리 상태가 미발달되고 지속되어 만성적으로 굳어지면 병리적 의존 상태가 된다. 1980년대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이 의존성 성격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거나 남성보다 유병률이 높다는 의견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의존성 성격에 성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는 분분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정신의학의 교과서인 『정신의학 개요』(Synopsis of Psychiatry)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다'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의존적이며 의존적인 성격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시각이 현재에도 지속됨을 알 수 있다.¹⁹⁾ 그러나 의존성 성격 장애의 진단 기준(DSM-IV)에서 제시하는 특성을 보면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성' 혹은 여성의 역할과의 경계가 모호하며 오히려 남성들이 원하는 문화적 규범들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19) 민병배·남기숙,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서울: 학지사, 2000).

타브리스(1999)는 “공의존증”²⁰⁾이 매우 사회적인 병이라 주장하면서 여성성에 농밀하게 들러붙어 있는 의존증 개념을 “공의존증”(codependence)으로 확대하여 접근한다. 공의존증 환자는 “중독된 사람에게 중독된” 사람이다. “공의존증”은 원래 특정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그러나 이 용어는 약물 중독자에게 적용되고 있던 언어들 재빨리 흡수하면서 알코올 중독자의 친척, 모든 종류의 중독자(음식 중독자, 일 중독자, 섹스 중독자, 사랑 중독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만성적으로 아픈, 일반적으로 “책임감 없는” 상대와 살고 있는 사람, 행동에 문제가 있는 십대나 어린아이들의 부모, 직업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돕는 전문가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타브리스는 공의존증이 전 국가 현상이 되었으며 그 병을 만들고 치료하는 데서 이 병의 사회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고 비판한다. 즉 공의존증 환자가 지닌 자질을 훌륭한 여성 역할을 입증하는 것들이다. 또한 공의존증 운동은 남성 정상성 모델을 토대로 하며 “지나치게 돌보도록” 길러진 여성을 또다시 비난하게 된다는 것이다.²¹⁾

역사적으로, 의존증이 매우 젠더화된 개념이며 현재 역시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담론 정치와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에 유리한 쪽으로 혹은/그리고 여전히 병리적으로 개념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성성 개념이 어떻게 의존성 개념과 동외연적인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기존 서구 사상의 토대가 되어왔던 남성/여성, 독립/의존, 능동성/수동성, 이성/감정, 문화/자연, 정신/육체, 공/사 등의 위계화된 이분법에 대한

20) “공의존증” 개념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가 갖는 의존성에 대한 진단으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가히 폭발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유통되고 있다. 임상의 Robin Norwood는 미국에서 300만 부의 판매부수를 기록한 자신의 저서 『Women who love too much』에서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들을 수년간 상담하고 난 후 처음으로 ‘너무 사랑함’의 현상을 생각·느낌·행동 등의 어떤 특별한 증후군으로 인식했다고 밝힌다. 그녀는 너무 사랑하는 것은 우선 여성적 현상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번역서를 참조하라. 로빈 노우드, 『너무 사랑하는 여인』, 신양숙 옮김(서울: 범우사, 1990). 앞서 언급된 슈미트바우어는 역할 수행으로 묶여진 관계를 ‘공생관계’라고 개념화하며, 기든스는 (공의존과 구분하면서) 관계 그 자체가 중독의 대상이 되는 강박적 의존으로서 ‘고착된 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때 “공의존증”의 개념이 젠더와 관련지어 분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타인지향적 돌봄의 가치관을 체화하는 여성들에게 진단 내려질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21) 캐롤 타브리스, 앞의 책, 207-13쪽.

비판과 도전, 해체가 진행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위계화된 체계를 통해서만이 그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열등화된 항들 즉 타자화된 영역들에 대한 '의존'은 (오히려)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²²⁾

그렇다면 페미니즘에서 '여성성'은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 '여성성'과 '여자다움'은 주로 젠더와 관련되어 사용된다. '섹스'가 남녀의 생물학적·해부학적인 성을 가리킴에 반해 '젠더'는 기존의 문화에서 육체적인 것으로 남성 또는 여성에게 일치시키려는 감정적·심리적 속성을 가리킨다. 섹스와 젠더의 차이를 자각하는 것에서 페미니즘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 즉, 인간은 남녀로 태어나나 남녀는 태생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생각(터틀, 1986)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이론의 주요 초점이 젠더의 자연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만, 비페미니스트들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들도 '자연적인' 것에 부여하는 의미와 그 개념의 이용법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닌 것 같으며, 젠더라는 개념을 인간행위의 이중성을 나타내는 복잡한 이중성으로 은유하는 것도 연구 상의 장애물이 된다(플렉스, 1992). 즉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젠더'라는 용어를 세련화시키기 위해서, 즉 용어의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지위를 높이는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모든 '자연적' 함축들을 떼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용어의 손상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오히려 섹스와 젠더는 계속 혼동되어 쓰이며 둘 사이에 날카롭게 구분되는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섹스/젠더 구분이 가진 일견 뚜렷한 명확성은 섹스도 젠더도 모두 사실은 지식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은폐한다(스콧, 1999). 앞서 언급했

22) 스콧(1999)은 프랑스혁명 당시의 시민권을 분석하면서, 의존과 독립의 명백한 모순이 여성들을 타자화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개인들은 자율적인 것이라고 말해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은 타자들에 의한 인정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외적 기준이 없다면, 그리고 한명의 혹은 여러 명의 타자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개인성의 경계가 규정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어떤 구분 가능한 존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개인들 사이의 평등이란 각 개인들이 서로에 대해 독립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존과 독립, 이 명백한 모순은 어떻게 조정될 수 있었는가? 혁명론자들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 경제적·사회적으로 의존적인 사람과 독립적인 사람, 여성과 남성 등의 구분이었다. 즉 기존의 가부장적 규칙을 생물학에 기초한 성차라는 관점에서 재규정함으로써 보편적인 동시에 남성적인 자율적 개인성이라는 허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남성들의 개인성을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인정을 해줄 '타자들'은 스스로 개인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런 타자가 바로 여성들이었던 것이다." 조운 W. 스콧,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성찰」, 『여성과 사회』 13호, 배은경 옮김(서울: 한국여성연구소, 2001), 228쪽.

듯 위계화된 이분법 체계에서 섹스와 젠더에 대한 지식과 담론, 재현은 사회구조적 영역과 일상의 정치 모두에서 지배적 힘을 발휘하고 있다. 섹스와 젠더가 지식의 한 형태, 그것도 남성 중심적 지식의 핵심적 형태임이 분명하기에 더욱 이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요구된다.

사실 흥미로운 건 이미 오랜 전에 '여성성의 비밀'에 대한 탐구가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프로이트에게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규명 과정은 자신과의 지난한 싸움이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가설을 철회하고 다시 그 가설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여성 섹슈얼리티의 본성을 미완의 숙제로 남겨둔다.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아낼 수 없었던 프로이트는 여성성을 묘사할 수 없는 존재, 알 수 없는 존재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어둠의 대륙'이라고 표현한다(임현주, 2003). 프로이트의 여성성 개념화를 페미니즘 시각에서 다시 보고 있는 임현주에 따르면, 프로이트가 여성성을 '어둠의 대륙'이라고 표현한 것은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의 이데올로기 선상에서 무지의 영역을 어두움이라는 은유를 사용한 것이라는 데이비드 메이시의 지적에 동의한다. 통찰/침투에의 욕망과 더불어 남근/시각적 은유는 여성성을 어둠고 침투할 수 없는 존재로 구성/재생산하고 있다. 결국 정신분석은 여성성을 자신의 합리주의적 담론에 대한 일종의 과잉적 존재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²³⁾

이처럼 프로이트가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 "여성성(feminine soul)에 대한 30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답하지 못했고 결코 대답할 수 없었던 중대한 문제"라고 선언했다면, 아이첸바움과 오바흐(Luise Eichenbaum & Susie Orbach, 1999)는 과감히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녀들이 보기에 프로이트가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을 참조했다고는 하지만 그 문제는 실상 지금 까지도 혼란, 당혹,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은 파트너에 대한 의존의 느낌과 의지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갈망을 수치스러워 한다.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당당하며 자신의 욕구를 잘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을 느낀다.

23) 임현주, 「여성적 섹슈얼리티」,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서울: 도서출판 여이언, 2003), 225쪽. 남성들에 대한 여성의 활동과 관계들은 남성들의 프로젝트를 위한 지속적인 은유임을 보여주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여성에 대한 은유적 이미지는 남성의 감정적 비이성적 요소들, 즉 그의 '어두운 면darker side'을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71)." Eva Feder Kittay, "Woman as Metaphor," in *Hypatia* vol 3, no. 2 (Summer 1988).

또한 자신들은 의존이 전제되는 결혼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였던 이전의 할머니, 어머니 세대와는 분명 다르다고 믿는다. 이제 관계는 오늘날 더욱더 복잡한 것이 된다. 그러나 저자들은 20대와 60대의 여성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들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상처받기 쉬움과 욕구에 대해 유사한 감정을 공유한다고 말한다. 그녀들은 동일한 언어로 말한다. 즉 감정적 공허(emotional hunger)의 느낌과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요구에 대해 혼란을 경험한다는 것이다.²⁴⁾ 여기서 그녀들은 남성이 독립적이라는 신화에 대한 폭로와 의존을 수치심과 연결하지 않는 다른 방식의 이해를 통해 그 대담을 찾고 있다.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고통 받는 남성의 독립성 신화는 변화되어야 할 가부장제 신화 중 하나다. 남성은 여성을 필요로 하고 여성의 돌봄과 사랑을 통해 의존에 대한 욕구가 충족됨에도 사회적으로 이는 비가시화 된다. 또한 문화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얻거나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감정적 참여를 위한 인간의 능력(느끼는 바에 대해 생각하고 일상생활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감정들을 언어화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하기 보다는 많은 경우 타인에게 깊은 감정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낀다. 그녀들에 따르면 의존은 더 이상 수치스러움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존에 대한 다른 방식의 이해는 모든 관계에서의 변화를 가능하도록 해준다.²⁵⁾

24) 카린 플라케(2000)는 젠더 개념이 정신분석학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개괄하는 글에서, 프랑스 여성 정신분석학자 올리비에(Christiane Olivier)의 분석을 언급한다. 올리비에 논의의 핵심은 이렇하다. 성적 욕구의 힘은 어머니가 아들만 나르시시적으로 높이 평가하며, 반면 딸은 이에 상응하는 가치평가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한다. 어머니가 딸에게 자신의 육체에 대한 어떠한 쾌락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도 역시 상응하는 자극이 없다. 아버지는 딸의 초기 부양 및 보살핌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딸은 아버지의 욕구를 체험하지 못한 채로 남기 때문이다. 올리비에의 이론에 따르면, 그 결과는 공허한 감정과 사랑에 대한 잠재울 수 없는 허기이다. 이 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계속 구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평생 동안 구속된다. 카린 플라케는 이 글에서 정신분석학의 다양한 관점 즉, 양성의 양극화를 확정하는 관점, 양성관점을 세분화하는 연구, 해체주의적 접근방식 등을 개괄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잉에 슈테판 편, 『젠더연구: 성 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 탁선미 외 옮김(나남출판, 2002), 257-75쪽. 이러한 올리비에의 논의는 좀더 치밀한 분석과 관점이 요구된다. 단,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태어난 딸들이 양육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가치평가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사회문화적 통제와 여성성의 규범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성장 과정이 여성들의 심리적 좌절, 공허, 분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과는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25) Luise Eichenbaum & Susie Orbach, *WHAT DO WOMEN WANT: Exploding the Myth of Dependency*(New York.: Berkly Books, 1999), 서문 참조.

아이첸바움과 오바흐는, 남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영해 줄 수 있는 여성들 즉 어머니, 여자친구, 아내를 갖는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과 존중을 추구하는데 남성은 자신들의 “독립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심과 확신을 필요로 한다. 때때로 남성들은 여성들이 반응하거나 충고를 하는 것조차 원치 않으며 단지 들어주기만을 원한다. 남자가 된다는 건(To be a man) 관심과 권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런 남성들에게 “여자들은 뭘 원하지?”라는 혼란은 그들 자신의 경험에서 당연히 해왔던 것들을 나타낸다. 여성들은 파트너로부터 돌봄, 접촉을 갈망하지만 역설적으로 남성들은 “그것(it)”을 상실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남성들은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알지 못한다. 그녀는 돌봄과 관심, 지원을 원한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늘 자신의 뒤에서 그녀의 성공과 발전을 지원하고 자율성과 자아를 위한 지속적인 동반자로 남성들이 늘 가져왔던 “여성”을 원한다. 여기에서 “그것”-귀 기울이고 돌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감정을 나누는-은 단순히 자연적이거나 마술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소녀들이 그것을 제공하도록 길러지며 소년들은 삶의 망의 일부로서 감정적 돌봄을 경험한다. 이는 가부장적 문화의 비가시화 된 법칙 중 하나다. 소년과 남성들의 감정적 의존의 필요성은 여성들보다 덜 드러난다. 남성들은 대개 감정적 관심과 연결을 갈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들은 소녀들이 익히게 되는 감정적 안테나를 개발하도록 키워지지 않는다.²⁶⁾

이러한 젠더화된 안테나는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와 가족구조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문화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는 여성의 의존성은 약점이 되고 남성의 독립성은 과대평가된다. 게다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의존성은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간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성의 의존성과는 달리 우리 문화가 남성의 의존성을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남성에게는 그들의 성적, 정서적, 그리고 가정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아내(마누라)’가 있다. 동료에게 독립성의 화신과도 같이 견고한 남성은 식사를 차려 주고 어루만져 주고 자녀를 키워 주며 또 청소까지 해주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간다. 이런 남성은 아내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의존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한다.

또한 많은 여성들은 남성이 보살펴 줄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의존적이라고 믿는

26) *Ibid.*, pp. 62-4.

다. 그러나 이것은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부장제적 이중 사고의 게임일 뿐이다. 남성을 정서적으로 돌보아 온 것은 여성이지만 남성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여성의 임무였기 때문에 남성들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이를 감추거나 부인해 왔다. 이에 비해 여성의 욕구는 남성에게서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욕구를 남성보다 더 느끼게 된다. 또한 보살핌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다운 속성이 아니다. 남성들은 상실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코 알지 못하는 “그것” 즉 남성은 보살피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 않았다. 그 결과 남성은 여성에게서 받기만 했을 뿐 어떻게 주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전통적인 관계 속에서 돌보는 일은 의심할 여지없이 모두 여성이 한다고 항상 여겨져 왔기 때문에 남성의 의존성은 거론될 필요조차 없다(그린스팬, 1983).²⁷⁾

이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더 강화된 방식으로 드러난다. 근대의 가족은 위계적 공사 이분법 속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되는 여성의 가사 노동과 보살핌의 노동에 의존해 있다. 가족 안에서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중요성을 평가받았지만, 고립된 양육자였고, 여성의 이러한 보살핌의 노동은 남성의 생계 벌이 노동과는 대조적으로 생산적이지 않으며, 노동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여성의 경험 세계에 대한 이러한 평가 절하는 여성들을 낮은 지위에 머물도록 한다. 근대 가족은 이토록 여성의 보살핌 노동에 의존하여 그 가장 큰 특성인 친밀성과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여성의 보살핌의 노동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근대 가족 안에서 새로운 남성 중심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최근 몇 십 년 간 한국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했고, 기혼 여성의 경제 활동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근대적 가정 중심성은 가족 안에서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여성에게 부과하고 있다. 부부간 가사 분담의 요구가 여성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지만, 보살핌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근대의 젠더 구조와 그에 기반한 가족에서의 성별 분업은 변화에 더디다(이재경, 2003).²⁸⁾

27) 미리암 그린스팬, 『우리 속에 숨어 있는 힘』, 고석주 옮김(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5), 325-26쪽.

28) 이재경, 앞의 책, 32-3쪽. 여성의 역할과 노동이 어떻게 주변화 되고 가치절하 되어 왔는지를 요즈음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조선시대 선비의 전통이 갖는 허구성을 통해 비판한 재미있는 글이 있다. 김경미(2004)는 ‘청빈하고 온유한’ 선비의 아내가 짊어져야 했던 생계부양자로서의 여성의 가치와 역할이 봉건적 유교 가부장제 기획아래 어떻게 은폐되어 왔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김경미, 「선비의 아내, 그녀들의 숨은 노동」, 『여/성이론』 11호(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04).

이처럼 남성의 의존성은 구조적으로 비가시화 되는 반면, 여성의 의존성 욕구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심화되는 건 여성의 이러한 욕구는 인정되지 않는 반면 현대 사회는 여성에게 ‘독립성’을 가진 ‘해방된’ 여성이 되라는 과제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해방된’ 여성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여성의 독립성을 무시하지 않는 남성을 찾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심리학자 밀러(Jean Baker Miller)의 임상경험에 따르면, 여성들이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는 이유는 지난 몇 년 새 두드러지게 달라져가고 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했는가에 대한 자각이 시작된 중년 여성이 1970년대의 환자였다면 이제는 주로 직업적으로 성공한 전문직 여성들이 주된 환자로 온다는 것이다. 좀더 젊고 과로하는 경향이 있는 독신 혹은 이혼 여성은 그들의 삶에서 충족되지 않는 감정적 욕구를 발견하고 있다. 즉 일생을 직업에 바친 여성에게는 이제까지 무시해 온 삶의 감정적인 부분을 기꺼이 보살펴 줄 ‘마누라’가 없는 것이며 결과는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관계를 보살필 에너지를 갖지 못한 채 두 사람 모두가 전통적으로 성공이라고 규정되어 온 것을 추구하느라 바쁘든가 아니면 전문직 여성이 자기에겐 전혀 파트너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든가”(Gordon, 1985)라는 것이다.²⁹⁾

물론 결혼제도에 들어가지 않은 여성, 의식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 홀로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 모두가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공허함과 마주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성애중심, 결혼중심 사회에서 연애를 하지 않는다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건 늘 뭔가 부족하고 외롭고 공허한 존재로 낙인찍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적 강요 혹은 편견은 분명 문제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충족되지 않는 감정적 욕구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결혼이라는 제도만을 통해 친밀성과 감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나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환상이 작동되는 체계에서는 (기혼 여성도 그리 다를 바 없겠지만) 젊은 비혼 여성들의 경우 많은 갈등과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여성들의 이러한 갈등과 딜레마에 대한 관심과 정교한 비판적 언어들이 페미니즘 진영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 여성주의 철학의 영역에서는 남성을 주체, 독립,

29) 올리히 백·엘리자베트 백-게른샤임, 앞의 책, 123쪽 재인용.

자율과 연결하고 여성을 타자, 의존, 수동성과 연결하는 남성 중심적 가치체계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여성주체성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B. 여성주의 철학과 여성주체성의 가능성

1. 재구성되는 '주체'와 도덕적 행위성

보부아르는 페미니즘 사상의 고전이 된 자신의 저서 『제2의 성』에서 남자와 달리 해방된(여기서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자주성을 획득한) 여성들이 주체성 획득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분열에 대해 그 당시로서는 꽤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남자는 인간이라는 천직과 남성이라는 운명이 완전히 조화되어 모순을 느끼지 않는다. 반면 여자는 여자다움이 의존성 혹은 복종과 관련되기 때문에 '주체성이라는 최고의 것'을 얻기가 그만큼 힘들다. 여성다움은 여성의 자유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갈등은 해방된 여자의 위치를 특징짓는 특이한 것이다. "자주적인 능동성이라는 것은 여자다움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여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독립적인 여성—특히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는 지성적인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열등감에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여성에게 남겨진 길은 "새로운 종속자로서의 여자"가 되거나 종속에 대한 거부를 통해 "메마른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 즉 보부아르가 보기에 "그녀는 자기 확립의 욕망과 자기 부정의 욕망 사이에서 둘로 나뉘어져 어느 쪽이든지 분열되고 만다"는 것이다.³⁰⁾

보부아르가 보여준 여성성과 주체성의 양립불가능성은 여성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대의 해방된 여성들은 복종과 희생,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직업을 가진 주체적인 인간의 길을 가는 것이 자기 분열과 신경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그녀의 결론이다. 이처럼 그녀는 (교육받은 중산층인) 자신을 포함한 여성의 모순적이고 분열적인 삶의

30)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조흥식 옮김(서울: 을유문화사, 1993), 461-508쪽.

조건에 대해 탁월하게 분석했으나 여전히 보부아르에게 여성성이란 인간성과 주체성 획득을 위해서 부정되거나 객체화 되어야 하는 타자를 의미한다.³¹⁾ 보부아르가 분석했던 여성들의 삶의 조건들이 50여년이 훌쩍 지난 한국 사회의 현대 여성들의 삶과는 어떠한 연결이 가능한가.

우선 서양철학의 주체 개념과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을 살펴보자. 철학자 김상봉(2002)은 서양정신의 역사 전체를 가리켜 나르시스의 꿈이라 부른다. 그는 그 까닭이 서양철학이 한 번도 자기 밖으로 걸어 나와 타자적 정신 속에서 자기를 상실한 적이 없는 닫힌 정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꿈의 파노라마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나르시스는 타자적 주체를 알지 못하는 정신이다. 그는 언제나 홀로주체로서 존재한다. 그의 세계에서는 자기만이 주체이며 다른 모든 것은 그의 객체이다. 그리하여 그의 세계 속에서 모든 타자는 사물화되고 인식대상으로 정립되기는 하되, 결코 인격적 만남의 대상으로서 그에게 마주설 수 없다. 그리하여 모든 타자는 주체에 의해 수동적으로 규정되기 위하여 존재할 뿐이며 어떤 경우에도 정신 그 자체를 능동적으로 규정하는 또 다른 주체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서양정신은 그렇게 한 번도 타자적 주체에 의해 수동적으로 규정되어본 적이 없는 정신, 한 번도 타자적 정신에 매혹되어 자기의 주체성을 그 앞에서 포기하거나 양도한 적이 없었던 정신이다.” 그가 보기에 서양철학은 “홀로주체적 정신의 능동적 세계규정의 기록”³²⁾이다.

31) 여성(성)을 타자화하는 보부아르의 철학은 그동안 많은 페미니스트들과 여성주의 철학자들로부터 비판받아 왔다. 그중 제네비브 로이드는 보부아르의 철학이 여성의 자기파괴를 요구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다. 로이드에 의하면 “남성의 초월은... 여성의 초월이 취해야 하는 형태와는 다르다. 그것은 남성에게는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는 영역으로부터—그에게는 단순히 자연스러운 감정과 특수성의 영역으로부터—독립하는 것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에게는 자신이 떠나면서 동시에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는 영역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로즈마리 톱, 『페미니즘 사상-종합적 접근』, 이소영 옮김(서울: 한신문화사, 1995), 336쪽. 보부아르의 철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비판에 대해서는 이 책 7장(실존주의 페미니즘)을 참조하라.

32) 김상봉, 『나르시스의 꿈-서양정신의 극복을 위한 연습』(서울: 한길사, 2002), 21쪽. 김상봉(2002)이 서양정신에 대한 ‘일반적’ 비평을 했다면, 이성환(2003)은 여성 타자성의 원형을 그리스 정치철학에서 찾는다. 이성환(2003)은 여자들이 타자로서의 규정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이 문제의 핵심을 정치·사회철학의 오랜 문제로 논의되어 온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에서 찾는다. 그리고 여자의 타자화의 원형적 사유가 그리스 정치철학의 전통적인 공적-사적 영역의 구분이라고 분석한다. 즉 남자는 자유롭고 가치가 있는 공적 영역에서 살며, 여자는 일상을 지배하는, 자유가 없는 필연적 세계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노동을 반복적으로 행하며 산다. 더욱이 그리스인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그것에 존재론적·가치론적 질서를 부가하였다. 그리스

이러한 서양정신의 전 역사를 관통했던 나르시스적 '홀로주체성'은 합리성의 위기 과정에서 그 근본이 흔들리고 동요되고 균열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적 여성 주체성을 형상화하는데 주력해온 페미니스트 이론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1994)에 따르면 담론적이고 이론적인 층위에서 볼 때 서구 세계에서 모더니티는 정치·인식론·윤리적 의미에서 주체의 고전적 재현 체계의 쇠퇴를 그 특징으로 한다. 두 가지 현상 즉 여성운동의 부활과 이론 영역과 철학 자체에 합리성의 위기—이 위기는 19세기말 묵시론적 삼위일체를 이루는 비판 사상가들인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에 의해 언급—가 발생했다. 브라이도티는 “철학 담론의 인식론적 바탕에 의문을 제기할 철학적 절박성과 새로운 페미니즘이 미친 효과들이 범상치 않게 동시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는 철학적 주체의 “위기”라는 관념에 회의적이며 위기의 상태를 허무주의나 냉소주의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위기를 오히려 여성들이 새로운 가능성 및 잠재성을 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³⁾ 어쨌든 이성과 합리성, 계몽주의, 합리적 자아와 동일시 되어왔던 주체 개념은 많은 비판이론과 페미니즘 내부에서 문제시 되었고 이와 동시에 풍부하고 다양한 인식론적 논쟁과 비판들이 등장했다.

페미니스트 철학자 재거(Alison Jaggar, 1996)의 구분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부터 페미니스트 철학자들은 “철학이 페미니즘을 돕게 했던” 반면 1980년경부터는 “페미니즘이 철학을 돕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한다. 즉, 승인된 철학적 도구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성별 불평등을 폭로하기 위해 계몽적인 선구자들의 작업을 지속하는 일로부터 도덕개념들과 이론들이 그 자체로 남성편향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도덕이론을 재사유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서구 페미니스트 윤리학이 여성적인 것의 가치를 회복하고 재사유

인의 이와 같은 신념체계는 그 이후의 유럽문화를 지배하는 원형이다. 근대 이후에는 '생계를 위한 노동', 즉 필연적 삶을 위한 경제 활동이 사적 영역을 벗어나 조직화된 노동으로서 공적 영역에 편입된다(한나 아렌트, 1996). 그리하여 그리스에서는 여자들의 일이었던 것이 근대 이후에는 남자들의 공적인 일로 바뀌었으며 따라서 여자들의 일은 '가족들을 보살피는 것'으로 축소, 제한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존재론적·가치론적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어 오늘날까지도 여자를 타자로 만드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성환, 「무엇이 여자를 타자로 만드는가?—여성의 주체성의 기원」, 송무 외, 『젠더를 말한다: 페미니즘과 인문학의 만남』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3).

33) 로지 브라이도티, 『유목적 주체: 우리 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 박미선 옮김(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04), 12장과 13장 참조.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느냐, 기존 윤리이론(칸트주의, 공리주의, 사회계약론 등)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교정하느냐, 아니면 여성적인 것과 연결된 가치들을 거부하고 성별화된 가치개념 전체를 비판하느냐 등에 따라 광범위한 논쟁이 일어난다고 말한다.³⁴⁾ 재거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윤리학의 한 흐름은 도덕적 주체성의 재사유 즉, 자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기존의 이해, 그리고 주체성에 대한 이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러한 철학적 성찰은 여성과 상징적으로 연결되어왔던 몸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재거는 여성의 경험, 특수성, 신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시간성과 무위치정보보다는 시간성과 상황에 의해 한계 지워짐을 부각시키고, 불변성보다는 성장과 쇠퇴를,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고립성보다는 사회성을 부각시킨다. 인간의 구체적 신체성에 대한 주목은 또한 도덕심리학에 대한 함의를 갖고 있다. 몸을 가진 도덕주체의 정체성이 특정한 사회관계 -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부모노릇, 나이, 혹은 성과 같은 육체적 특징에 부착된 사회적 의미에 의해 규정되는 - 에 의해 구성되는 한, 그러한 대상은 의무에 대한 추상적 관심에 의해서보다는 애착에 대한 고려에 의해, 존경보다는 배려에 의해, 권리보다는 책임에 의해 동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 신체성이 갖는 함의에 대한 도덕적 성찰은 불평등, 의존성과 상호의존성, 특수성, 사회적 자리와 역사적 공동체 같은 것들이 인간 사회생활의 영속적인 모습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준다. 또한 그러한 성찰은 오로지 평등, 자율성, 보편성, 고립된 개인들, 이상적 공동체 혹은 보편적 인간의 조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론들이 적절하게 언급할 수 없는 윤리적 문제

34) 웰스키(1992)는 페미니즘과 모더니티에 대해 이렇게 고찰한다. 여성의 과거에 대한 페미니즘적인 재건과정에서 본다면 모더니티의 논리는 여성의 관심사에 명백히 적대적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이블린 폭스 켈러). 계몽을 부정적인 유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번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모더니티를 본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라며 비난할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낭만주의 담론이 모더니티를 신봉하는 거울의 이미지로 등장한다(수잔 그리핀, 크리스테바). 비판적인 역사의 거부에 바탕을 둔 이 향수적 반모더니즘이 이번에는 사회변화의 해방적 차원을 거부하는 비평을 개시한다(조안 스콧, 크리스틴 부시 글룩스만, 낸시 프레이저, 앤지 맥로비). 이런 외형적인 반론들은 현대의 발달이 지닌 애매한 성격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여성의 관심사와 관련된 특별한 현대적 이념이나 제도들의 가치를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웰스키는 또한 페미니즘을 단지 포스트모던 시대에 국한된 하나의 전략으로 읽는 것을 경계하면서, 페미니즘의 실체는 합리주의, 주체, 역사 등의 죽음을 고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런 개념들이 젠더 정치학의 관심사나 갈등과 관련하여 달리 생각되어야 함을 나타낸다고 본다. 리타 웰스키(1992),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모더니티 비판」,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새로운 문화 정치학을 위하여』, 이소영·정정호 공편(서울: 한신문화사, 1992).

들을 제기한다.³⁵⁾

페미니스트 윤리학의 이러한 통찰은 철학 전통에서 그동안 은폐되거나 주변화되어왔던 여성의 경험에 대한 재해석 및 복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원자적 개인주의가 철학적 상상력을 그토록 강력하게 장악해 온 것에 경악과 실망을 표현한다. 이 견해를 수용하면 신체적 의존과 심리적 의존의 현실을 부인하거나 적어도 철학적으로 봉쇄한다. [우리는] 유아기와 아동기 그리고 노후에 허약해지고 쇠약해지는 시기에 타인에게 의존하며 또한 정서적 유지와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지적인 자극과 풍요를 위해서 타인에게 평생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인간의 상호연관성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모성적 보살핌과 여성에게 관습적으로 기대되는 정서적 노동을 여성 혐오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서 해석한다(Baier, 1987b; Benhabib, 1987; Code, 1987b; Flax, 1983; Held, 1987a, 1987b, 1993). 문화적으로 코드화된 여성성의 역할과 많은 여성들의 관심과 기여는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에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³⁶⁾

이처럼 철학의 주요 전통들은 여성적인 것으로 상징화된 행위성의 형태들을 무시하거나 훼손해왔다. 그리고 젠더에 토대를 둔 지배와 종속이 여성의 행위성을 제한하고 왜곡한다. 그렇지만 여성의 행위성은 여성의 해방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성주의 철학자들은 이 쟁점에 우선성을 두었다. 도덕적 행위성에 대한 여성주의 이론의 선차적 과업은 명백하다. 여성이 식민화된 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여성이 자신의 종속에 협조하지 않고 보살핌의 가치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성이 자신들의 자기-지각을 왜곡시키고 그리하여 삶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여성성의 이중 곤경을 분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여성주의 학자들은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흥미롭게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전략들을 사용해왔다 (메이어스, 2000). 메이어스(Diana Meyers)에 따르면 첫째, 어머니면서 보살피는 자

35) 엘리슨 재거, 「21세기를 향한 페미니스트 윤리학」, 『최근 여성학의 쟁점과 페미니스트 윤리학』(이대 아시아여성학센터, 1996). 이 글은 재거가 1996년 11월 2일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의 초청으로 방한해서 강연한 원고로, 최근 여성학의 쟁점과 여성주의 윤리학의 흐름이 잘 정리되어 있다.

36) 다이애나 메이어스, 「행위성」, 엘리슨 M. 재거·아이리스 마리온 영 편, 『여성주의 철학 2』, 한국여성철학회 옮김(서광사, 2005), 71쪽. 여기서 다루어지는 메이어스의 논의는 이 글을 참조했다.

라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과 연관된 경험을 [들여다] 보자는 것으로 이 전략은 소위 여성적 경험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함으로써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둘째, 여성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주변화와 여성이 작업장에서, 집에서, 사회화 과정에서 취약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에 대해 더욱 초점을 둔다. 이 전략은 여성이 비판적 관점을 획득하고 그들에 대한 학대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

그녀는 이 두 접근법은 비록 구별되기는 하나 일정한 가정을 공유한다고 본다. 두 전략 모두 자아를 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대안적인 담론 공동체를 확립하려고 애쓴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전략들은 여성주의의 도덕적 행위성의 문제를 상당히 다른 방법 안에 틀짓는다. 하나의 전략은 도덕적 행위성에 대해 보살핌에 기반한 설명³⁷⁾을 산출한다. 또 다른 하나는 도덕적 행위성에 대해 반대되는 설명을 산출한다.

보살핌에 기반한 도덕적 행위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설명은 문화적으로 코드화

37) 보살핌 윤리와 관련된 논쟁은 여성주의 철학 영역에서 가히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낸시 초도로우의 이론을 발전시킨 캐롤 길리건의 보살핌 윤리로부터 촉발되었는데 그녀의 제안과 관점은 문화 페미니스트 혹은 성별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길리건은 남성은 분리와 자율을 강조하게 되면서 정의, 공평함, 권리를 강조하는 도덕적 추론의 스타일을 발전시키게 되는 반면 여성은 연결과 관계를 강조하게 되면서 욕망, 욕구 및 특정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역설하는 도덕적 추론의 스타일을 발전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단지 다른 두 가지 도덕이 존재하며 보호와 정의의 언어를 균등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즉 도덕적으로 양성적인 사람이 모범적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길리건은 이상적으로 도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결국 정의의 윤리보다 돌봄의 윤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암시하면서 많은 반박들에 휩싸이게 된다. Scott(1988)은 길리건이 고정적인 차이를 강조함으로써(길리건의 경우에는 성차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성이나 도덕적 추론에 관해서 더욱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 자료를 단순화함으로써) 자기들이 반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종류의 생각에 도리어 공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Scott은 이항 대립이 갖는 고정적이고도 영속적인 성격을 거부하고, 성차의 조건을 진정으로 역사화하고 해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페미니즘의 역사가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바를 이론화하고, 젠더를 분석 카테고리로서 전개시켜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다. Joan Wallach Scott,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길리건의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캐롤 길리건, 『다른 목소리로』, 허란주 옮김(동녘, 1997), 린 미켈 브라운·캐롤 길리건, 『교차로에서의 만남: 여성 심리와 여아 발달』, 김아영 옮김(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캐롤 길리건, 『기쁨의 탄생: 새로운 사랑의 지형학』, 박상은 옮김(벗살무늬, 2004). 정신분석 페미니즘과 성별 페미니즘 전반에 대한 정리 및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로즈마리 톱, 「정신분석 페미니즘과 성별 페미니즘」, 『페미니즘 사상-종합적 접근』, 이소영 옮김(서울: 한신문화사, 2000).

된 여성성의 활동과 경험을 되찾고 재평가하려는 신념 안에서 출발했으나 이런 설명이 요청하는 능력은 모성적 실천과 여타의 친밀한 관계성으로부터 도출해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적용된다(벤하비브, 러딕, 트론토)³⁸. 더욱이 새로이 부활한 여성주의적 보살핌은 여성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정체성 안에 침몰시키지 않으며 여성의 삶을 대리만족으로 전환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여성의 자기 성취를 차단하지 않는다. 즉 보살핌의 윤리 혹은 더 좋게는 특정한 보살핌 주제들을 통합시키는 윤리가 여성주의 윤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합의가 커지고 있다(러딕, 매닝, 헬드, 트론토, 키테이).³⁹ 하지만 타인들과 조절하고 경합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기존 관계성들의 유지를 선호하는 보살핌의 가정이 사회적 비판을 빗나가게 하고 희석시키며 대항의 정치학을 흐린다고 논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론도 여전히 근거가 있다. 이러한 염려의 견지에서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자아와 도덕적 행위성에 대한 대안적 모형을 옹호한다.

대항적인(oppositional) 도덕적 행위성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온 유물론적 개념(사사(私事)화된 '여성' 노동은 무시, 경멸-하트삭, 재거, 퍼거슨)과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나온 담론적 개념들(개인을 정의할 때 상징체계의 역할 강조-스콧, 버틀러, 무페)로 구성된다. 대항적인 도덕적 행위성에 대한 논의에서 공통 주제는 사회적 힘들의 영향력이 심원하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서는 여성들이 자신들을 구성하는 사회적 힘들에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필수적이다. 그들은 사회적 힘들의 일원성을 부인하고 사회적 힘들의 복수성이 펼치는 유익한 상호작용에 호소하면서 젠더 정권(gender regimes)을 체화하는 사회적 실

38) 특히, 벤하비브는 도덕적 자아 개념이 분리되고(disembedded) 탈육체화된(disembodied) 존재로 이해되는 남성의 경험을 반영한다고 비판하면서 보편적 타자(형식적 평등 규범)와 구체적 타자(공정과 보완적 상호관계 규범)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Seyla Benhabib, "The Generalized and the Concrete Other," *Feminism as Critique: On the Politics of Gender*(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39)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키테이는 독립(independent)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필연적 존재조건으로 상호의존을 이야기한다. 또한 "dependency worker"라는 개념을 통해 돌봄 노동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한다. Eva Feder Kittay, *Lover'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New York: Routledge, 1999). 이 책에 대한 비평으로는 다음을 보라. Sara Ruddick, "An Appreciation of Lover's Labor," in *Hypatia* vol. 17, no. 3 (Summer 2002). 이후 키테이와 페더는 다음 책을 통해 의존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이해를 발전시키면서, 의존성을 재평가하기 위한 논의를 시도했다. Eva Feder Kittay & Ellen K. Feder(ed), *The subject of care: feminist perspectives on dependency*,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천들과 담론들은 비록 헤게모니적이긴 하지만 전체화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자아에 대한 이러한 견해로부터 추론되는 중요한 점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서 인종, 계급, 종족, 나이, 성적 지향 등등의 역할에 대한 민감성이다.

메이어스는 여성이 행위자의 권력을 주장하고 도덕적 행위자로서 인정을 획득하고 있는 바로 그 때에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이 자아와 행위성의 해소를 떠벌리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오히려 대항적인 도덕적 행위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설명은 여성으로 하여금 비판과 권한 증진에 대한 여성주의 정치학을 입안할 수 있게 해주는 정서적, 지성적, 담론적, 조직적 능력을 목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그동안 폄하되고 비가시화 되어왔던 여성적 경험의 재사유와 젠더 이분법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여성성이라는 이중의 끈경을 헤쳐 나가면서 좀더 적극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2. 새로운 자아를 위하여, '성찰성'과 '상호주관성'⁴⁰⁾

전통적 주체와 도덕적 행위자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재구성되면서 정신분석학의 영역에서도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새로운 주체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성 주체성의 재정의에 주목하는 브라이도티(1994)는 다양한 페미니즘 기획들에 관심을 갖는다. 그중에서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의 인식들을 보자. 제인 플렉스와 제시카 벤자민 같은 몇몇 이론가들은 모델로서 위니콧의 대상관계이론에 눈길을 돌린다. 벤자민은 자아와 타자가 풀 길 없이 뒤엉킨 채 관련되어 있으며 내가 가장 심오한 자아감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타자와 함께 하는 속에서라고 주장한다. 비슷한 계열을 따라 플렉스는 주체성 구성을 허용하는 것은 바로 상호적이며 호혜적인 상호주체적인 연결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제시카 벤자민(Jessica Benjamin)에 좀더 주목하고자 한다. 그녀는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스트로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 문제를 연구했다. 그녀는 대상관계이론을 계승하고 초도로우의 연구를 확장하면서 부모-자식 관계라는 구조적 틀

40) 이 글에서는 intersubjectivity를 맥락에 따라 '상호주체성' 혹은 '상호주관성'으로 번역한다. 벤자민은 '(상호)주체성' 개념에, 앞으로 논의되는 와이어는 '(상호)주관성'의 맥락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들은 상호인정과 상호의존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에서 벗어나 유아와 양육자의 관계에 주장과 인정이라는 변수를 대입시킨다. 자신의 독립을 인정해주는 양육자에 대한 의존은 유아로 하여금 절대적인 지배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게 한다. 자율성과 인정에 대한 (두가지 상반되는) 필요는 아주 이상적으로 긴장을 유지시키며 사회적인 경험에서 타협을 이루게 한다. 이러한 이론적인 주장은 차별화와 강한 자아의 경계선이 건강한 정신 발달의 목표로 여겨지던 좀더 전통적인 입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⁴¹⁾

벤자민은 여성 욕망이 잘못된 이분법적 구분에 의해서 분열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며, 여성 욕망은 타자 속으로 자아가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는 속에서, 안과 밖을 연결하는 안-사이(in-between) 공간으로 개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체현의 젠더화됨을 강조하는 그녀는 안-사이 공간들을 강조하면서 신체 안/밖의 구분을 붕괴해 버린다. 그래서 욕망을 변증법적 대립이라는 살인적인 논리에 따라 개념화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그녀는 남근에 의한 중개를 상호연결성과 행동·교섭 능력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벤자민이 옹호하는 “이행공간”은 신체의 공간적 표면들 사이의 거리와 근접성 둘 다를 표시하는 접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경계를 형성하면서도 끝없는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그 무엇.” 그것은 타자수용 공간일 뿐만 아니라 타자성이 그렇게 인식되는 조건인 수용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주체의 존재론적 구조에 있는 그 무엇은 타자의 현존과 관련된다(브라이도티, 1994).⁴²⁾

그런데 엘리슨 와이어(Allison Weir, 1996)는 관계 이론을 계승한 벤자민에 대해 비판적이다. 와이어는 벤자민이 자율성을 사회 참여 능력이라기보다 부정적인 의미의 자기주장과 분리로 정의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한 벤자민의 상호주체성 이론이 늘 주체들 간의 관계로써 인식되는 것을 비판하는데, 그녀에게 주체성이란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객관화, 추상화, 분리, 대상화를 통한 (일차적 감정 경험이 아닌) 인식적 성취이기 때문이다.

와이어는 자아정체성의 이상이 너무나 종종 타자와의 연결에 대한 방어를 은폐해왔음을 주장해온 관계 페미니즘(relational feminism)과 자아정체성 개념을 비동

41) 엘리자베스 라이트 편,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박찬부·정정호 외 옮김(서울: 한신문화사, 1997), 34-5쪽. 이러한 벤자민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Jessica Benjamin, *The Bonds of Love*(New York: Pantheon Books, 1988).

42)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책, 308-09쪽.

일성과 차이의 배제논리에 기반한 체계를 생산하는 의미체계 용법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탈근대, 탈구조주의 페미니즘(postmodern and poststructuralist feminism)에 대한 비평⁴³⁾을 토대로 개인화, 행위성, 자율성에 관한 새로운 정체성 모델의 필요를 주장한다.

와이어는 개인들이 각인되고, 체화되고, 지역화되고, 구성되고, 파편화된 것으로 그리고 권력, 억압, 착취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확신과 충돌하지 않는 자아정체성과 자율성 이해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학습하고 변화하고 더 나은 세계와 우리 자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행위자(actors)로써 우리 스스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옹호하는 자아정체성(self-identity) 개념은 능동적이고 상대적으로 밀착된 사회참여자(participant)로써 스스로를 경험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자아정체성에 대한 본질은 “그/그녀 자신과 관련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타자와 연결할 수 있는, 자기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다.” 그녀가 제안하는 이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자아와 타자들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능력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두 가지 방향을 보여준다. 그것은 자아정체성의 핵심 구성요소로써 성찰성(reflexivity)⁴⁴⁾과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다. 성찰성은 나 자신

43) 첫째, 초도로우와 같은 관계이론가들은 의미부여 정체성에 대한 고려를 남겨둔 채 자아정체성과 타자와의 동일시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그들은 자아정체성과 타자와의 동일시를 영원한 대립에 갇힌 것으로 혹은 하나로 합쳐지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어 안에서 의미부여의 정체성을 통한 중재의 개념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탈구조주의 이론가들은 타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통한 중재의 개념을 남겨둔 채 자아정체성과 의미부여 정체성 사이의 구조적 일치관계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그들은 전체화하는 억압적 정체성의 논리 혹은 구조 속에 갇혀버린 존재로 자아정체성과 언어에서의 의미부여 정체성을 본다. 그 효과는 각각 구체적인 관계 혹은 언어체계로부터 의미의 상호주관적 구성, 사회적 이해 경험의 참여자로서 개인의 개념에 대한 추상화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Allison Weir, *sacrificial logics: feminist theory and the critique of identity*(New York: Routledge, 1996). 이 글에서 다루어지는 와이어의 논의는 이 책을 참조하였다.

44) 이수자(2000) 또한 페미니즘에서 근대를 극복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은 성찰성을 획득해내는 것이라고 본다. 그녀에 따르면, 성찰성은 또 다른 언어로는 자아의 성찰적 기획을 말한다. 따라서 여성의 자아정체성이 자신의 기획에 따라, 각자의 다양한 욕망의 어법에 따라 정립될 때 진정으로 각자의 성찰성이 이룩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근대성 분석과 관련하여 여성의 문화론이 세부적으로 짚어내야 할 것은, 근대화가 추진되던 70년대 한국 여성들이 구조화된 근대성의 틀 속에서 수동적인 타자로서 끼어있었다면 이들이 과연 90년대 이후에는 보다 주체적인 존재로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거대담론의 쇠퇴 내지 거부에 따른 후속 프로젝트로서 일상에 관한 패러다임이 새로이 부상하고 있다. 여기서 화두가 되는 것은 미세하게 엮여있는 권력과 욕망의 문제를 어떻게 이론화하느냐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과 타자에 대한 관계들의 의미와 관련된다. 나는 내가 누구인가 혹은 내가 되고자 하는 바와 직면한다. 나는 나를 위한 의미 존재에 투자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미는 사회적 의미들 속에 나의 참여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주관성은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된다. 자아 개념은 상호주관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구성되는, 공유된 개념들의 맥락에서만 항상 발생하는 어떤 것이다. 유사하게도, 이러한 특정한 개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공동체들, 제도들, 나의 상호작용을 조직화하는 의미체계 속에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세계, 자신, 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해석함으로써 구성된다. 나의 정체성은 의미의 상호주관적 맥락에 의해서 자신을 정체화하고, 정체화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다.

나 자신의 의미(자신의 정체성)를 문제화하고 정의하는 능력과 책임성은 근대 주체들에게 짐이자 동시에 특권이다. 더 이상 사회체계에서 고정된 지위로 정의되지 않는 한 나는 나의 실천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가 될 것이라는 결정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또한 적어도 자유라는 규범적 이상을 열망한다). 이러한 자유의 이면은 자기정의(self-defining)의 부담이다: 모든 행동, 모든 지위는 질문에 열려있다. 이러한 자유와 책임성은 전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불가피하다. 동시에 자기 정의에 대해 증가하는 요구가 정체성 특성의 증가하는 생산과 차이, 즉 가능한 역할들과 가치들, 애착과 교우, 신뢰와 헌신들, 필요와 욕망, 표현법과 양식이 됨에 따라서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들(가족과 관계 역동들, 무의식적 과정들, 집단적 정체성들, 경제적, 사회적, 언어적 체계들, 권력과 억압의 체계들...)을 만드는 구성적 영향들에 대한 성찰과 계몽을 위한 점점 더 많은 작업틀(frameworks)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자아정체성의 핵심은 다양하고 때론 갈등하는 정체성들을 중재, 유지하며, 이해하고, 비판하고, 갈등하는 다양한 정체성들에 대한 해석을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 삶의 양가성과 복잡성의 모든 것을 중재하고 그것들과 살아갈 수 있는 능

서 양성관계가 포함하고 있는 분석적·이론적 주장이 메타포 및 재현 형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상을 해석해내는 작업의 과정에서 여성주체의 위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수자는 리타 펠스키의 '새로운 문화사'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이 새로운 문화사의 중심에는 감성과 유연성, 그리고 친밀성 등이 자리 잡을 것이라 전망한다. 이는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제 정신과 머리를 강조하는 초월적 주체의 이상을 떠나서 몸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적 주체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자, 「여성주의적 방식으로 근대 넘어 서기-유연성과 감성의 문화를 향해」, 『여/성이론』 2호(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00), 52-3 쪽.

력은 이러한 정체성 작업(identity work)에 적합하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중재는 차이와 비동일성(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관심)을 억압하거나 배제하는 정체성의 비위치성이 아니다. 오히려 차이들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며 성찰적으로, 실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성취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타자와의 연결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의존과 독립, 상호주체성과 자율성에 대한 인식적 정서적 수용을 토대로 한다. 이는 나의 의미가 타자의 의미와 다를 때, 나의 정체성이 구체적 혹은 보편적 “우리(We)”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계될 때 인정의 능력을 강조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문제화하고 정의하기 위한 개인 능력의 핵심은 자기지, 자기 실현, 자기지침을 위한 인식적이고 실천적인 능력들이다. 즉 학습, 비판, 조직화를 위한 인식적 능력들과 표현, 참여, 연루, 유동성을 위한 실천적 능력들과 연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와이어는 사회적 언어적 규범들의 학습을 요구하는 자아정체성의 발전이 자신의 특수성의 표현 또는 현실화와 규범비판을 위한 능력의 개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표현과 비판의 실천들을 통해서 사회적 언어적 규범들이 변화하고 개방되며 다양화할 수 있다). 즉, 자아정체성의 발전은 내가 누구이며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다양한 정체성들을 의미 있는 내러티브 또는 조합으로 조직화하는 인식적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나에 대한 문제들, 나의 의미를 정의하고 연루하며 밝힐 수 있는 실천적 존재론적 능력을 요구한다.

그녀에 따르면, 명백한 대립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투쟁이 자아정체성의 지속적인 구성을 위해 핵심적인 것이다. 자아정체성의 발전은 상호주관적인 관계 내에서 상호이해를 위한 능력의 개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관계들 자체로부터 관계들을 중재하는 상호주관적 의미들까지 개념적으로 추상화할 수 있어야만 함을 의미한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놓자면, **자아정체성(identity of the self)**의 문제는 **의미부여 정체성(identity of meaning)**의 문제, **타자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 with)** 혹은 **관계성(relationships to)**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추상화에 대한 와이어의 이러한 견해에서 보자면 추상화를 적으로 인식하는 공통 경향들(추상화와 분리를 지배와 억압과 관련)에는 모순의 위험이 따른다. 맥락

들로부터 개인의 어떤 추상화도 거부하고 맥락들에 대한 성찰을 위한 개인의 능력의 어떤 가정을 거부한다면 그러한 맥락들을 비판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행위자(agents)의 어떠한 능력도 효과적으로 거부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추상화를 거부함으로써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특정한 관계로부터, 언어적 체계와 사회적 규범들로부터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관계들, 체계들, 규범들을 비판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망각한다. 그러한 도전은 각인을 위한 추상을 거부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추상, 분리, 비판을 위한 능력을 이론화하는 데에 있다.⁴⁵⁾ 이러한 맥락에서 와이어는 하버마스 담론이론을 비판적으로 전유했다. 그녀에게 정체성 형성은 항상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어진 의미를 협의하고 해석하는, 심리적, 사회적, 상징적으로 중재된 과정이다. 와이어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와이어는 정체성 구성의 정치적인 특수성들과 그것들이 하버마스의 규범에 대한 설명을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들을 숙고했다. 와이어는 개체, 행위성(agency), 자율성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뿐만 아니라 다루기 힘들어 보이는 차이에 대한 토론이 지적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생각을 재개념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요구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행위성에 대한 유용한 설명은 세계를 배우고, 변화시키며,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행위자로서 인간에 대한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정치적 언어적 힘들에 묻혀 있고, 체화되고, 지역화되고, 구성되고, 단편화되고, 연약하며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그녀는 근대적인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다중적인 정체성들을 화해시키고, 서로 갈등하는 정체성에 대한 해석들을 이해하고 비판하며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차이와 비동일성(nonidentity)을 배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갈등을 화해시키는 능력은 차이를 성찰을 통해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아(ego)를 요구하는데, 즉 타자와의 연관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면서도 자율적인 능력이 있는, 타자에 의존하면서도 또한 타자로부터 독립적인 자로서 스스로를 인지하는 자아를 말한다.⁴⁶⁾

45) 이현재(2005)는 와이어의 벤자민에 대한 비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녀는 벤자민이 말하는 사랑의 주체가 갖는 자율성, 즉 자기주장과 타자인정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와이어가 말한 “사회적 참여능력”과 구조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사랑의 주체는 자신과 타자가 서로 다른 존재이면서도 함께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사랑이라는 관계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현재, 「인간, 여성 그리고 사랑의 정체성: 제스카 벤자민의 『사랑의 사슬』에 나타난 사랑의 윤리를 중심으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학술자료, 2005). 연구자는 와이어의 비판과 관점에 동의하나, 벤자민이 이론화하고 있는 상호인정과 긴장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주변화 되고 가치절하 되면서 타자화 되어 왔던 '의존성' 개념을 여성의 영역(으로 의미화되는)인 감정과 친밀성, 사랑을 통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의존성이 여성성과 결부되면서 타자화되는 과정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끊임없는 딜레마와 자기모순에 봉착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여성 해방의 물결과 사회제도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20~30대 비혼 여성들이 여성성의 이중 곤경을 돌파하고, 모순과 분열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자율성과 성찰성을 획득할 수 있는 이론적 모색을 절실히 요청한다. 따라서 전통 철학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의 도전과 반격, 상호의존성과 타자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 벤자민이 제안하는 상호주체성과 이행공간의 개념, 와이어가 제안하는 상호주관성과 자율성 개념 등은 이러한 모색들을 풍부하게 해주리라 생각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20~30대 비혼 여성들이 '의존(성)'과 관련해서 경험하는 모순과 딜레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체성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6) 조안나 미헌, 「의사소통적 윤리」, 앨리슨 M. 재거·아이리스 마리온 영 편, 앞의 책(2권), 131-32쪽. 이 글은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이 여성주의자들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유되어 있는지를 개괄하고 있다.

Ⅲ. 인터뷰 분석

A. 현대 사회의 감정/친밀성과 젠더화된 의존성

1. 감정억압의 사회적 구조

우리 사회에서 울고, 감정을 말하고, 두려움과 열정을 드러내는 남자들은 대부분 약하고, 신경질적이고, 여성스럽고, 감정적인 존재라고 경멸당한다. 감정을 억제 하라는 남성의 규범은 성인의 행동에 대한 공식적인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남자 들의 방식이 가정에서는 그리 많은 신망을 얻지 못할지는 모르나 그것은 남자들의 방식이 공적 영역에서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남자들의 방식은 남성성의 필수 조건이고 정신 건강의 보편적인 기준이다(타브리스, 1992).

보편적인 기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른 한편으로 억압되거나 배제되는 영역 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나약하고, 신경질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묘사되는 특성은 곧 '감정=여성(성)'의 등식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타자화 된다. 그렇다면, 타자들이 경험하는 감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현대 사회에서 친밀성, 의존성에 대한 욕구는 현저하게 증가되는 반면 여성을 '감 정적인 존재'로 폄하하는 시각은 여전히 지배적이다. '감정적인 존재'로 끊임없이 재현되거나 (일방적으로) 기대 혹은 폄하되는 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감정 구조를 갖게 된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30대 비혼 여성으로서 여성 해방의 사회적 물 결 속에서 당당한 주체성을 요구받는 세대다. 우리 시대 젊은 여성들은 공적 영역 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성화된 여성'이 되어야 하며, 자신 안의 감정에 쉽게 휩 쓸리는 '히스테릭'하고 '번덕스럽고', '위협스러운' 여성이 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사회는 구조적으로 여성들에게 '감정'의 역할을 부여하 거나 강제하지만 여성들은 오히려 감정과 자신 안의 의존적 친밀성의 욕구를 통제 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감정의 역할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제 된 감정 노동이며,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 안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부정적 감정

(화, 분노, 격노, 미움 등)⁴⁷⁾은 다시 자신에게 되돌릴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정신 건강의 보편적인 기준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그 기준에 부합하려면 자신 안의 감정이란 부분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감정과 친밀성에 대한 양가적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감정과 친밀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타자화 혹은 젠더화 되는지 20~30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감정적'이라는 말의 의미들⁴⁸⁾

우리 사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감정과 친밀성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듯하다. 불확실성의 세계, '위험 사회', 성별분리화된 산업사회에서, 무한한 자유와 선택지들 앞에서 개인은 자신의 최종 정박지로 '사랑'을 선택하고 있으며(백·백 계륜사임, 1990), 친밀성의 구조적 변동은 사적 영역을 민주화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기든스, 1992)마저 제출되고 있다. 서점에는 자기지침서와 심리치유서, 부정적인 감정(화, 분노)을 다루고 조절하는 법, 남녀관계/사랑을 잘 하는 법 등과 관련한 서적들이 절찬리에 유통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친밀성의 욕구, '사적'으로 내밀한 부분들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도화된 상담의 도움 또한 받고 있다.⁴⁹⁾ 그럼에도 아직은

47) "여성들은 오랫동안 분노를 표출하는 데 위축되어 왔다. 흔들리는 배를 진정시키고, 세상 사람을 회유하고, 보호하고, 기쁘게 해 주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남성에게 화를 내는 여성을 이상스럽게 생각해왔으며 사회적으로 남녀평등의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때인 요즘에도 '화를 잘 내는 여성'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리엇 골드러너, 『무엇이 여성을 분노하게 하는가』, 김태련·이명선 옮김(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15-6쪽.

48) "사실상 정서나 감정은 남녀 모두 경험하는 심리적인 상태이고,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정서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정적'이라고 할 때는 남성적이라고 생각되는 분노나 공격성은 제외시키고 여성과 관련된 심리적인 불안정한 상태와 연결시키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들었다." 조혜자, 『여성, 존재인가 과정인가: 여성심리 이론과 실제』(서울: 철학과현실사, 2002), 206쪽. 조혜자는 최근 심리학에서 정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정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여태껏 부정적으로 다루어진 여성의 감정적인 측면 또는 감수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본다. 조혜자는 정서의 성차를 다룬 연구들을 이 책 10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49) 인터뷰 참여자들 중에서도 절반 가량이 상담 영역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다.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이난영, 강미정), 심리학을 공부하는 경우(김희진), 상담가를 주변의 지인으로 둔 경우(서지예)가 이에 해당하며, 상담을 '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사회구조적으로 '감정'과 관련한 영역은 여성의 '고유한' 영역이며, 여성성과 결부되어 미숙하거나 유약한 것으로 폄하되기 십상이다. 특히 공적 영역인 직장과 일터에서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솔직하게' 반응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 '남성'과는 대립되는 대단한 취약점으로 작동한다.⁵⁰⁾

그래서 사장이 나보고도 하는 말이 '너는 솔직한게 특징인거 같은데 그게 걱정된다. 영업하는데 솔직한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이야기를 초반에 했었지. (중략) 응. 미성숙하다고 치부되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이미 그런 식으로 나한테 '그렇게 하지마라.' 어떻게 보면 솔직하기 때문에 '사람들 관계에서 좀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냐'라는 이야기를 엄마에게서 듣지. 우리 엄마에게도 들었던 거 같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듣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고 할까. 그런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유연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내가 강점으로 키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난영, 30세)

자기 감정에 대한 '솔직함'은 곧 '미성숙함'을 의미하며, 이는 남성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적 영역에서 성공과 출세로 가는 길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인이 된다. 또한 관계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난영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대신 자신의 다른 강점을 키우고자 한다. 정세나에게 '감정적인' 특성은 아버지로부터 본받고 싶은 긍정적 특성(사람들에게 잘하고, 리더쉽이 뛰어난)을 제외한 부정적인 특성중의 대표적인 것이다. 세나에게 '감정적'의 의미는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감정만 막 표출하는 성격'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주로 '분노하고 격노하는 감정'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나는 이런 성격을 '솔직히 고치고 싶고 내 안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제가 싫어했던 아버지의 성격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중략) 그렇지만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감정만 막 표출하는 성격은 나도 솔직히 고치고 싶고 내 안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죠. (중략)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솔직히 본받고 싶지 않고 내 안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데 그렇지만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사람한테 잘하고 인간관계 같은거 폭넓게 사

50)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경제구조의 서비스화로 인해 여성이 지닌 특성이라 일컬어지는 돌봄, 섬세함, 부드러움 등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에서 이러한 '여성적 가치'가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감정노동'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이다.

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친구나 사람들 이끌어가는 리더쉽 같은 것들은 제가 본받고 싶은 점 중에 하나예요 아빠한테서. (정세나, 25세)

이난영에게 감정은 '솔직함'과 '미성숙', '유연하지 못한 태도'와 연결되고, 정세나에게는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분출되는 '화와 분노, 격노'로 연결된다. 이에 비해 임수정과 윤다연은 감정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갖는다. 자신이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나, '한편으로는 되게 이성적이고, 좀 냉철하고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싶긴 한데' 실제로는 '굉장히 감정적'이어서 감정에 대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충실'하게 된다. 수정은 행복감과 자괴감의 감정폭이 굉장히 큰데 자괴감은 자해로 연결되기도 한다. 다연 또한 자신의 감정에 '왜곡된 방식으로 충실'하고, '표현이 되긴 하는데 사실 잘 표현을 못'한다. 왜냐하면 다연은 분노와 화의 감정을 '아무 맥락이 없는' 다른 곳에서 터뜨린다거나, 자신의 몸이 아픈 방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분노나 화는 많은 경우 경멸 혹은 위협의 의미를 갖는다. 여성이 그러한 '부정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보다는 '자해'나 '아픈 몸'이라는 간접적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인) 방식의 표출이 우리 사회나 여성들 모두에게 더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다.

나는 내가 되게 감정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해. 감정에 휘둘리고... (어떻게 느껴져? 그런 자신이?) (웃음) 그것도 한심해. 한심한데 한편으로는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어. (중략)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후회는 없는데 되게 감정적인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정말 어떡냐면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정말 창밖에 나뭇잎에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햇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너무 예뻐 보여서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되게 웃기지? 너무 예뻐서 그런 느낌.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뭐 죽고 싶거나 막 그럴 때는 정말 완전히 땅을 파고들어가고 싶은데 자해를 할 때도 약간 그럴 때 보면 최근엔 아니지만 옛날엔 그랬고 그런 부분 내가 내 감정을 못 이겨서 하는 부분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되게 감정적인 인간인데 그게 좋아보이진 않지만, 후회하지 않는 방식이기도 하다란 생각이 들어 감정적이라는게. (임수정, 27세)

감정? 난 굉장히 감정적이거든? 나는 그게 되게 소중한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이성적이고 싶지. 좀 냉철하고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싶긴 한데, 실제로 나

는 굉장히 감정적이야. 감정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왜곡된 방식이긴 하지만 충실해.(음. 니 감정에?) 응. 근데 그게 표현이 나를 어떤 해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충실하다고 말할 수 있나? 어쨌든 표현을 해. 나는. 감정에 대해서. (왜곡된 방식은 어떤 의미?) 그 감정에 만약 분노가 생겼다면 그 분노를 푸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딱 데로 튕겨간다는 얘기지. 튕겨가서 일이 꼬이게 만든다든가. (웃음) 걱정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 걱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딱 방향으로 가서 거기서 팽 터지는데 아무 맥락이 없는 거지. (웃음) 그런 식의 감정... (감정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거나 표현은 되는데, 대개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응. 나만 아는 거지. 도망가는 방식으로... 판데가서. 그러니까 뭐, 나는 요즘은 좀 덜한데 마음이 많이 상하면 아프다니까. 그게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잖아. 쌓이는 방식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표현이 되긴 하는데 사실 잘 표현을 못해. (윤다연, 29세)

임수정에게 부정적인 감정은 조절되거나 통제되지 않는 영역이며, 윤다연은 자신의 방식으로 감정에 충실하지만 직접적인 분노나 화의 대상에게 표현되지 못하면서 관계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힘들다.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에서 김희진의 경우는 예전에 자신을 '감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했다. 여기서 희진에게 '감정적'이란 의미는 '나쁜 표현'이며, '감정을 잘 못 다룬다는' 뜻이다. 즉 '적절하게 자기 분노나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꼭 참다가 한번에 터트린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희진은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오히려 '이성이 좀더(너무) 강한 스타일'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고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성'을 추종하거나 우위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희진은 '열정을 바치고', '무언가에 확 꽂혀서 막 빠져드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철저히 이성으로 무장'했던 희진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된다. 그래서 '남 앞에서 우는걸 못하는' 자신을 '문제'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감정이입'이 너무 잘되는 나머지 영화를 보고도 울게 되는 자신이 '좀 창피하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강한' 사람이 '감정'의 영역을 수용하면서 그녀는 '격동기'를 경험한다. 희진은 감정과 이성의 조화, 균형을 위해 자신에게서 '주체할 수 없이' 터져버린 감정의 영역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난 옛날에 내가 감정적인 사람인줄 알았어. 그러니까 감정적이라는 것은 나쁜 표현, 나쁜 의미잖아. 지금까지는 감정적이라는 건 내가 그만큼 감정을 잘 못다룬다

는 의미였던거 같아.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기 분노나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꼭 참다가 한번에 터트린다는지 그런 식으로. 그걸 공부하면서 알았지. 그래서 나는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내가 감정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아니더라고... (중략) 난 감정을 소홀히 하고 싶진 않지만 어떤 뉘 적어도 공과 사는 확실히 구별하는 편이고 그리고 감정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끔씩 그런 생각도 요즘에 해. 왜 보통 막 어떤게 너~무 좋고 거의 막 심취한 사람들 예술가쪽이나 이런 사람들... 나는 그게 안 되는 것 같거든. 왜냐하면 나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이성적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간 난 타고난 것도 좀 있어 아빠 닮았다고 했잖아 유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중략) 요즘에는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가 문제는 남 앞에서 내가 못 울어요. 우는걸 못해요. 근데 그걸 알기 시작하면서 TV에 누가 나와서 울잖아? 누가 무슨 상황이든 간에 그럼 나도 울어. 무조건 울어. (김희진, 30세)

‘감정이란거 자체는 되게 없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거고. 어찌보면 이성보다 더 앞서는데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요즘에 난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희진은 이러한 변화에 ‘스스로도 놀라워’하며,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본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혹은 ‘(가족으로부터) 혼자 떨어져 사니까 가끔 외롭다고 느껴서 그런가’ 혹은 ‘심리학 공부하면서 감정이란 부분이 많이 취약했었다고 즉, ‘감정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풍부한테 잘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라고 이야기한다.

여성들이 보이는 이러한 감정에 대한 태도와 생각, 가치들의 토대는 감정과 이성을 이분화시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⁵¹⁾ 그리고 감정을 많은 경우 여성들의 특성으로 관련지어 사고하거나 평가하는 가치체계에서 이러한 경향은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작용하기도 한다.

2) 취약성과 두려움으로서의 감정

이성과 감정을 대립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통제되지 않거

51) 최근 감정과 관련한 연구들은 감정과 이성을 위계적으로 이분화하는 사고 방식에 반대한다. 래저너스(1994)는 추론이나 사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 과정에 통합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감정의 논리를 파악하고 그 논리가 작동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것(그들의 목표), 자신이 믿는 것(그들의 가정),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어떻게 감정을 경험하는가, 즉 감정이 일어나는 기초인 심리의 논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리처드 래저너스·버니스 래저너스, 『감정과 이성』, 정영목 옮김(문예출판사, 1997), 281-96쪽 참조.

나 불안정하다고 여겨지는 감정 혹은 일방적인 자기노출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지예의 경우 심리학을 전공했다는 후배로부터 ‘언니는 절대로 다 표현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표현했다고 생각하면서 또 괴로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지예는 자신이 지금까지 ‘감정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후배의 이야기에 혼란을 경험한다. 지예에게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힘든 부분을 자세히 얘기한다는 건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행위로 연결된다. 자신의 힘든 점을 자세히 말하지 않는 친구에 비해 자신은 너무 ‘취약점’을 드러내고 자신만 유독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감정도출도 그렇고 시시콜콜한 내 모든걸 힘든 얘기 하다보면 어떻게 소소한 얘기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취약점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게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물론 그런 모든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고 언니고 선배고 이런 상대지만 그래도 가끔 그런거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로 너무 나만 힘들다고 (중략) 나는 내 취약점을 다 드러내놓고 사나 이런거 있잖아요. (서지예, 34세)

임수정의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화라는 감정은 직접적인 대상에게 표출할 수 없는 감정이다. 수정은 지금까지 ‘직접적인 대상한테 화를 낸 적은 없으며’ 친구에게서 배운 자해를 통해서만 표출이 가능하다. 임수정과 윤다연 둘 다에게 화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표현한다는 것은 이후의 관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나 ‘관계가 깨질’까봐 혹은 모든 것들이 ‘어그러질 것 같’은 두려움을 부여한다.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관계의 단절은 큰 두려움으로 작동한다. 그린스팬(1983)의 말대로 “여성들에게 고립이란 바로 자아 상실을 의미한다.”⁵²⁾

화를 직접적인 대상에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왜 내가 자해하는 법을 OO한테 배웠다고 했잖아. OO가 화를 푸는 방식이 그거였어. 자신을 해하면서 분노나 화

52) 여성주의 심리학이나 여성주의 윤리학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특성을 ‘관계중심성’ 혹은 ‘자아 경계의 유동성’이라고 많이 표현한다. 이러한 특성은 타자수용 공간의 가능성과 동시에 심리적 취약성을 포함한다. 가능성을 살리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자아’ 개념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논의는 II장의 B를 참조하라.

를 표출하는 거야. 실은 그게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거잖아. 자기 자신한테 푸는 거야. 화가 나도 자기 자신한테 푸는거. 근데 내가 그 방식을 배웠고 그게 또 편한 방식인거야. 그리고 그게 되게 웃긴게 하여간 피를 보면 어.. 그게 리액션이야. 어쨌든 내가 나를 해하고 했을 때 피가 흐르는 그게 리액션이야. 뭐 내가 화를 내면 '미안해' 리액션처럼, 피가 흐르면 그게 리액션이야. 그리고 그게 강렬하잖아 피가. 이런 변태같은~~(웃음) 어쨌든 리액션이 오니까 그걸로 일단락이야 그냥. 일단락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화를 내면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해도 아니면 같이 화를 내도 찝찝한건 마찬가지거든?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했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다시 잘 또 옛날처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거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고 오버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자기한테 화를 내면 되게 편하거든? 솔직히? (중략)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응.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네가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야? 이후 전개, 변화, 복귀여부 등등?) 그런 잡다한 두려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화를 냈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나는 모르잖아. (아, 그 사과 자체도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응. 속으로는 이 사람이, '애가 웬일이래'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잖아. (겉으로만 미안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지. 그니까 나는 관계가 깨지는 것 보다는 이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두렵지. (임수정, 27세)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다 어그러질 것 같아. (관계나 모든 상황들이?) 응. (이 감정을 표현하면?) 응. 아니 그렇게 의식을 갖고 한 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아니 내가 이런 말들을 어떻게 다 하겠냐? 그리고 쪽 팔리기도 하고, 나를... 그러니까 평소 때는 말을 잘 하다가도 뭔가 약간... 어떤 감정이 약간 격한 상태가 되면 머리가 하얘져.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되게 그래도 말을 잘 했는데, 어떤 감정 표현을. 직접적인 얘기를 잘 했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상처가 생기잖아. 그런 관계에서 부딪치는 문제들 땀에... 나는 좀 크게 몇 번을 당한거야. 그러니까 피하게 되지. 피하고 그냥 아프고 말지. 나도 모르게. (이걸 터뜨려서 더 큰 상처를 받느니 그냥 나를 아프게 하는 방식, 나한테 되돌리는 방식?)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느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안하게 된다는 거지. 그게 싫었던 거지. 그런 상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싫었던 거지. (윤다연, 29세)

위의 두 사람 임수정과 윤다연은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해서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자해라든가, 회피를 통해 자신에게 방향을 돌리는 방식으로 대처하곤 한다. 또한 많은 여성들의 경우 감정은 타인을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든다

면 일단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의미화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감정과 억압된 감정은 애인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표출하고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짐을 볼 수 있다.

나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야. 나한테는 되게 획기적인 거고, 다른 관계에선 하지 못했던 건데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 사람이랑 있을 때는 내가 맞춰주고 이리거 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하는... (중략) 내가 당신이랑 있어서 처음으로 너무 자유롭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해방감이 들고 테라피스트같다... 이런 애기를 많이 하지. (박상현, 27세)

감정이에요? 일단 음... 내 감정을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불편해 한다면 아닌 것처럼 숨기고 삭히고 절제하는 것들이었고, 제 피해의식인지 몰라도 집에서는 희생을 강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유일하게 표현하고 즐겁다.. 슬프다? 좋다, 싫다? 이런거 복합적으로 유일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은 OO였어요. (중략) 그래서 감정 표현을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살아가면서 정말 OO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강미정, 32세)

박상현과 강미정은 연애 관계를 통해 다른 관계 혹은 가족 안에서 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고 위안을 받는다. 상현에게 연애 공간은 해방과 치유의 공간이며, 미정에게도 자신의 다층적인 감정을 억압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결혼제도와 가족제도 안에서 여성들은 감정적 역할을 통해 타인에 대한 관계노동의 성격을 요구받게 된다. 성별 분업화된 자본주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 유일한 '안식처'로 끊임없이 기대되는 곳이 바로 가족이다. 하지만 '안식처'란 개념은 바깥 세계에서 '일하는' '남성가장'을 위한 것일 때가 대부분이다. 여성들은 '안식처'에서 (시댁식구를 포함한) 가족들을 돌보고 감정노동을 해야 한다.

내가 사귀 남자가 순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귀다 보면 남자들이 결혼 이야기를 먼저 해. 근데 가만히 보면, 애가 나를 볼 때 제일 처음엔 좋아서 사귀지. 그리고 내가 애교가 많으니까 되게 좋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자기 엄마한테, 자기 집한테 잘할까 그런걸 많이 보더라. 다른건 다 안보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 할 수 있는 여자인가 그걸 되게 많이 따지더라. 내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았어. (그 잘한다는 조건이 어떤 거야?) 그러니까 엄마, 부모님한테 대들지 않고 고분고분하고. 내 성격이 사실 어른들한테 막 대들고 그렇진 않잖아. (남현지, 29세)

엄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교나 이런게 없어요. 뭐 여자가 무조건 애교가 있어야 된다는 주의는 아니지만. (정세나, 25세)

여성(어머니, 딸들)에게 요구되는 ('애교'까지 포함한) 감정적 역할을 여성들이 '전담'하지 않을/못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다른 대체물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가족들이 많이 감정표현을 하게 됐어요. 저도 솔직히 집에 가면 별로 안했어요. 그래도 제가 집에서는 가장 그나마 애교도 많은 편이거든요. 개를 딱 붙잡고 '애기야 뽀뽀' 막 대개 닭살 돋는 말을 하거나 콧소리를 내거나 막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둘씩 가족들에게 그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중략)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 가족한테 이런 면도 있구나 아, 강아지 고맙다 (웃음). 새로운 경험이고 저 개를 안 키웠으면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들지만 평생 보지 못했을 광경을 난 지금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매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개에게는 그런 관계나 애교나 사랑표현이 어떻게 가능할까?) 피드백이 안 되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기야 뽀뽀' 했을 때, '언니 저리가!'라고 개가 그러면 화를 내고 싸우겠죠? 다신 안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강아지는 그냥 멍멍멍 쳐다만 보잖아요. 일단 아무리 내가 표현해도 상처가 없으니까. 그니까 제가 강아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느끼는게 가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강아지 이름이 OO인데 'OO아 아빠 오셨네. 아빠 오셔서 좋지?' 그런거. 그만큼 강아지가 없었다면 이런 말 잘하지 못했을 텐데 해보고 싶었던 말을 이제 강아지를 통해서 해보는 거죠. (채진영, 26세)

'딱히 할 말이 없고', '표현을 하지 않는' 채진영씨의 가족들. 진영씨의 아빠는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외할머니를 붙잡고 우시는...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런거 빼고는 없고', 오빠는 '극도로 내가 화를 내게 했을 때'에만 감정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진영씨의 오빠도 결국은 '화내지도 않아요. 난 진짜 아우 이려고 끝내고...'로 반응한다. 그런 진영씨의 가족들에게 감정표현의 새로운 '혁명'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 의해 가능해진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아이 혹은 애완견이 거부당할 가능성이 없는 확실한 사랑의 대상으로 자리잡도록 만든다.⁵³⁾

53) "우리 엄마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지. 사랑이란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애가 얼마나 외롭고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 엄마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아마도 그건 진실일거야. 그 애가 무력하고 연약하게 머물러 있는 한, 적어도 그 애는 너를 모욕하거나 실

3) 거리를 전제한 친밀성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만큼 감정과 친밀함에 대한 욕구도 강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정 영역은 자신의 취약함과 나약함을 전제하며, 타인이 '나한테 기댈 때' 혹은 타인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 부담감 또한 작동한다.

난 좀 나한테 기대는 사람한테 좀 잘하지, 내가 기대고 싶어하긴 하지만 남이 나한테 기댈 때 잘 해주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서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다는 게 부담스러운가...) 몰라.. 아직은 잘 모르는데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거... 그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해. (이난영, 30세)

그니까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인 것도 같아요. 그렇고 그... 부탁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일단 그 부탁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니까 저 사람 부탁이 없으면 안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부탁을 해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최대한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부탁을 하면서 생기는 다른 일이 싫어요. 그 사람에게 뭔가 맞춰줘야 되는 상황? 같이 어딜 가야 되는 상황? 하기 싫은데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괴로움 그런 것들이 되게 있어요. 혼자 하는 걸 더 즐기는 것 같고. (채진영, 26세)

이처럼 관계에서 오는 부담과 책임감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타인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금지이자, 거절에 대한 두려움, 받은만큼 주어야 한다는 신념(혹은 상대가 당연히 요구할 것이라는 믿음) 등으로 인해 늘상 거리감이 전제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를 혹은 어떠한 관계를 '책임진다'는 생각이

망시키지는 않을 거란다.”(1976:20-1). 올리히 벡·엘리자베트 벡-게른샤임, 앞의 책, 140-41쪽. 오리아나 팔라치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 재인용. 벡-게른샤임에 따르면, 아이와 결속을 맺기 시작하는 것이 아주 매력적인 이유는 그 관계가 다른 성인과의 관계와 매우 다르다는 점에 있다. 즉 아이는, 적어도 그가 아직 어린 동안만큼은 실망하거나 상처받거나 혹은 버림받을 위험 없이 모든 사랑과 헌신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한국 사회에서도 결혼은 하지 않되, 아이는 키우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가 주는 이러한 '매력'은 현대 사회의 애완 문화와 인형 문화(특히, '진짜' 같은 아기 인형을 '입양'하기도 함)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담스러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사랑과 친밀성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채진영은 몇 년간 한 남자를 '짝사랑만' 해왔다. 진영은 자신의 이상향(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섬세하고 비폭력적임)과도 같은 그 남자에게 고백했다가 '굉장히 좋은 친구 한명을 잃을 수도 있단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그 친구에게 애인이 생기자 우울한 진영은 다른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을 찾고' 있으며 '이번에는 정말 좀 잘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관계 맺고 싶은 '사람이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정세나 또한 짝사랑을 반복하고 상대가 고백을 해올 때쯤엔 이미 마음이 식어버린 상태가 된다. 친밀한 관계, 책임지는 관계에 대한 부담은 이들로 하여금 '짝사랑'에만 머물도록 만든다.

사랑은 일단 그냥 마음이 고요한 상태였으면... 서로 좀 마음이 고요한 상태? 맹물처럼 부담없는... 맹물은 익숙하잖아요. 익숙하고 아무 잡냄새 없고. (웃음) 그냥 편안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항상 담아두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법정 스님이 책에 쓰신 말 중에 '사랑은 상상의 날개를 편승한 찬란한 오해다'라는 그 말이 너무 와 닿았거든요. 아직도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제 나름의 정의를 펼치는 거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채진영, 26세)

물론 나중에 결혼해서는 한없이 잘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죠. 그런데 정말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잘해주면 '아 이 사람은 너무 편해. 그러니까 애는 막 대해도 돼. 애는 이미 내거다.' 물건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남자나 새로운 여성에 끌리게 되고 뭔가 이제 새롭고 여자들은 웬지 자기한테 차갑게 대하고 막 냉정한 연인관계일 때 그런 거 같아요. 솔직히 결혼해서 남편이 갑자기 차갑게 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근데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관계 속에서 제가 솔직히 짝사랑만 계속 해왔다고, 좋아하는 감정이 들면 계속 나 혼자 있어요. (중략) 이미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떠나가 있을 때 혹은 이미 처음에 그 사람이 좋았는데 이제 이런 이런 안 좋아하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할 때 (마음이 조금조금씩 정리되거나 멀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들한테 저는 고백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에 그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이 생기고 그 좋아하는 마음도 사라져가는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 혼자 빠져 있는거죠. (작은 웃음) (정세나, 25세)

그리고 저는 금세 싫증을 느껴요. 내가 사귀는 사람한테 금세 질려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사귀는 사람에 대한 그 예의적이지 못한 상황

이 조금 예상이 되긴 하거든요? 한때 그 좋아한다는 말이 괜히 거북스럽게 느껴지는건 아닐까. 애랑 그러다가 괜히 또 더 좋은 사람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있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까 지금 사귀면 웬지 결혼까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더 신중하게 더 많은걸 지켜보게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누군가와 시작하는게 괜히 겁이 나는... (중략) 그런데 그렇게 엽매이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거 같다는 두려움이 진짜 제안에 있어요... (정세나, 25세)

채진영에게 사랑은 '찬란한 오해'이자, '지나가는 감정'이며 '유통기한이 정해진 우유'와도 같다. 정세나에게는 결혼과 연애에 대한 생각은 다르게 구성된다. '나중에 결혼해서는 물론 한없이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연애에서는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너무 잘해주면 여자가 쉽게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남자, 괜히 툭툭거리는 남자한테 관심도 가게 되요'로 구분된다. 세나는 '엽매이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거 같다는 두려움'과 '내가 금세 그 사람한테 질려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솔직히 사귀는 사람에 대한 그 예의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조금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웬지 자기한테 차갑게 대하고 막 냉정한 연인관계일 때' 더욱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세나는 '거의 만난지 별로 안 된' 대상을 짝사랑하고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어 이미 마음이 멀어진 후에야 상대로부터 고백을 받게 된다.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사랑'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도 상대도 '엽매이게' 하지 않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식은 '짝사랑'의 형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사람은 사랑도 그때 몰랐지만 좋아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이기적인 만남 있잖아요. 그때 당시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도피처처럼 지금 결혼 생각하는 것처럼 연애를 했던거 같고. 그리고 나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어떻게 사랑이라는 개념 너무 웃기지만 이 나이에 그런 것도 웃기지만 나는 이성이 나한테 적극적으로어지지 맘이 조금 움직여요.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건 마음을 연다는게 아니라 한번 만나볼까 이래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취빨 (웃음) 정말.. 되게 웃기죠... (중략) 저는 대학교 때 연애를 잘 못했다는 것도 그런건거 같아요. 연애하면 결혼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신중하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love, like 하면서 그렇게 만나면 되는건데 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 안 열리던데...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 오빠 별로 안 좋아 하는거 같은데 만나고 있는거 같아. 이렇게 너무 부담스

러워.' 친구가 '마음을 열어봐' 이래요. 제가 '마음을 어떻게 열어' 이랬어요. '계속 만나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헤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지예, 34세)
 OOO 같은 경우도 그 사람도 나를 많이 좋아했다면 그 당시에 반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내가 또 시들했을지도 몰라. 그게 나의 성격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OOO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날 계속 사귀긴 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걸 아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아니까 더 갖고 싶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날 좋아했다면 그만큼 그 사람한테 끌렸을까란 생각도 해. (김희진, 30세)

서지예와 김희진은 대학 시절 경험했던 연애행을 이렇게 회상한다. 서지예는 그 당시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으며, 김희진은 상대가 날 '좋아하지 않는 한'에서 열정적인 몰두와 '사랑'이 오히려 가능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타인과의 관계를 '책임'지는 것, 도움을 받는 것, 자신의 취약성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 타인에게 몰두하는 것, '사랑'을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대 여성들에게 녹록치 않은 과제임을 알 수 있다.

2. 가족과 젠더화된 의존성

우리 사회에서 '남성=독립, 생계부양자', '여성=의존, 피부양자'라는 관념은 노골적으로 혹은 매우 교묘하고도 복잡하게 작동하는 고정관념이다. 근대의 가족은 위계적 공사 이분법 속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되는 여성의 가사 노동과 보살핌의 노동에 의존해 있다. 근대 가족은 여성의 보살핌 노동에 의존하여 그 가장 큰 특성인 친밀성과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여성의 보살핌의 노동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근대 가족 안에서 새로운 남성 중심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이재경, 2003). 남성들의 여성의 보살핌 노동과 정서적 역할에 대한 의존⁵⁴⁾

54) 임태연(2004)은 폭력에 대해 여성을 취약하게 하는 사회적인 맥락과 아내 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여성의 도덕적 행위성에 대한 연구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존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남편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요구한다. 즉 남편들은 정서적인 욕구와 일상적인 필요를 아내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력이 없고 무책임한 남편들은 생계까지도 아내에게 의존하면서 완전히 '어린 아이'와도 같이 아내와 관계를 맺게 된다. 또한 아내에게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폭력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늘 아내를 의심하고 통제한다. 임태연, 「아내폭력 피해자의 '취약성'과 도덕적 행위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4), 36-47쪽.

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이러한 의존은 '남성성'에 대한 추구하고 우월성을 토대로 비가시화 되기 마련이다.⁵⁵⁾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가족 부양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자부심은 한국 남성들로 하여금 조직에 순종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구조를 안정시키는 주요한 토대가 되어왔다. 그리고 현재의 '남성다운 남성'의 표준형은 책임·결단·성취주의·힘, 그리고 합리성을 갖춘 인간상에 매우 근접해 있다(조혜정, 1988).

이 장에서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의존성의 지속적 비가시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 시대 딸들의 가족 내 경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생계부양자'와 남성의 합리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가족 내 여성 노동력 즉 생계 노동과 관계 노동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항상 아빠 같은 남자랑은 절대 안 만날 거야란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면 우리 아빠가 마초기를 가지고 계시지만 좀 약한 남자거든요. 사회에 편입하지 못한 (음.. 남성주류사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사회적으로 보아지는) 젊었을 때 결혼했을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웃음) 나오셨대요. 적응을 못하셔서. 그 뒤로 건설 쪽 일을 하시면서 그냥... 그냥 약간 좀 자유롭고 이런 일을 하시면서 사셨거든요. 지금은 엄마랑 같이 가게를 하시지만 거의 엄마가 주도가 되어서 하세요. 그니까 가게일보다도 아빠는 이제 동네 사람 참견하는거? 동네 강아지들 돌보는거(약간 웃음)? 애기들 챙기는거 이런 걸 더 좋아하시거든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엄마와 아빠가 성별이 바뀌었다면 아마 엄마는 아빠로 변신한 엄마는 훌륭한 가장이 되어 있었을테고, 엄마가 된 아빠는 아주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왜 약간 활달하고 유머 있는 교육 잘하는 엄마 있죠? 그런 식으

55) 조혜정(1988)은 초도로우가 제시한 모성의 재생산과 남성의 자아 정체감의 문제(남아는 개체성 확립을 위해 어머니와의 관계 거부)를 우리 사회의 현상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어머니의 극단적 남아 선호 성향으로 인하여 오히려 남성이 어른이 되어도 어머니와 일차적 유대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어머니로부터 감정적 독립을 하지 못한 남성은 아내를 어머니의 대치물로 보는 성향이 높다. 그녀가 제시하는 사례는 흥미롭다. 남성들이 쓴 두 편의 글, 「남편이란 모성 본능에 기대는 큰 아이」(이규동), 「인내와 사랑으로 거두어주시는 아내」(이장호)에서는 “한국 남성의 의존성은 그만큼 여성을 “부딪치고 기대서도 끄떡없는 오지그릇”과 같이 강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거나, “어디서 양자 하나 들여놓는 셈치고 [...] 아주 날 기르기로 작정해주십시오.”이라는 표현이 ‘당당하게’ 등장한다.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245-53쪽. 많은 여성들 또한 남편을 “큰아이”로 간주하는 경향이 큰데 이러한 반응은 남편에 대한 체념과 모성을 요구받는 여성의 성역할을 수용한 형태이다. 이러한 식으로 남성의 의존성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모성적 돌봄의 역할을 여성에게 당연히 요구하는 사회에서 남성들의 의존성을 사회적으로 문제화 하거나 쟁점화 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크다고 생각한다.

로 변하지 않았을까. 항상 아빠는 사회생활에도 약했지만 가정 일에서도 약했거든요. 가정, 가사노동에 대해 전혀 훈련을 받지 않은. 만약 아빠가 가사노동이나 이런걸 잘했다면 굉장히 멋있는 아빠가 되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전적으로 돈을 벌고 아빠가 주부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빠 스스로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그걸 못 하신 거죠. 아마 그러면 너무너무 좋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지금도 해요. 아직도 물 떠오는 것도 시키시고 (거의 손하나 까딱하지 않는) 네.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채진영, 26세)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을 획득하지 못한 '약한 남자'인 채진영의 아버지는 비록 '돌봄'을 선호한다 할지라도 가정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물 떠오는 것'까지 아내에게 '시키는' 남성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생계부양자'이자 '남성다운 남성'이어야 할 아버지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시에는 어머니가 그 역할에도맡거나 많은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가족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가장 일차적으로 가사노동자이기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강미정, 남현지, 임수정의 경우처럼 남편의 경제적 조건과 특성에 따라 보조적, 보완적 노동부터 전적인 생계부양까지 담당해야 하기도 한다.

엄마는 마냥 되게 희생적인 사람이고 자식이 다섯이다 보니까 뭐 밖에서 돈벌 생각도 못하고 도시락 싸기 바빴거든요? 또 아버지가 한참 사업하실 때에는 그 인부들 새참 나르고 (와, 고생 엄청 하셨겠다) 네. (중략)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한건 늘 굶직굶직한 것만 찾아다니시느라고 제 어린시절 어떤 경제적인 빈곤을 우리에게 안겨줬죠. (강미정, 32세)

엄마가 돈 부분에서 제일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엄마 말로는 돈을 많이 모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계속 사고를 많이 치셨대. (사업에 있어서?) 그런거 말고 아빠 옛날에 노름 좀 좋아했고, 하여간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서 일도 나간적도 있는데 나는 기억이 안나. (남현지, 29세)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진짜 뼈빠지게 열심히 살아서 지금 이렇게 집이 생긴거지 아빠는 거의 별로 회사 다니고 그 조그만 월급 벌어요고 이것밖에 안 해. 지금도 거의 날렸지만. 그런거밖에 안해서 실은 집안이 늘 넉넉하다 아니면 그냥 만족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없었어. 어렸을 때부터. 약간 우리 집은 빈곤층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게 엄마가 계속 뭐든지 아껴쓰기를 생활화하고 그리고 우선 엄마가 되게 많이 아꼈어. (임수정, 27세)

그리고 남현지, 서지예의 어머니들처럼 여성들이 가족을 통해 얻게 되는 ‘아내’, ‘며느리’, ‘어머니’ 정체성들 중에서 ‘며느리’ 역할은 시대 식구와의 관계에서 큰 심리적, 육체적 노동을 감내하게 한다.

엄마가 많이 고생을 했지. 또 우리 엄마 제일 처음에 시집가서 시부모님 다 모시고. 그리고 큰엄마 큰아빠까지 다 지금 다 돌아가신 큰엄마 큰아빠까지 다 있고, 지금 살아계신 큰아빠 있잖아 결혼 안 해서 다 같이 살았대. 서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되게 별났대. 그래서 많이 우리 엄마를 힘들게 했대. 그리고 할아버지는 너무 술을 좋아했대. 그래서 맨날 술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술을 좋아했대. ‘술갖고 와!’ 그러면서 땀방 부린 적도 있고 그랬었대. (남현지, 29세)

저는 엄마한테도 계속 그랬어요.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 안 할래요. 아빠 같은 사람 정말 싫다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엄마가 힘들지만 또 되게 효자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효자하고는 못살 것 같아요. (웃음) (서지예, 34)

이처럼 현실에서 많은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면서 동시에 생계부양자이거나,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보조노동자 혹은 임시노동자(남편의 사업을 ‘돕거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시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야 하는)의 역할을, 때로는 고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떠맡는다.

여기서 정세나의 가족을 통해 한국의 가족구조 안에서 남성성과 남성의 의존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유지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세나의 아버지는 군인이었다. 세나의 어머니는 ‘회식도 굉장히 많고 운동도 많은’ 군인의 아내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날 이제 갑작스럽게 손님이 닥쳐 와갖고 준비할 것도 없고 장만할 것도 없는데 (난감하지) 갑자기 데리고 와서 이제 안 된다고 했었나 봐요. 그때 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엄마가 집에 뭣도 없고, 밤도 너무 늦지 않았냐고 안 될 것 같더라고 했어요. 아빠는 또 술 한잔 마시면 기분이 좋거든요. 제 어릴 때 기억에 아빠가 술 마시면 기분 정말 좋은 날. 그러니까 알콜 중독 이런건 아니구요. 정말 술을 그냥 기분 좋을 정도로만 마시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다보니까 이렇게 2차, 3차 막 군인은 심해요. 군인가족이 회식도 굉장히 많고, 운동도 많고, 엄마도 운동신경이 둔한데 덕분에 뭐 탁구도 배우고 테니스도 배우고. 저도 엄마

닭아서 운동 쪽은 완전 빵이거든요? 저도 체육시간 구기종목 제일 싫어했어요. 엄마도 그래서 운동 못하지만 배워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거의 자기 자유는 없었죠. 아빠한테 맞춰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지?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응. 아버지가 와서 의자가 부서졌고 우리 식탁의 의자가 네 개였던게 세 개가 되었어요. (웃음) (정세나, 25세)

세나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화가 나서 평소 잘 드시지 않는 소주 한 병을 다 들이마시고 ‘헤~’했던 기억을 온 가족이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은 가족 모두 ‘서로 아무렇지 않게 하는 얘기지만 그 당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세나는 어머니에 대해 회상한다. 그리고 세나는 어릴 적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폭력적 행동을 ‘식탁 의자가 네 개에서 세 개가 되었다’로 표현한다. 세나가 보기에 부모님은 ‘굉장히 잘 지내긴’ 하지만 간혹 ‘정말 사소한’ 일로 ‘트러블’이 생기면 세나는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부모님의 그 ‘트러블’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⁵⁶⁾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싸우면 방에 바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조금 크면서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이제 ‘아~ 별것도 아니구만’ 이런 식으로 분위기 띄워가면서, ‘아빠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 얘기할 때 가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중간에서 얘기를 하고 (중략) 이런 얘기를 많이 어느 때부터가 내가 하게 됐어요. 근데 아빠는 이런 말 하지. 아빠는 괜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그때 아니까, 괜히 할 말 없으니까 나한테 ‘넌 빨리 치우거나 하라’고 괜히(웃음) ‘넌 니 용돈도 없다’ 이런 식으로 아빠의 감정적인게 나한테 투사되는, 엄마는 이제 울고 있고. 그런 가끔 사소한 일로 감정적인게 격분이 되는데, 엄마도 이제 맨날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당신이 이른다’ 그런 문제로 두분이 가끔 다투시고. (정세나, 25세)

부정적 의미로서 ‘감정적인’ 아버지는 어머니와 딸에게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는

56) 가족구조 안에서 (딸을 포함한) 여성은 감정노동과 관계노동을 요구받는다. 세나는 부모님의 ‘트러블’ 조정 역할을 맡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자청하기도 한다. “그냥 늘 즐거워지고 싶은 것도 나의 욕망이기도 하고 오히려 조용한게 웬지 내가 잘못 만든 분위기 같고 그게 오히려 죄책감이 드는”, “조용하면 그건 내 잘못 같은거 있죠.” 남현지의 경우는 남자들이 ‘여자다운 여자’(여성스런 외모와 목소리, 부드러운 태도와 예교)를 선호한다고 말한다. “성격도 조금 모나지 않고 부드럽고 유들유들하면서 자기 친구들한테도 분위기 잘 맞춰주면서 그런거 좋아하더라. 분위기 잘 맞춰주면서 놀아주고 하는거.” 이처럼 여성에 대한 감정노동과 관계노동의 요구는 남녀관계, 가족관계 등 일상화된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구조화된다.

형태로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해결하려 한다. 세나의 아버지는 군제대 후 익스프레스 용달차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노는걸 못하는 성격'에다 '오래 막 노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의 절대절명의 인생철학은 '힘들어도 뭔가 땀 흘리면서 돈을 버는' 것이다. 아버지는 '만날 할 일도 없는' 어머니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 대단한 '살림꾼'인 어머니의 노동(가사노동, 돌봄과 감정노동, 육아, 보조노동)은 '생계부양자'인 아버지에게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란 힘들다.

아빠는 어딜 가든지 엄마를 꼭 끌고 가야 해요. 아빠가 군대 제대를 하고 지금은 익스프레스 용달차 회사를 혼자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회사 바로 앞에 받을 뭐 이것저것 다 심어놨어요. (텃밭을) 네. 그래서 엄마더러 만날 할 일도 없으면서 와서 잡초 좀 뽑으라고. (웃음) 일을 막 만들어놓는. (할일이 왜 없어) 응. 엄마도 집에서 집안일도 우리 엄마는 와~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살림꾼은 처음 봤어요. 뭘 못 봐 진짜. 너저분하게 해놓는걸. 우리 집에서 우리 아빠 내 동생 나는 다 지저분하게 널려놓고 치우지도 않고 치우라고 몇 번 말해야 그때서야 치우는 그런 성격인데, 엄마는 이제 끝까지 혼자서 다 정리하시고 치우고 치우고 하루 종일 보면 치워요. 쉬는 것도 없고 뭐. (중략) 엄마도 엄마 일이 있는데 텃밭으로 불러내고, 옛날에 한창 이사짐 하러 다닐 때는 아빠가 만날 데리고 다녔어요. 아빠는 데리고 다니는 성격이에요. 옆에 있는걸 좋아하는, 어떻게 심하게 보면 의치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건 아닌거 같고. 여튼 옆에 가족을 싸들고 다니는걸 좋아해요. 나도 집에 있을 때 '너도 와서 피땀아라 (웃음) 사람들이랑 놀러와라' 좀 이런... 동생도 있으면 일할 때 데려가고 아빠는 함께 뭔가를 하는걸 되게 좋아하고, 얘기할 때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는걸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는 이제 자기 일이 있을 때는 그걸 좀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만날 이게 안 맞으면 트러블이 일어나는 (주로 어머니가 많이 맞춰주시지?) 그렇죠. 정말로. 우리엄마가 엄청~ 맞추죠. (정세나, 25세)

(아버지는 성취지향적하시고 목표지향적이신, 소위 남성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강하신 것 같아)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면, 아빠가 제대를 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은퇴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니까 그 연금으로 두 분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처음에는 정말 무식하게 공부를 해요. 완전히 하루 종일 책 한권으로가 진짜 열심히, 하나를 파고드는 그런 열심... (중략) 그런데 그러다가 아빠가 어느 날 정신을... 아무튼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스트레스성인지 몰라도 아무튼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풍이오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략) 뭐 오직 할머니/어머니만 알아보고 우리 집, 엄마 내 동생 다 못 알아보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어디냐는 등. 병원에 갔는데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대요. 쉬어가면서 하지 사람이 말이야~ 시험도 닦쳐있으니까 아빠가 예비군 대대장 이런 걸로 시험을 보려고 하신 거였는데, 공부하면 안 되겠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쉬시라고 편안하게. 아빠가 그이후로 그 말 듣고 편히 쉬시다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정세나, 25세)

세나의 아버지처럼 '일'로서 자신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성취'와 '목표달성'이 우선시 될 때, 그만큼 정서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정년 퇴직을 앞두고거나 혹은 했을 때 경험하는 중년 남성들의 정체성 위기를 통해서도 극명히 드러난다.

세나의 아버지는 오랜 기간 군인의 삶을 살았고, 군제대 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노동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만들어 가는 듯 보인다. 이러한 아버지의 삶은 주위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는다. 하지만 강하고 근면하며, 좋은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가사 노동과 보조 노동, 아이들의 감정 노동 등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그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만큼 아버지의 확고한 '가장' 으로서의 남성 정체성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형태의 노동에 기반해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이 유지되지 않을때 그 정서적 취약성은 위의 경우처럼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세나의 가족은 우리 시대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여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 남성 정체성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63년에 미국의 현대 여성해방운동에서 최초로 사회, 문화적 구성물로서 여성성을 분석한 『여성의 신비』를 출간함으로써 현대 여성해방운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던 프리단(Betty Friedan)은 오래 살기 위한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 중 하나로 "친밀한 유대"를 꼽는다. "남성은 이제 더는 평생 직업에 의존하는 계획을 가질 수 없기에 혼돈이 일어난다. 남성들에게는 여성이 아이를 기르고 직업과 일과 가정의 비중을 알맞게 조정하며, 이런 결과에 따라 생활의 패턴을 변화시키면서 개발하지 않을 수 없던 유연성이 필요하다. 남성들은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여성의 일로 치부해오던 친밀한 유대와 공유감을 창조하고 유지하면서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침내 본질을 마주하자. 남성이 모든 것의 잣대라는 가정은 이제 재고돼야만 한다. 여성과 남성이 모두 사회의 주류에 자리잡고 있으며, 여러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이 시대착오적인 여성의 신비와 그것의 맞짝인 남성의

신비의 찌꺼기를 일소하고 새로운 현실을 함께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의존하는 기준, 정의, 잣대 자체가 변해야 하며, 또 실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⁵⁷⁾

그러나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여성의 신비와 남성의 신비의 찌꺼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시대 20~30대 여성들은 ‘새로운 현실’ 속에서 어떠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B. ‘의존’과 분열된 여성주체성

1. ‘의존’에 대한 자기개념

이 장에서는 우리 시대 20~30대 비혼 여성들이 ‘의존(성)’에 대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앞에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의존’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여기서는 여성들이 ‘의존(성)’에 대해 어떠한 자기 개념과 해석, 가치를 갖는지 파악하고, 이들의 주관적 의미와 사회 담론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연구참여자들에게 ‘의존(성)’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1) 자율성과 독립성, 자기결정권과 대립되는 것, 2) 자기상실, 3) 삶의 조건과 관계적 의미, 4) 남성성과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의존’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중에서도 자율성과 독립성, 자기결정권과 대립되는 것으로 ‘의존’을 개념화하는 경향이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 시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과 자율에 대한 열망과 동시에 자율과 독립의 이분화된 도식이 강력하게 내면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자율과 독립, 자기결정권의 대립으로서의 ‘의존’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근대 서양철학에서 존중, 자율, 평등, 공평성과 같은 가치를 중심에 놓고자 하는 결단은 인간 본성에 대한 특정한 개념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개인들로 표상하는 인간 본성 개념들은 본질적으로 타자들과는 분리되고, 충족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지며, 전형적인 이해관계의 갈등 속에 있는 적대적

57) 베티 프리단, 『여성의 신비』, 김현우 옮김(서울: 이매진, 2005), 개정판 서문 <변화한 풍경 — 두 세대 뒤(1997)>.

시장관계를 경험한 남성의 경험을 반영하는 관념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재거, 1998). 이러한 관념은 근대 교육을 받아온 우리 시대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으로 '의존적' 경향은 부정적이고 배제시켜야 할 요소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때로는 타인에게 '기대려는' 의존성의 욕구와 '당당하고',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욕구는 공존하면서 갈등하게 된다.

솔직히 남에게는 나 의존성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고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의존과 자립이 대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남에게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거 알리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의존성이 아닌가. 제 생각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걸 봐도 뭔가 남에게 의지하고 싶고, 남에게 기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략) 남이 나한테 의존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남을 좀 왜냐하면 내안에 의존성이 솔직히 있어요. (정세나, 25세)

또한 이난영과 임수정의 경우처럼 원자화된 개인에 대한 기준과 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에서 '의존'은 '온전히 서있지 못하고', '개체를 온전히 한 개체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으로 의미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존적이라고 하면 나도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 지금까지 교육받아온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정적이라는게 어떤 의미?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서 있는데 서 있지 않고 좀 기대었다는 느낌, 기댄다는 느낌? 자기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좀 기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이난영, 30세)

나쁜 것.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고... 음... 어쨌든 그 개체를 개체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개체를 온전히 한 개체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중략) (네가 생각하는 온전한 개체의 의미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이라든가 부모나 애인이나 그런 사람들로 부터 어떤... 독립?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키는거? 내가 나라는... 나라는 어떤 성정이나 성격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켜가는 것?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독립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중략) 내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부모한테 의존하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 같은 걸 굉장히 막고 있다는 거지. (임수정, 27세)

연구참여자들의 반 정도는 대부분 교육 과정을 마치고 '공적 영역'에 진출하여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도록 강제되거나 권유받는 상태에 놓여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과 안정을 보장한다는 환상을 끊임없이 지속시킨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이 활발해진 시대에 여성들에게 경제적 독립은 자율성과 독립성 획득의 신념 및 열망으로 연결된다.⁵⁸⁾ 김희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에 의존이 가능한 시기는 따로 존재하며, 남현지에게는 '경제적인 자립'과 '뚜렷한 자기 주장'이 모든 '의존'을 거부하고 '잘 살 수' 있는 토대가 된다.⁵⁹⁾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의존... 하고 싶다... 뭐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면 아니면 어떤 단체든.... 의존하고 싶다 그러나... 음... 그러나! 까지. 의존은 웬지... 긍정적으로 아직 받아들여지진 않고 내가 피해야 될 것... 그냥 막연한 생각에 의존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중략) 그러면서 이제 아 막연하게 의존한다는 게 결혼이나 남자한테 의존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계속 걱정이 되니까 아마 제일 클거야 경제적인게. (중략) 요즘만큼 로또 생각을 해본적인 별로 없는데 정말 나 로또가 되면 적어도 돈에 의존 내지 구매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을 거잖아. (김희진, 30세)

58) 이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여성은 연령상으로 성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성인으로 간주되기 어렵고,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고 보호할 수 없는 미성년으로 간주되어 가족 내에서도 다른 가족 구성원의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나 경제적 능력은 곧 자기 삶의 자율성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문은미, 「여성 직종'에서 노동자원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연구」(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0), 15쪽 참조.

59) 조혜정(1998)은 20, 30, 40대 여성 세대간의 이념형과 차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한 글에서, 20대 여자들은 이제 더 이상 여자란 것 자체로 주눅 들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조혜정은 이들이 봉건적인 가부장제를 벗어나면서, 또 다른 형태의 근대적 가부장제로 급속하게 옮겨갈 가능성 또한 높아지면서 경제적 이유로 결혼에 집착하게 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분석한다. 또한 20대 중에도 단호하게 자아 실현의 길을 걷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또 한편 남성 중심의 성과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가부장적 사회를 좀더 일찍이 보게 된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본다. 조(한)혜정, 「남성 중심 공화국의 결혼 이야기 2: 결혼과 자아 실현을 둘러싼 성과 세대의 정치학」,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한국의 여성과 남성 2』(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8). 조혜정의 분석 외에도 한국 사회의 젊은 여성 세대는 자아 실현과 성취의 욕망, 경제적 자립에 대한 열망, 결혼에 대한 집착, 가부장적 결혼 제도에 대한 성찰, 사랑과 친밀성의 욕구 등 좀더 복잡한 층위에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한다는 점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의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독립성이 아주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지. 이성적인 관계에서나 아니면 가족간의 관계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그렇지. 왜냐하면 경제적인 자립성이 있거나 아니면 살아가는데 뚜렷한 자기 주장 그런게 있다면 잘 살 것 같은데 의존하지 않고. 결혼도 그렇고 모든게 다... (남현지, 29세)

경제력은 많은 경우 주체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본 전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경제력 확보와 보장만으로는 주체성을 확보하기가 힘든 경우도 존재한다. 강미정은 자신의 '의존성이 100%일까봐' 걱정이 매우 크다. 미정에게 의존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 자기확신'과는 대립되거나 결함으로 작용한다. 많은 형제들 속에서 막내로 자란 미정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매번 이미 정해진 선택을 따르기만' 해왔다. 나이가 들어서야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했지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걸 알면서도 의존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정말 99% 의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의존은 '꼭 그런 대상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저는 사람들하고 친밀해지면 좀 심하게 친밀해지는거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나와 너의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지면서 공유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각들에 있어서도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즐기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나라는게 좀 사라지거나 쉬어버려서... 나도 아닌 것이 그도 아닌 것이 그런 애매한 형태를 취할 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나면 도대체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건 없을까?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건 없을까? (중략) 그 순간에는 답답하고 해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나, 내 생각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의존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기대게 되는데... 자꾸 나라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들? 그리고 어떤...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퇴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거... 그리고 100% 내 신념과 내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역으로 원망하게 되고. 내가 결국은 그렇게 따라한 건데도 불구하고. (강미정, 32세)

저는 정말 너무너무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데 그 의존이라는 부분이... 음...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했을 때 독립이 이루어질 수 없고,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독불장군이 아니라 지혜로운 얘기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되 내 것을 지키고 만들어 나가는게 저는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립은 기반을 갖고 세워나가는 듯한 뉘앙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존이 올라갈수록 독립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반비례처럼) 네. 저한테는 정말 극단적인 양상이예요. (강미정, 32세)

강미정은 나/타자의 경계가 강하지 않으며, 타자 수용의 공간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책임성과 여러 갈등 요소를 화해시킬 수 있는 자아 정체성이 마련되지 않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김희진, 남현지의 경우 의존은 자립과 독립의 대립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때로는 강미정의 경우와 같이 양극단에 위치한 개념으로 여겨지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 안의 (경제적·심리적) 의존성을 지우기를 소망한다. 이때 ‘온전한 개체성’, ‘원자화된 개인’과 같은 기존의 남성 중심적 주체 개념은 이 시대 여성의 독립과 자기 주장, 자기 존재에 대한 열망 속에서 추구되어야 할 지향으로 의미화 된다.

2) ‘자아상실’로서의 ‘의존’

우리 시대에는 슈미트바우어(1985)의 말대로 의존 성향이 담긴 모든 말들은 마치 살인 의도를 고백하는 것처럼 들리는가? 여성들에게 ‘의존’의 개념은 참으로 복잡하게 작동한다.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타인지향적이고, 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고하도록 길러진 여성들은 타인과의 관계 단절이나 고립을 자아상실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채진영에게 의존은 곧잘 ‘부정적’ 의미와 연결되면서 ‘나약함’과 ‘내 안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요소’로 의미화된다. 진영은 이성관계에서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불편한’ 여성성(예쁘게 꾸미고, 치장하고, 남자의 시선에 종속되는 것)을 행하는 것과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타인과 맺는 ‘규정적’ 관계 모두 거부한다. 즉 우리 시대에 정형화된 여성성을 행하는 것,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이 진영에게는 자신을 ‘움아매는’ 통제와 구속을 상징한다.

부정적이고 좀 나약해진다는 느낌... (부정적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 내 안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 같다는, 배제시켜야 하는 요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길거리를 가는 이성커플들을 보면 그.. 여자는 굉장히 예쁘게 꾸미고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하늘한 원피스에 불편한 높은 샌달에 가방 하나를 메고 걸어가죠. 옆에 있는 남자친구는 슬리퍼 짝짝, 반팔에 반바지 아주 편한 스타일로 가는데 보면 그 여자가 물론 좋아서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만 너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여름에 꾸미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자체가, 특히 이성관계에서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

가 '난 너한테 의존하고 싶어' 이런걸 굉장히 드러내는... 한눈에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부정적으로 보죠? (채진영, 26세)

그냥.. 음.. 뭔가 뭔가 속아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같이 그냥 그런건 좋아요. 같이 얘기하고 놀고 그냥 그런거.. 노는거? 같이 얘기하는거? 생각을 나누는거? 이런 것까진 좋은데 어떤 관계를 규정하는게 싫은거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면 웬지 계속 그 친구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스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친구한테 잘해주다가도 동성친구한테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배려를 굉장히 해주고 노력해요. 많이 노력하고. 그런데 만약에 딱 그 친구가 '앤 나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딱 다른 사람한테 규정을 한다라고 상상을 하면 그 친구가 아닌 다른 누구라고해도 또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거 같아요. (채진영, 26세)

진영의 경우에서 보듯이 통제와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의존을 통한 '자아상실'을 방어해야만 한다. 사실 이러한 진영의 신념은 단순히 의존 그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끊임없이 타인지향적이길 요구받는 사회문화적 '여성성'에 대한 거부이자, 자아 경계와 존재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3) 삶의 조건과 관계적 의미로서의 '의존'

사람은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의존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동안 남성 중심의 가치와 신념들은 이러한 의존의 현실을 부인하거나 폄하해왔다. 서지예는 '사람은 항상 의존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 인정한다. 동시에 의존에 대한 '양가감정'이 들고 자신의 행동이 '가끔 좀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예에게 의존은 '좋고 나쁨'의 판단 영역이 아니며, '독립적'인 사람도 자신의 의존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항상 난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항상 의존하면서 사는거 아닌가요? 내가 힘들 때 기댈 수도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기댈 수도 있고. 저한테 의존은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만은 아니예요. 그리고 항상 다 양가감정이 있잖아요.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은근히 기대는 것도 있고, 싫

다고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엔 또 기대고 있고. 그런데 너무 많기 때문에 내 행동에 가끔 좀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전 그래요. 그래서 좋고 나쁘다라고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당연한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리 '나는 독립적이야,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거 뿐이고. 내가 생각하는 의존이 그니까 나 혼자 의존하지 않는거야 생각하는거 뿐이지 어느정도는 다 부대끼고 기대고 의지하는게 아닐까요? (서지예, 34세)

윤다연 또한 의존에 대해 양가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의존하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한지' 회의적인 다연은 의존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동시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이 작동하면서 독립과 의존 사이를 '왔다갔다'한다. 나아가 다연은 '의존보다는 관계'에 더 초점을 두면서 '독립성과 의존성의 대치'보다는 '잘 의존하기 위해' '독립'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의존하지 않고 사는 게 나는 가능한가? 회의적인데, 동시에 의존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별로 나쁜 뉘앙스가 아니긴 한데, 그럼과 동시에 그... 독립성에 반대되는 말처럼 느껴지고 나는 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쁘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독립과는 조금 대립되는...) 응. 대립되는데... 음... 요즘 드는 생각은 나도 그게 대치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계속 하게 되는데, 의존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의존이라는 게 100% 나를 남에게 기대는 거?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관계, 의존보다는 관계라는 것에 더 많이 초점이 가고, 그 관계라는 게 궁극적으로 자기가 서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정체성이나 자기 나름의 독립성, 자율성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측면을 내가 요즘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독립성과 의존성의 대치성 같은 것이 나는 좀 흐려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 의존이 주는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은데 의존이라는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관계로 대치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 나의 상태는 그렇고, 그래서 잘 의존하기 위해서는 잘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윤다연, 29세)

지예의 의존에 대한 '양가감정', 다연의 '흐려진 대치성' 속에서 의존/독립의 위계화된 이분법이 아닌 다른 관점이 가능할 수 있는 씨앗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항상 난 혼자'라는 외로움과 '독립성, 자율성'에 대한 성찰의 과정을 돌파하면서 위계

화된 이분법을 해체하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다.

4) 남성성⁶⁰⁾과 대립되는 이미지로서의 '의존'

김희진에게 '의존'은 '편함, 수동성, 할 일을 대신 해줌, 어려움 다 도와줌'으로 의미화된다. '의존'(부정적 의미)과 '의지'(긍정적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희진은 '의존'을 '수동적인 느낌'과 연결짓는다. 지금은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희진은 자신 안에서 '의존'이라는 수동성을 배제해야 한다. '의존'이 가능한 시기는 '욕심'과 '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야 가능한 것이 된다.

'의존'은 웬지 좀 수동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의지'는 나라는 주체가 있지만 옆에서 약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의존이라는건 별로. '의존적이다'라는 의미는 그다지 별로... 뭐랄까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의존적이다'라는 단어는 쓰고 싶지 않은 느낌. '의지가 강하다' 아니면 '네가 있어서 내가 참 의지가 된다' 이런 말은 되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까 '의존은 하고 싶다. 그러나!'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그게 가능한 때가 있다라는 거야?) 글썽 그게 특정한 때라기보다 내 마음의 준비? 아니면 뭐 정말 내가 할일 다하고 더 이상 어떤 욕심이나 더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게 없어졌을 때 서로 의지하면서 의존할 수 있는 그런 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단계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존은 수동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는 않다고. (김희진, 30세)

박상현에게 '의존'은 '야심'이나 '성취'와 반대되는 이미지로 구성된다. 그러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여유로운 사람이다'와 '앞으로 밥 먹고 살기 되게 힘들겠다'라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성취'와는 거리가 먼 자신에 대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좀 앞이 캄캄해질 때'도 있다. 그래서 상현이 원하는 '인간형'은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어떤 모드에 딱 맞는' 유동적인 모습이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배려의 가치가 긍정화 되

60) 여기서 '남성성'은 '수동적이고 나약한 여성성'과 대립되는 '능동성, 야심, 성취, 통제'의 의미를 나타낸다. '야심, 성취, 통제=남성성'이라는 도식을 해체하고 여성주의적 개념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C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무심하고', '외곬수'며 '괴팍하고 개성 있'는 모습이 오히려 자신에게 '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의존에 대해서 떠올리는 이미지... 그러니까 막 독립적이거나 아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거나 되게 막 야심 있게 뭔가를 헤쳐가거나 이런 이미지의 반대되는 이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꼭 의존이 그런건 아닌데 나는 야심이 별로 없고... 평상시에 내가 생각하는 나 있잖아. 야심이 별로 없고 컴퓨터처럼 탁탁탁 이렇게 깨끗하게 일처리를 하거나 뭔가 깔끔하게 성취물을 딱딱딱 남기거나 이런게 되게 취약이다! 이런 나에 대한 이미지나 나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거랑 연결해서 의존이 나랑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중략) (달랐으면 좋겠다는 모습은 반대의 모습? 아니면 특별한 상이 있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어떤 것을 못한다고 했을 때 정말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거든? 세세하게 정말 정확하고 매사에 정말 빠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되게 척척척... 근데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고... 그냥 내 모습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때로는 불편할 때... (중략)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있잖아. 자유자재로 나를 통제하거나 나를 바꾸거나 나를 채찍질하거나 어떤 모드에 딱 맞게 어떤 상황에 맞게 딱 그런 모드의 인간이 될 수 있는거 있잖아... 그런거를 원하겠지. 인간형이 완전히 바뀐다기 보다는. 근데 그건 힘들겠지만 하여튼... (박상현, 27세)

나는 형제 셋 중에서 엄마 아빠를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엄마 아빠는 항상 나한테 집중력이 없다고 그것이 너의 단점이고 고쳐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 나는 너무 서러운거지... (중략) 그래서 나중에 집중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너무 놀랐지. 나에게 이렇게 있다니... 나에게 집중력이 있다니 되게 놀랐었지. 그리고 애들이 나를 되게 무심하고 혼자 외곬수고 되게 괴팍하고 개성 있고 이렇게 나를 봐줬을 때도 난 되게 놀랐지.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나는 되게 좋았지. 나한테 되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상현, 27세)

지금까지 '남성성'의 주된 특성과 성향으로 생각되어져 왔던 '성취, 욕심, 진취, 독립, 근면, 통제, 야심, 집중력, 외곬수' 등의 가치들이 여성에게 수용되거나 추구되고 내면화될 때, 김희진처럼 '의존'을 보류하거나, 박상현처럼 타인과의 연결, 배려의 가치가 긍정화 되기는 힘들다. 이는 사적 영역에서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공적 영역에서 '남성적 여성'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2. 의존성과 여성성

의존(依存, dependence; reliance)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의지하여 있음'이다.⁶¹⁾ 자아가 아닌 타자에게, 주체가 아닌 대상에게, 내가 아닌 너에게 '의지하여 있음'은 왜 그토록 현대 여성들에게 위협적이고 거부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의미화 되는가. 혹은 의존을 받아들인 여성은 왜 끊임없이 자기 갈등과 자기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가. 양성평등을 표방하는/지향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에게 의존은 곧 종속과 예속을 의미한다. 즉 '고유한' 자기의 영역과 '온전한' 자아가 위협받고 침범당하는 주체성 상실로 연결된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사회 문화적 '여성성'을 받아들이거나 수행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의존과 취약성, 나약함, 결핍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이러한 '여성성'의 수행을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이기적이고', '미성숙하며', '여자답지 못하다'는 온갖 비난이 쏟아진다.

이제 여성들은 자신의 종속과 복종의 상태를 적절한 '타협'을 통해 받아들이거나 이러한 비난의 담론 속에서 불안을 경험하거나 혹은 이 둘 사이에서 자기 분열의 위험한 곡예를 할 수밖에 없다.⁶²⁾ 여성들의 이러한 분열은 도덕적 이중 곤경과

61) 의존(依存) [명사] [하다형 자동사][되다형 자동사] 남에게 의지하여 있음.

의지(依支) [명사] 1. [하다형 타동사] (다른 것에) 몸을 기댐, 또는 기댈 대상. 2. [하다형 자동사·하다형 타동사] (무엇에)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음.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의존'과 '의지'의 비슷한 의미에 비해 '의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

62) 최근의 대학생들에 대한 생애사 연구(조옥라(외), 2000)에 의하면 대학 사회의 구성원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심각한 젠더 정체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여성의 경험에 주목해 본다면, 여학생들은 여성의 모성과 가족에의 헌신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여성성 관념과 독립적인 자아와 성취 욕구에 대한 인식 사이에서 정체성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여성들의 경우, 가족관계에 대해서 대다수의 여학생이 "딸이어서 특별히 차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하며, 평생 직업을 가지고 직업인으로서 성취하겠다는 욕구도 대단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과거 세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자기 존중감과 자신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주관적인 자기 평가와는 달리 여학생들이 지닌 여성으로서 자기인식, 즉 젠더 정체성은 매우 모순되고 갈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가부장적 젠더 체계에 의심 없이 동조할 수 있을 만큼 이들의 경험이 단순하지 않고 반대로 그 경계를 인식하면서도 당당하게 넘어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이들의 삶을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가진 이중적 의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졸업 후 직업인으로서 성취하겠다는 강한 욕구를 가진 신세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 신세대 여성들의 자아 정체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혜숙, 「젠더 정체성과 페미니즘」, 송무 외, 앞의 책, 127-29쪽.

도 연결된다. ‘여성의’ 덕은 악으로서 경멸당하지만 ‘남성의’ 덕을 획득하면 여성은 여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낙인찍힌다. 참으로 좋은 [사람]이면서 여성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도덕적 행위성은 혼란스러운 것이 된다(메이어스, 2000).

이 장에서는 우리 시대 젊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여성성의 이중 곤경과 모녀 관계에서 형성되는 양가적 감정구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사랑과 의존에 대한 욕망이 어떠한 식으로 드러나며 그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 것이다.

1) 여성성의 이중 곤경⁶³⁾

우리 사회에서 ‘눈이 높은’ 여성,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은 남성들의 눈에는 ‘피곤하거나’, ‘결혼하기 쉽지 않은’ 여성으로 비춰지기 마련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결혼제도가 남성 중심으로 구조화 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여성’은 수동적이고, 나약하며, 남성에게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것이 소위 ‘정상적’ 여성의 규범으로 인정받는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젊은 여성 세나에게 ‘그러나 결혼하기 힘들겠다’라는 말은 곧 이러한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하는 의미이며, 이것은 세나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다.

수업 발표를 준비하면서 같은 조였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길 하는 거예요. ‘세나는 결혼하기 좀 힘들겠다, 눈만 높아서 어떤 남자가 성에 차겠냐’고 얘길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이 높아 보여요?’ 라고 하니깐 아니 나라면 이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웬지 남들보다 늦게 할 것 같다는 얘길 했는데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정세나, 25세)

진영에게 ‘여성성’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함께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고 의사소통에 능한’ 굉장히 좋은 ‘여성성’과 ‘여성성의 필수 요소’이자 동시에 ‘없어야 될 고

63) 미국의 역사가 거다 러너(1986)는 “의식이 깨어 있는 여자에게 닥쳐오는 가장 커다란 위협은, 안정과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여자는 또 ‘가장 여자답지 않은’ 모든 특성을 계발해나가야만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그것은 지적인 교만이요, 세상의 규칙을 새로이 정할 권리를 허용하는 오만의 최고 단계다. 즉, 신을 만들어내는 자의 오만이며 체계를 만드는 남성의 오만”이라고 말한다. 우어줄라 쇼이 엮음, 『여자로 살기, 여성으로 말하기: 521명의 여성들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 전옥례 옮김(서울: 현실문화연구, 2003), 281쪽.

정관념'인 부정적 '여성성'으로서의 '의존성'이다.

그래서 여성성을 생각하면 항상 의존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애써 밟아버리고 싶은. 가끔 언론에서도 그렇고 가끔 사람들 아주 쉽게 얘기하잖아요. 뭐 여성은 항상 가끔 남자에게 기대고 싶어 한다 이런 말들...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웃음) (근데 그게 네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것 같거든?) 네. 근데 항상 저는 그래요. 충돌은 하지만 물론 그.. 하지만 그.. 깨어야 한다는 욕구 그게 항상 이기는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기는 건 아니죠. 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중략) 남자들을 만날 때 고민이 항상 그거였어요. 항상 난 독립적이어야 돼 의지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돼. 그래서 항상 남자들 앞에서는 강해지려고 굉장히 의도적인 노력을 많이 지금도 그런 것 같고. 지금은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웃음) 그랬던 거 같아요. (채진영, 26세)

이와 같이 진영이 '의존성'을 부정적이고 배제해야 할 요소로 본다면, 임수정과 윤다연은 "의존성=여성성"의 도식이 갖는 억압성에 대해 비판한다. 임수정은 우리 사회가 '여성의 미덕'으로 요구하는 '의존적 여성성'과 '의존'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평가 사이의 이중성에 대해 분노한다.

여성들은 어떤 부분 의존하도록 만들어지는... 만들어졌고. 그니까 되게 웃긴 게 여자가 무슨 행동을 하면, 어떤 패턴을 보이면 그걸 병이라고 몰아세우면서 그런 의존 같은 경우도 여자들한테 '공의존증' 이런 거 갖다 붙이면서. 실은 그 의존하는 게 정말 되게 여성적인 기준인데 의존하게끔 하는 거? 옛날부터 뭐 여자는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빌붙어 있다가 남편한테 빌붙다가 나중에 아들한테 빌붙잖아. 그런 식의 어쨌든 의존 그게 여자의 도리다, 뭐 여자의 숙명이다 그렇게 키우면서. 뭐 되게 웃기는 게 분명히 나도 똑같이 4년제 대학을 나왔고, 나도 똑같이 능력이 있는데 부모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기 딸을 그렇게 공부시키는데도 너 나중에 살림할 때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애길하는 게 웬.. 되게 난 살림에 대해 부정적인 게 실은 내가 거부하다보니 살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된 건데 실은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림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자식들한테 막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고 자식들한테 나중에 의존하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잖아. 그러니까 그 의존하는 부분이 여성의 미덕이라고 막 그러면서 실은 사회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독립적으로 되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뭐 아들한테는 결혼을 해도 남자한테는 독립할 수 있는 집을 사주고, 여자는 그냥 그 안을 채우고... 채우고 되게 웃긴 거 같아. 여자들에게 의존하는 걸 권하

는데, 사람들에게 '너는 의존적이다'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지. (임수정, 27세)

반면 윤다연에게 있어서 한 사람 안에 '의존성'과 '여성성'은 공존하는 것이다. 다연은 '의존성'의 욕구에 초점을 두어 그 욕구는 굳이 여성만의 경험은 아닌데다 자신은 여성이기 때문에 '의존'의 '혜택'을 받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연에게 여성으로서 의존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과 '여성'을 연결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다.

나는 그게 둘이 연결된다기보다는 동시에 나타나는 측면들. 둘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한 사람에게 의존성이란 게 있고 여성성이란 게 있어. 그냥 공존을 하는 거야. 동시에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동시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 두 개가 연결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지. 나는 의존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는데, 내가 여성으로서 누구에게 의존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 (중략) 나는 내가 여성성, 그렇게 나름대로 여성적이면서 여성으로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또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하지. 그니까 도망가고 싶은 구멍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상황이 좀 힘들 때? 아, 딱 놓고 싶은데 뭔가 기댈 구멍이 있으면 좋겠다든가, 늘 내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게 여성으로서의 경험인가? 나는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시키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 같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난 여성으로서 받은 혜택이란 것이 거의 없거든. 물론 있을 수도 있지. 그니까 여성으로서 억압받는 부분도 있고 나름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또 한 사람 내에도 억압받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근데 물론 그런 경험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그걸 연결시킨다면 불쾌하지. 두 측면이 동시에 다 있지만. (윤다연, 29세)

정세나, 채진영, 임수정, 윤다연 모두 '여성성'과 '의존성'의 이중적 뒷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여성적인 의존'을 강제하고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가치절하 하는 사회 구조,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라는 사회적 메시지와 해방적 열망 사이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갈등과 딜레마는 모녀 관계에서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

2) 애증관계, 어머니와 딸

여성과 남성의 의존 욕망의 불평등한 교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던 아이첸바움과 오바흐(1999)는 어머니-딸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압력을 받게 되는가를 분석한다. 우선 어머니는 딸이 주는 자(giver)가 되도록 준비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자존감(self-esteem)은 스스로를 “좋은 주는 자 good giver”라고 느끼지 않을 때 고통 받는다. 의식,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는 딸들이 돌보고, 감정적 레이더를 개발하고 반응하는 자가 되도록 격려하고 강요한다. 일상에서 어머니는 딸이 자신의 욕망과 식욕을 억제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녀가 원하는 보살핌을 결혼 안에서 충족하지 못한다. 딸은 부모님 관계의 불평등함, 어머니의 감정적 불만족을 인식한다. 어머니는 딸에게서 그녀 인생에서 잃어버린 감정적 접촉을 기대한다. 이는 딸에게 짐이 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어머니는 딸, 딸의 딸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이 딸과 관련되어 공명되고 그녀는 어머니의 보살핌의 상실을 느끼면서 자신의 딸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만회하도록 기대한다. 아이첸바움과 오바흐는 이런 이유들로, 딸을 키운다는 것은 특정한 구속 에 직면한다고 본다. 즉 양가성 없이 반응하기 힘들며 딸은 동시에 상실과 모순의 감정으로 어린시절을 지내면서 잠재적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⁶⁴⁾

어머니가 딸(그리고 아들)의 자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모녀가 성기가 같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적 지위라고 주장하는 그린스팬(1983) 또한 어머니는 여자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신의 느낌을 아주 어릴 때부터 딸에게 심어 주게 된다고 본다. 소녀의 교육은 어머니의 끊임없는 감독에서부터 시작하여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아는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적·비언어적인 기술과 타인의 보살핌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목표가 되는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그린스팬에 따르면, 여성은 어머니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류의 여성이 되는가를 배운다. 여기서 여러 가지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모녀간의 특성으로 보이는 영원한 적대감이다. 그녀는 많은 딸들이 ‘나는 우리 엄마 처럼 될까 봐 두려워요’, ‘난 절대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혹은 ‘엄마 같지 않

64) Luise Eichenbaum & Susie Orbach, *Ibid.*, pp. 25-8.

은 것에 감사드려요'라고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이 말들은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이 문화에서 여성 스스로 내면화한 여성 혐오증을 생생하고도 가슴 아프게 표현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모녀간에 존재하는 깊은 동일시의 유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종종 이 유대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 끝없는 적대감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적의에 찬 의존성'이라 부른다.

여기서 엄마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여성들이 의식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가정주부가 되고 싶지 않다는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비굴해지기 싫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자기 어머니들처럼 아이들한테 자신의 인생을 온통 바치고 싶지 않다는 욕망 또한 포함되어 있다. 다른 사람과의 유대 관계라는 원칙에 따라 형성된 여성의 자아가 가장 은폐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오로지 자녀한테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 어머니에게서 볼 수 있다. 그린스팬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해온 어머니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증오 대상이 되어 버리는 이 '부메랑 효과'에서 여성다움이 지니는 문화적인 이중 규제의 가장 치명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⁶⁵⁾

우리 시대 20~30대 비혼 여성 딸들도 어머니의 딸에 대한 양가성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과 애증, 배반의 감정을 경험한다. 어머니의 존재는 삶의 '뿌리'이기도 하고(정세나, 25세), '스무 살 때까지는 엄마 때문에 살았을' 정도로 '힘이 되었던' 존재이기도 하며(윤다연, 29세), '스물아홉 살까지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았던, 나를 버티게 해왔던' 존재이기도 하다(강미정, 32세). 하지만 어머니가 살아온 삶은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살아갈 수 없는 삶이며 어머니의 어떤 성격과 특성들을 내가 '닳을까', '엄마처럼 될까봐' 두렵기만 하다. 즉 어머니는 삶의 이유이자 힘의 근원이며, 연민과 애정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삶의 길인 것이다. 불평등한 결혼 관계, 고단한 삶, 때론 폭력적인 가정환경, 억압적인 모습은 딸로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부하거나 배제하고 싶은 삶이자, 엄마의 모습이다.

엄마의 행복보다는 제 행복인거 같아요. 지금 사회에서 저는 솔직히 엄마처럼 못 살 거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한다면 나는 그렇게 안 되고 싶다는... (정세나, 25세)

65) 미리암 그린스팬, 앞의 책, 253-55쪽.

애증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안됐었는데 엄마랑은 진짜 애증인거 같아. 진짜 애정만큼 증오야. 근데 나는 애정보다 증오를 많이 발견하지 내안에. (중략) 그니까 엄마는 하긴 엄마도 되게 힘들게 살아왔고 진짜 엄마.. 나는 모르겠어. 엄마처럼 사는 나 같으면 죽었을 거라 생각해. 정말 너무 끔찍한 삶이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겪어냈던 엄마만의 방식이었던 거 같아 그게. 그런데 그로 인해 나도 많이 고통을 받고 내동생도 고통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징하고 구질구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임수정, 27세)

엄마... 뭐 애증이지 뭐. 근데 엄마라는 이미지가 나한테..... 그니까 지금은 이제 나이도 있고, 엄마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엄마를, 엄마가 살아온 삶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근데 힘들어. 왜냐면, 내가... 엄마가 어릴 때는 너무, 우리 엄마가 좀 예쁘게 생기셨거든. 되게 착하게 생겼어. 그리고 어릴 때는 되게 그 폭력적인 가정 속에서 엄마가 너무 예쁘고 착하고 상냥해. 우리 엄마 화도 안 냈어 애들한테도. 그러면서 되게 엄마가 천사 같다고 생각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화도 한 번 안내고 상냥할까? 근데 크면서는... 답답하지. (중략) 그니까 보통 딸들이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많이 얘길 하지만 나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보통 가족관계에서 엄마처럼 희생하고 어찌고저찌고... 답답하게 살기 싫다 이거잖아. 나는 그게 아니라 엄마의 특징요소를 내가 굉장히 닮아 있고, 나에게 그런 잠재성이 있고 그게 '나는 분명 엄마처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강박이 있고 그게 싫어. 되게 주의를 많이 해. (윤다연, 29세)

엄마 딱 떠올리면 편하지 편한데... 근데...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게 편하면서도 아주 불편해.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많이 억압을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 되게 무서웠거든. 내가 공부를 했던 이유가...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중략) 내가 걱정이 되는 게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도 나중에 내 애가 많이 크잖아? 중학생이 되면 똑같이 될 거 같아 우리 엄마랑. 그렇게 될까봐 그게 정말 두려워. 내가 엄마보다 더하며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란 생각을 가끔씩 한다? (남현지, 29세)

그러나 어머니는 딸을 통해 결혼에서 보장되지 않는 감정적 보살핌을 얻고자 하며, 딸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보상을 얻고자 한다. 서지에는 '엄마가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20대 중반쯤 이해하게 된다. '엄마가 무슨 얘기하면은 엄마 그 얘기 벌써 세 번째야 이래요 정말. (웃음) 우리 엄마는 그럼 한 번 더 들어주면 안 되니? 이러세요. 그러면 전 엄마가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정말. 너무 이기적인 딸이죠? 날마다 엄마는 자기는 외롭고 우울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

세요.’ 하지만 이러한 이해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왔던 임수정은 이러한 엄마의 요구가 너무 힘겹기만 하다. ‘엄마가 희생하고 살았다는 부분에서 측은하기도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희생하고 살았어도 그걸 그렇게까지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엄마가 어쨌든 뭔가를 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너 나한테 갚아야 된다는 식의. 물론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물론 너만 잘되면 된다고 하지만 아니잖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나에게 부담감을’ 부여할 때마다 ‘화와 증오심’이 생기곤 한다. 엄마의 끊임없는 ‘신세한탄(어휴, 내가 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은 수정은 ‘정말 짜증나게’ 만든다. 엄마는 ‘엄마 고통이 가장 커서’ 결국 ‘내가 가족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고’,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이해해 주지 않는 어머니에게 강한 증오심을 드러낸다.

앞서 그린스팬이 지적한 바대로, 여성은 어머니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류의 여성이 되는가를 배우며 그 과정에서 오늘날 모녀간의 특성으로 보이는 영원한 적대감이 생기게 된다. 어머니는 해방과 자유를 꿈꾸는 딸들에게는 억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⁶⁶⁾ 즉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만들고, 결혼은 꼭 해야 하며, 종교와 보수의 언어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낸다.’

엄마가 꿈 꾸는 게 뭐냐면... 약간 허영성인 것 같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남의 시선 너무 많이 의식하고... 그리고, 엄마가 뭐, 근거 없이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그걸로 너무 자기를 옹아매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지. 남의 눈을 피해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고. 자식들에게도 그런 걸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잔소리가 되게 심하긴 한데, 보통 대개 엄마들이 다 그렇긴 한

66) 가부장제 하에서 딸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내면에 강한 자기 성장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아드리엔느 리치(1976)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장한 여성 중에서 어머니의 보살핌이 충분했다고 느끼는 여성은 거의 없다. 아무리 우리에게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깊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투쟁을 벌이든, 어머니의 힘은 너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가부장제는 어머니를 통해서 일찍이 소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가르치는 구실을 한다.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자신을 비하시키고 사기를 꺾는 역할에 순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딸이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고 해도 “어머니의 보살핌(mothering)”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하지만 리치에게 우리는 어머니이자 딸이다. “우리 안에 어머니와 딸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며 강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를 분리하고 양극화시키며, 원하지 않는 모든 죄의식, 분노, 수치심, 힘, 자유를 ‘다른’ 여성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저한 자매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을 재통합할 필요가 있다.” 아드리엔느 리치,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 모성의 신화에 대한 반성』, 김인성 옮김(서울: 평민사, 1995), 303-17쪽.

데, 너무 심하고... 그리고 그런 거가 좀 있어서 그런 게 여러 부분에서 되게 많이 나타나고, 나는 그런 얘기만 나오면 완전 히스테리가 되는 거야. 너무 싫어서... 근데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왜 엄마가 그런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내가 받아 온 교육과 어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거지. '좀 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역으로 막 가. 역으로... 그런데도 나에게 그런 기질이란 게 있고, 알고 굉장히 조심하고... 막 그런 게 지겹지. 너무 심하니까. (윤다연, 29세)

왜 저 두 사람은 꼭 인생의 목표가 결혼인 것처럼, 목표는 아니지만 하여간 나를 왜 꼭 결혼시키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만약 정말 경제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굳이 우리 엄마나 내 동생이 나에게 이렇게 중용하진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우리 엄마 입장에서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요. 딸이든 아들이든 내가 낳아서 키워서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 나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집에서 독립을 시키는 건 결혼이라는 걸로 정말. (서지예, 34)

엄마는 또 내가 여자로서 서로 또 그 제3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있어 그런 기쁨의 순간들이. '아, 엄마랑 이렇게 말이 통하는구나' 나도 배워가고 있는 언어를 엄마도 여자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동시에 끊임없이 엄마는 이 종교의 언어가 너무 생활 뼈 속 깊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 이게 쉬일 때는 아주 이상한 잠뽕이 되는 거야. 이 '여자'가 '종교'와 쉬었을 때 되게 묘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기 되게 답답하고. 내가 나이가 들면서 엄마가 이 종교의 언어와 보수적인 부모의 언어를 포함해서 나에게 잔소리라는 걸 시작하게 됐고 얘기하기가 싫고... (박상현, 27세)

서지예의 경우 모녀 사이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살'인데, 이는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우선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성'에 대한 규범은 일차적으로 어머니를 통해 대부분 강제된다. '살'에 대한 사회적 경멸과 우려의 시선과 함께 '날씬하고 예쁜' 모습이 미의 근본적 잣대로 작용한다. 그리고 '외롭고 우울했던' 지예의 어머니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처벌처럼 딸의 욕망(식욕)을 억제하도록 끊임없이 중용한다. 이 과정에는 시댁에 대한 갈등도 한 몫 한다. 지예는 '우리 집안이 체질적으로도 아빠 쪽이 되게 많이 살찌는 스타일'로 '친가 쪽이 다 뚱뚱하며 날씬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특성에 대해

엄마는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즉 오랜 세월 남편에게 맞추고,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가부장적이며 가정에는 소홀한 남편, 효자인 남편, 시댁 형님과 갈등과 고된 노동)을 홀로 견뎌내야 했던 어머니에게 시댁과 관련한 특성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엄마와 나의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살! 이거 정말 웃기죠. 결혼을 하고 아니고 가 아니라 내 살이 우리 엄마는 주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딸이 예쁘고 날씬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가꾸고 화장 안하고 다니는 것도 되게 싫어하구요. 살찌는 건 정말 싫어하고 내가 무슨 다이어트를 할까 그러면 호~ 너무 잘해주고. 우리 엄마는 '이것도 좋다더라, 저것도 좋다더라, 이거 해줄까, 잠곡 먹어야 된다, 흰 쌀밥 절대 안돼' 이러면서. 저희 엄마는 살, 내가 살찌는 거, 딸이 살찌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마한테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거든요. (서지예, 34)

어머니와 딸의 유대관계는 아들과의 차별에서 산산이 부서지기도 한다. 아버지의 사업으로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란 강미정은 자신의 욕망을 희생하는데 익숙해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이 오빠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감행하면서 미정은 부모님, 특히 많은 연민과 애정의 대상이었던 어머니에 대해 큰 배신감을 경험한다.

제가 엄마한테 되게 듣기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는 보통 여자애들하고 달라' 이런 말을 자라면서 참 많이 들었어요. (중략) 어떤 뭔가 그런 특별함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품고 자라왔는데 오빠가 유학을 가는 그 시점에 제가 엄마한테 '불공평하다 나한테는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왜 오빠한테는 이런 기회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빠 특별하잖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략) 지금까지 엄마가 나에게 했던 말은 오빠랑도 다르고 큰언니랑도 다른, 나와 엄마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딱 와르르 무너지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넌 여전히 큰 그릇이지, 하지만 그건 결혼을 통해서 완성될 거라는 이야기를 뒤에 해버리더라고요. (강미정, 32세)

강미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그토록 강했던 모녀간의 유대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애증의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유지되고 존속되기가 힘들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모녀 사이의 특별함과 유대 혹은 엄마로부터의 애정과 인정

의 가능성은 '돌보는 자', 결혼을 통한 '독립', 어른으로서 '진정한 여성'이 되도록 '잔소리'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3) 여성들의 의존과 사랑에 대한 욕망

미국의 심리학자 체슬러(Phyllis Chesler, 1972)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여자들은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길 바라는 마음과 애정을 향한 (대체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자신의 자유 혹은 자존심을 희생하지 않고 이런 욕구를 채우는 길을 찾아야 한다. 사랑에 대한 여자의 요구는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만족되어야 한다. 혹시 이 일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은 아닌지 검열해보고 또 정반대의 상황을 떠올려보아야 한다."라고.⁶⁷⁾ 하지만 지금까지 여성들의 감정적 욕구와 사랑에 대한 갈망은 많은 경우 충족되기가 힘들었다. 사회구조적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보살피주는 자(caregiver)로, 사랑을 베풀고 제공하는 자로 규정되고 강요되었던 부분이 워낙 강력하기에 여성들의 친밀성과 사랑에 대한 욕구는 폄하되거나 무시되어왔다. 특히 '의존=여성성'의 도식과 이 도식에 대한 거부 사이에서 여성들은 더욱 여성성의 이중 곤경에 처하게 되곤 한다. 이는 사랑과 감정에 대한 페미니즘 내의 배제와 거부를 통해서도 작동한다.

사랑을 여성 억압의 한 축으로 생각했던 파이어스톤(1970)은 사생활로 추방된 사랑이 '묘사'된 적은 있어도 결코 '분석'된 적은 없다고 진단한다. 그녀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여성과 사랑이 사회의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한다는 일은 문화의 구조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⁶⁸⁾ 낭만적 사랑에 작동하는 불평등한 권력과 착취구조에 대한 파이어스톤의 이러한 비판은 페미니즘의 중요한 논의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는 사랑 그 자체에 대한 냉소와 포기를 낳기도 했다.

훅스(Bell Hooks, 2000)는 페미니즘 운동 초기에 이성애 관계에서의 철저한 실망 때문에 여성 해방 운동으로 뛰어든 여성들이 아주 많았다고 회고한다. "이성애자 여성들은 그들의 고통과 분노를 페미니즘 운동에 쏟아 부었고 그 결과 페미니즘 운동 초기, 페미니스트들이 사랑의 문제에 접근하던 방식은 이를테면 여자들이

67) 우어줄라 쇼이 엮음, 앞의 책, 133쪽.

68) 김혜경, 「가족, 허물기와 다시 쌓기」, 한국여성연구소, 앞의 책, 200쪽 재인용.

낭만적 사랑에 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여자의 자유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혹스는 사랑에 대한 초기 페미니즘의 비판이 섬세하지 못했으며, 가부장제가 오도한 사랑에 관한 통념에 구체적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사랑 그 자체를 문제로만 인식했다고 비판한다. 사랑을 폐기 처분해야 했던 그 대신 권리를 쟁취하는 문제에 집중해야 했던 그때 그 누구도 여성들이 폐쇄적인 정신과 뻣뻣하고 메마른 정서를 가지게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현실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 자체에 대한 폐기나 담론 포기가 아닌 페미니즘적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비전으로 사랑을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⁶⁹⁾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이 시대 여성들은 사회적 담론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을 꿈꾸기도 하고 때론 충족되지 않는 심리적 공허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성 해방의 물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와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20~30대 비혼 여성들의 사랑과 친밀성에 대한 욕구와 욕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분열과 갈등, 딜레마를 경험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우리 시대 20~30대 젊은 여성들이 꿈꾸는 이상향 혹은 사랑의 모습을 한번 보자.

지금은 좀 감정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여도 되고 그게 뭐 남자친구여도 되고. (중략) 거기에 있는 김00 선생님이라고 남자분이신데 되게 다정다감하세요. 다정다감이라고 할 때 그 전형적인... 그런 다정다감이라기 보다 되게 사람을 생각해주고, 솔직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제가 생똥맞은 이야기를 해도 ‘아 정말 그럴 수 있죠’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이시고. (채진영, 26세)

아무 말 없이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큰오빠’ 같은 그런

69)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에 대한 인지와 관용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사랑은 인정과 돌봄과 책임과 헌신과 지식을 결합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의가 없는 곳에 사랑이 있을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한 이해를 통하여,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지배에 반대할 힘을 준다는 사실 또한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페미니스트 정치학을 선택하는 것은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일이다.” 벨 혹스, 『행복한 페미니즘』, 박정애 옮김(서울: 백년글사랑, 2002), 219-26쪽. 이러한 혹스의 사랑에 대한 관심과 고민, 열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벨 혹스, 『사랑의 모든 것』, 윤길순 옮김(서울: 도서출판 동녘, 2004). 그녀는 이 책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믿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경험을 고백하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 방법, 실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사람... (중략) 막 내가 투정을 부리면 볼 한번 꼬집어 주는 그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랑 꿈꿀 수 있지만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나서 얼마나 매력을 느낄지는 자기가 바라는 거랑 실제는 다르잖아. 그런 생각이 들지. 근데 몰라 내 주위에는 ‘오빠’ 같은 사람이 없어. 나이가 많아서 단순히 오빠가 아니라 나를 오빠처럼 챙겨준다는 느낌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단순히 나이로서의 오빠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 내지는 힘이 되는 오빠의 개념은 없어. (김희진, 30세)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비슷한 것인지 기본적인 것은 비슷한 거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뭐랄까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리고 뭐 로맨틱한 것도 꿈꾸죠. (중략)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서로 막 깔아 내리지 않는 서로 정말 아껴주고 한없이.. 한쪽만 떠받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떠받쳐주고 완전히 서로 미지왕(왕자), 미지공(공주) 만들어주는 그런 가정. 그런 이상형을 꿈꾸고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죠. (정세나, 25세)

채진영, 김희진, 정세나가 원하는 사랑은 ‘사람을 생각해주고 솔직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오빠처럼 챙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 이들은 모두 사랑을 통한 존중과 배려, 따뜻함, 돌봄의 욕망을 갖는다.

나의 되게 원초적인 부분에서 무조건적인 신뢰나 지지, 사랑을 되게 많이 갈망해. 예를 들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을 막 찾게 되는 거야. 만약에 누구를 만났는데 ‘어,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친구로서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하든, 아니면 뭐 애인으로서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하든 어쨌든 그럴 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처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기대감을 품는 거야. 이 사람이 괜찮네? 나하고 잘 맞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내 1차적인 집단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내 맘속에서 갈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을 때마다, 좋은 사람 만났다 싶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막 고개를 쳐들어. (임수정, 27세)

사랑? 나는 다 환상이라고 생각한단니까. 나는 굉장히... 나는 사랑이라면 다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되게 수동적이거나 그렇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그런 생각이 강했어. 근데 그것도 지금 돌이켜보면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욕망에 결합해서 증폭된 느낌이야.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은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땐 다 버릴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인지는 모

르겠지만, 나는 그게 중요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나에 대해서 에너지가 많이 가있으니까 많이 희박해졌지만. 그렇지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잘 살고 싶고 이런 건 있지... 싸우든 어쨌든. 티격태격하면서도 잘 살고 싶고. (윤다연, 29세)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아해서 사랑을 하잖아? 그런데 그게 변하는 거 같아. 몇 년이 지나면 그냥 마지못해서 같이 있는 거고 정 때문에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 변함이 없이 계속 갔으면, 사랑 그 자체로 처음 시작했던 그 느낌 자체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서로에 대해서 항상 애썼으면 좋겠고. (남현지, 29세)

그리고 임수정, 윤다연, 남현지의 경우는 좀더 강렬하게 사랑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다. 임수정은 '원초적인 부분에서 무조건적인 신뢰나 지지'를 원한다. 윤다연은 한때 '사랑이라면 다 버릴 수 있다고'도 생각했으며, 지금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잘 살고' 싶다. 남현지는 '힘들어도 함께 할 수 있는', 때론 '서로에 대해서 항상 애절한 변하지 않는' 사랑,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소망하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에 젖어있는 여성들인가. 아니면 충족불가능한 기대를 가진 '허황된' 여성들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어머니'를 꿈꾸는지도 모른다.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사랑이 '새로운 종교'이자 최후의 보루, 정박지(백·백-계륜샤임, 1990)가 된다 하더라도, 친밀성의 구조변동을 통해 여성이 '감정적 혁명가'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평등한 친밀성'(황정미, 2003)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여성이 진정 혁명가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으려면 사회 구조의 실질적 변화와 함께 이러한 감정(노동)영역의 책임에 남성들을 다시 강력한 상호책임-행위자(co-responsible actors)로 호출할 수 있는 담론화 작업과 실천 또한 시급히 요구된다.⁷⁰⁾ 그렇지 않

70) 위계화된 사회 구조와 가치체계(공/사, 이성/감정, 남성/여성 등)에 대한 비판, 남성들의 책임 환기와 더불어 여성들의 감정적 친밀성과 의존 욕구 또한 부정하거나 폄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친밀성의 맥락에서 보자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상호 돌봄이 전제되는 이성애적 관계뿐 아니라 레즈비언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또한 길리건의 논의로 촉발된 관계이론에 대한 여성주의 내 논쟁이 활발하다. 무디-아담스(1998)는 많은 관계이론들—친구의 유대에 호소를 하든지 어머니로서 돌봄의 결속에 호소를 하든지—의 주요한 목표는, 관습적으로 '개인적'이거나 혹은 '사적인' 것으로 여겨진 특정한 관계들이 정치적이고 법적이며 경제적인 삶의 '비개인적' 혹은 '공적인' 관계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새롭고도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Young, 1986)이라고 본다. 그러므

고서는 여성들은 여전히 감정노동의 역할과 자신만의 의존성의 욕망 사이에서 자기비하의 분열을 반복하게 된다.⁷¹⁾

스스로가 되게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한심스러워?) 응, 한심스러워. (그건 왜 한심스러운 거지?) 그니까 동등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애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냥 전적으로 의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한심함?) 응. 한심함. 그런 한심함. 그냥 만나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실은 어떤 관계든 조금씩은 서로에게 의존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1차 집단에 대한 욕구 때문에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찾고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되게 한심한 거.. 뭐 말로는 독립적인 인간이다, 페미니스트다 (웃음) 웃기지도 않는, 페미니스트는 무슨 페미니스트야 나는 패밀리리스트라고. (중략) 내가 생각을 그냥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삶에 대한 어쨌든 딱 나를 봤을 때 가족, 지지해주는 가족, 평안한 분위기 뭐 이런 식의? 그런 걸 되게 많이 갈망을 하는지 하여간 되게 부모한테 의

로 자아에 대한 관계이론들은 '사적인' 영역으로부터 얻어진 도덕적 통찰력에 호소함으로써 '공적인' 삶을 변형시키려는 실질적인 노력의 일부로서 자주 옹호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 관계이론들은 여성들이 주로 간혀 있었던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얻어진 통찰력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억압적 관습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어서 사실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기 어려운 것은 아닐까 하는 어려운 물음을 제기하기도 한다. 무디 아담스는 미래의 여성주의적 성찰은 이러한 우려들의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미셸 무디-아담스, 「자아/타자」, 앨리슨 M. 재거·아이리스 마리온 영 편, 『여성주의 철학 1』, 한국여성철학회 옮김(서광사, 2005).

71) 의존성과 관련한 사회적 담론의 젠더화에 대한 논의는 다른 영역에서도 요구된다.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남성의 공격성과 폭력성에 대한 논의는 페미니즘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남성의 폭력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남녀의 성역할 자체에 이미 폭력이 내재되어 있다거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정 안에서 혹은 남성의 폭력을 조장하고 미화하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폭력을 학습화하거나 여성을 폄하하고 경시하는 남성 중심 사회의 결과라는 관점이 우세했다. 그리고 공격적 남성들에 대한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개인의 성장배경, 애정과 정서적 친밀감 형성의 과정, 여성(어머니, 애인, 아내)에 대한 정서적 분노 등에 초점을 두는 관점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초점은 어린시절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잘 받고 자랐다면 이러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회적 믿음이다. 남성들에게는 '살인자' 혹은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머니(를 포함한 여성)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을 권리가 응당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담론은 비슷한 성장 경험을 한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폭력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남성 범죄자에 대한 연민과 동시에 제도화된 모성에 대한 부담과 죄책감을 여성들에게 부가할 뿐이다. 여성들은 '주는 자'이지 결코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남성들의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나 사회적으로 남성들의 의존성은 비가시화 된다. 반면 '주는 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여성들의 의존성과 의존적 욕구는 가치절하 되거나 폄하된다. 또 하나,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남성 범죄(살해, 폭력, 스토킹 등)는 여성들이 배우자, 애인과 헤어지려 할 때 특히 위험하다는 점(뉴욕타임스, 2000)이다.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 갖는 의식/무의식적 혐오와 의존성에 대한 문제는 많은 연구와 고민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존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존을 하고 싶었는데 의존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반대로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이나 그런 다른 사람한테 의존을 하게 되는
거 같아. (임수정, 27세)

그러나 우리 시대 비혼 여성들의 이러한 의존과 사랑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여성들에게 친밀성의 영역을 제도적으로 합법
적으로 보장해 주는 듯 보이는 결혼은 이제 더 이상 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여지
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들 중 많은 경우 결혼을 확고히 거부하거나(강미정, 박상현,
이난영, 임수정),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는 선택지로 의미화 한다(김희진, 남현지, 윤
다연).

나는 결혼까지는 말고 연애는 할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내가 가족제도에 들어가
고 싶은,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이라는 데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
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지금 가족만으로
도 충분해. 지금은 아직 거기(가족)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까
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 (이난영, 30세)

어릴 때는 결혼을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양가적이지 뭐. 양가적인데
기본은 하고 싶긴 해. 하기 싫진 않아. 하고 싶진 않아. 막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아~ 결혼을 해서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게 있지. (누구에게 보란 듯이라
는 거야?) 난지, 아님 뭔지 모르겠어. 난가? 근데 못할 것 같아. 안하는 게 아니고.
기본 이제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고, 좋은 사람 만나서 꼭 결혼이 아니라 함
께 살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흐려졌어. (중략) 누구를 만나서 함께 산다는 거, 그게 지금은 되게 '불가능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지. (윤다연, 29세)

가끔씩 옆에 누군가가 없다는 게 외로울 때도 있겠지만 차라리 없어도 내가 능력
만 된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단 생각이 지금은 들거든. (결혼을 하지 않고?)
응. 가끔씩 그래. 결혼한 친구들 보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답답한거야. 만날 애,
자기 자식 걱정하지, 시댁 걱정하고, 남편 걱정하고 정말 현실이잖아. 그런 걸 보
니까 결혼, 결혼해서 뭐하겠나? 그런 생각 들고 결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많
이 해. 내가 정말 즐기며 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해. 요즘은 가끔씩. 결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없거든. 결혼은... 그래... 옛날에는 정말 결혼이 하고 싶었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니까. 결혼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내 인생에서 결혼은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응.. 뭐 결혼 안 해도 돼. 외로울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서 내가 그 집안, 남편의 집안에 얽매어서 살아갈 자신이 아직까지는 없어. (남현지, 29세)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크고... 지금은 별로 결혼.. 생각 안하고 싶어 (중략) 난 결혼은 적어도 이 사람하고 꼭 살고 싶다, 꼭 결혼을 하고 싶고 우리 언니처럼 좋아하면서, 하고 싶은 사람 생겼을 때 아마 할 거야.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김희진, 30세)

대부분 ‘가부장’ 아버지와 ‘희생적’ 어머니를 보고 자라온 이 시대의 딸들.⁷²⁾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딸들은 ‘엄마처럼 살지 않기’ 위해 일상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중이다.⁷³⁾ 하지만 사회적으로 때론 내 안에서 요구하는 사회 문화적 ‘여성성’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여성들은 때론 자신의 ‘여성성’을 강하게 부정하기도 하고, 때론 잘 수행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자신 안의 분열과 조우한다. 독립에 대한 열망, 타인과 세상과 관계 맺고자 하는 욕구, 친밀함과 신뢰, 따뜻함, 돌봄에 대한 욕구는 그러한 분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의존성=여성성’이라는 사회적 도식을 돌파하면서도 자신안의 의존과 친밀함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성들에게 자율성의 개념은 어떠한 방식으로 새롭게 재구성 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서툴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러한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72) “서울 여성들의 초혼 평균 연령이 서른일 만큼 여성들에게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되었습니다. 가족 붕괴, 이혼율 증가, 명절 증후군, 가정 폭력, 시집 식구와의 갈등은 여성들에게 결혼의 실상을 보여주는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나임윤경, 『여자의 탄생』 (웅진씽크빅, 2005), 215쪽. 이 책은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딸들이 어떻게 ‘여자다운 여자’로 길러지고 사회화 되는가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73) 이러한 일상 영역에서의 실험과 노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낭만적 사랑이 갖는 풍요와 착취의 이중 구조는 어느 한편이 지배적이지 않은 새로운 사랑의 방정식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경계의 대상으로 만들게 한다. 이혼의 증가, 동성 간의 사랑에 대한 탐색, 동거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늘어나는 것은 이러한 고민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낭만적 사랑의 실패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갖는 성적 불평등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김혜경, 앞의 글, 200쪽.

C. 상호주체성과 자아성찰성의 가능성

1. 상호주체성과 상호인정

벤자민(1988)은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 문제를 연구했다. 그녀는 대상관계이론을 계승하고 초도로우의 연구를 확장하면서 부모-자식 관계라는 구조적 틀에서 벗어나 유아와 양육자의 관계에 주장과 인정이라는 변수를 대입시킨다. 그녀는 대상화 되는 가장 근본적 타자인 엄마에 대한 인정을 부정함으로써 지배의 패턴(새디즘, 매저키즘)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엄마에 대한, 타자에 대한 주체성 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체의 상호 인정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상호주체적 영역(intersubjective realm)을 제안한다.

벤자민에 따르면, 동등한 주체 사이의 인정은 새로운 논리-상반되는 힘들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는 역설의 논리-를 가져온다. 역설의 논리는 좌절(breakdown)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포함하며 핵심은 좌절이 발생하는 지점, 긴장을 재창조하고 인정의 조건을 회복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그녀는 낙관적인 전망을 끌어낸다. 좌절에 대한 인식 속에서의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의 재생(renewal)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변화의 과정을 지속하는 필수적 부분이다. 이러한 재생에 대한 열망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부정(不定, inconstancy)과 불완전성을 그 기획을 포기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개인적 삶에서 인정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는 모든 이러한 실패가 실제 삶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개인적 삶을 잔인하게 정치화하거나 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상호연결되어(interconnected)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인정에 대한 개인적 갈망을 억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사회적 변화에 대한 희망을 억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함을 의미한다.⁷⁴⁾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율성과 인정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되는) 필요는 아주 이상적으로 긴장을 유지시키며 사회적인 경험에서 타협을 이루게 한다. 이 장에서는 연

74) 벤자민의 이러한 주장은 와이어에 의해 비판받기도 했지만(앞의 이론적 배경 참조) 상호주체성과 타자와의 상호관련성, 개인과 사회의 상호연결성을 맥락화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는 차별화와 강한 자아의 경계선이 건강한 정신 발달의 목표로 여겨지던 좀더 전통적인 입장(주체와 대상 논리)과는 반대된다.

구 참여자들의 인정에 대한 개인적 갈망과 상호성에 대한 고민이 관계의 영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내가 감정을 표현할 때, 내가 정말 소통을 하고 싶어서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이 건성건성 자기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좀 답답해한다고 할까. 내 이야기를 물론 하고 싶어서 했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내 얘기에 대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를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거?) 응. 뭐라지? 불안한 느낌 가끔은 들 때도 있고 (그냥 왜 나만 너무 노출시킨 듯한 느낌이랄까?) 응. (강한 긍정) 그런 불안함도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 내가 얘기를 했을 때 피드백이 제대로 안 오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니 특히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부분에서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로 내 이야기를 안 하겠지. 내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 그리고 끝났을 때 피드백이 없었거나 아니면 자기 얘기가 없었을 때 좀 내 이야기한 걸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이난영, 30세)

지나침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 차라리 모자란 게 낫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거나... 너무 많이 표현하거나 어떻게 적정수준이어야 할 것 같아. 하여간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감정표현이나 그니까 나 널 이렇게 믿으라고 얘길 하는 부분들이 쌓여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냥 적당하게... 내가 실은 그게 잘 안돼 (중략) 그니까 너무 내 얘기를 또 많이 하거나 왜냐면 쌍방향적이면 괜찮은 거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별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내가 내 얘기 너무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것도 지나친 거라 생각하고. (중략) 그니까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을 지점만큼 그러니까 그 수위를 찾는 것도 되게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임수정, 27세)

어떤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싫어. 어떤 경우에도... 만약 내가 힘들지만, 나는 대체로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내 힘든 얘기만 누구한테 받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별로 유지하고 싶지 않아. 되게 그런 건 있어. (중략)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관계는 별로 좋진 않더라구. 끝이 좋지 않고,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또 조정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런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럴 수가 있겠지. 근데 기본은 그래 기본은 그렇고. 사실 모든 관계에서 그래. 선후배도 마찬가지고 그니까 누가 내 얘기만 받아주겠다 해도 그것도 싫은 거지. (윤다연, 29세)

나는 차라리 그런 걸 의존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인정욕구나 칭찬,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표현에 의존하는 면이 많은 것 같아. (중략) 그냥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의존이라는 것이 원동력이 충분히 되고 그게 없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 (박상현, 27세)

이들은 관계에서 상대의 '피드백'과 '쌍방향', '인정'이 가장 관건이며, '일방적'인 소통에 대해 거부한다. 이러한 상호성에는 타자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욕망과 타자의 주체성이 전제되며 감정과 취약성, 신념 등에 대한 타자수용 공간 또한 전제된다. 이 공간은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노출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견디고,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을 지점'의 '수위'를 찾고 문제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해야 하는 매우 힘든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좌절이 발생하는 지점, 긴장을 재창조하고 인정의 조건을 회복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인정에 대한 개인적 갈망을 억압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즉 자신의 인정의 욕구를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타자를 무화하지 않으며 그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을 견뎌내고 새로운 인정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요구된다.

2. 자율성에 대한 재개념화와 자아성찰성

페미니스트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성의 재사유 즉, 자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기존의 이해, 그리고 주체성에 대한 이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비록 여성의 배제와 평가절하를 드러내려는 작업에 비판가들이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러한 비판적 독해로부터 도출된 결론들에 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을 피력한다. 어떤 이들은 '개인' '평등' 또는 '자율성'과 같은 개념들이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들은 여성을 충분히 포함시킨 이러한 개념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발전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들은 현대 철학 일반을 특징짓는 논쟁들, 특히 소위 말해서 '포스트모던적' 사유와 공동체주의의 문맥 속에서 형식화된 보편주의적 개념들에 대한 의의와 연결되어 있다(나글-도체칼, 1998).

특히 여성주의자들에게 해방과 변화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주체, 행위성, 자율성과 관련한 대안적 개념화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자율성에 대한 이론적 재개념

화와 자아성찰성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초도로우가 제안하는 ‘분리(독립성, 자율성) 대 연결’의 구도를 재사유하면서 철학적 논쟁에서 ‘자율성’을 이런 의미로 가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자율성’ 용어가 전적으로 남성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논제는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나글-도체칼, 1998).⁷⁵⁾

이는 또한 계몽주의 이후 형성된 자아의 합리성과 자율성이라는 개념에 도전했던 정신분석학 영역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라캉의 이론에서는 일관성 있고 통합된 ‘자아’라는 개념은 하나의 환상이라고 본다. 크리스테바, 이리가라이와 같은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주체성을 이론화함에 있어 ‘자율성’이나 ‘정체성’ 같은 개념을 전적으로 배격하는 것을 불만스러워 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또한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전일적(全一的)이며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인간 주체를 가정하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인정한다. 이러한 인간 주체는 많은 경우에 남성적으로 간주되며 또한 ‘무의식’에 의하여 여지없이 타파된다. 따라서 여성적인 자율성이라는 용어가 페미니즘적인 재정의의를 질실히 요청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적인 정치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성적인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전적으로 불식되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된다(Jean Grimshaw, 1992).⁷⁶⁾

이러한 의문의 과정에서 메이어스(2000)는 자율성을 자유 의지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초월과 같지 않다고 본다. 즉 여성주의자들이 자율성의 개념을 이용할 때 그들은 생애 사회화와 개인적 상호의존성의 망이란 맥락 안에서 자율성이 획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관계성들은 자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율성이란 핵심 자아의 현실화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이해하고 자신들을 필요에 따라 재정의하고 자신들 고유의 삶을 향하도록 해주는 기술의 연습이기 때문이다. 양육과 교육은 이러한 기술의 발달에서 빼놓을 수 없으며, 이러한 기술들의 연습은 이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맥락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술들을 능률적으로 연습함으로써 개인들은 자신들의 욕구들, 욕망들 그리고 가치들을 정체화할 수 있고 그것들을 행위로 번역할 수 있게 된다.

메이어스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실행하는 것은 자율성의 특

75) 헤르타 나글-도체칼, 「현대의 도덕철학과 정치철학」, 엘리슨 M. 재거·아이리스 마리온 엇 편, 앞의 책(1권), 97-100쪽.

76) 엘리자베스 라이트 편, 앞의 책, 28-33쪽.

정인 자기-보장, 권력, 그리고 유쾌함의 느낌과 연합되어 있다. 더욱이 자율성을 확실히 해주는 기술들은 삶의 기회와 제약에 대한 창의적인 반응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자율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설명은 개별적인 자부심 혹은 개인적 공적과 같은 개념들의 논리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통제와 만족이란 익숙한 경험들의 현상학 안에 닳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주체와 자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자율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개념화를 토대로 작은 가능성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싸움'을 많이 보며 자라온 윤다연은 '좋은 상황', '안정', '행복'을 그다지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상황은 다연에게 '긴장'을 유발하며 그 '긴장'을 참지 못하고 견디질 못해 그 상황을 늘 '깨곤' 한다. 다연에게 그 '긴장'은 행복과 기쁨이 '곧 깨질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환상'의 기원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왔던 가정 '불화'에서 찾는다.

어릴 때부터 집이 시끄럽고 불화가 심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뭔가 좋은 상태라는 걸 기대할 수가 없어. 그리고 뭐 이런 폭발들이 뭔가 나름의 착각 이유를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그냥 뜬금없이 불쑥 불쑥 나오는데 그게 너~무 잦아가지고 너무 자주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속되는 좋은 상태라는 건 기대할 수 없는 거야. 그니까 순간 화목할 수도 있잖아. 늘 싸운다고 매일 초별로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상황을 믿질 못하겠어. 늘 '그 뒤에는 뭐가 있을 꺼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지. 그게 완전히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게 여태까지 쪽 지속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니까 믿지 않아. 환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고, '저건 환상이야'라는 생각, '가족도 환상이야'라는 생각도 혼자 막 하고 그랬거든. 좋은 걸 믿지 않고 늘 언제나 깨질 거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언젠가는 깨질 거고, 언젠가 깨질 그 긴장을 내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터뜨려버리는 거야. (윤다연, 29세)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다연에게 이렇듯 집은 '전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연은 그 속에서 '엄청난 무기력감'을 갖게 된다. 다연은 일이나 관계에 있어서도 '꼭 거기에 어긋나는 뭔가를 만들어' '어그러뜨리곤' 한다. '무의식적이지만', '알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 '속이 시원하고', '회의'와 '후회'

가 들지만 '더 이상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면서', '안도감'이 든다. 하지만 자신의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있는 다연에게 그러한 '긴장'을 견디면서 변화하고 자신과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는 아주 강렬하다.

왜냐면, 긴장이 꼭 나쁜 게 아니거든.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 내가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많이 훈련에 대해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순간 뭔가 급하다는 생각이 들면 딱 그 습관이 나오는 거야. 뭔가 이게.....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 그니까 매일 통제하고 싶어. 긴장을 못 참는 거에 있어 내가 되게 결국은 나 스스로를 다시 나에게 칼날을 들이 밀게 되는 게, 그니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 거야 늘. 내가 생각했을 때, 만날 사람들이 나한테 정신없다고 하잖아? 그게 어느 정도 좀 과장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상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통제가 너무 안 되는 상황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같거든? 정신이 없는 거지. 그니까 뭔가 다 내 손밖에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런 상황이 나에게 굉장히 긴장을 유발하거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지. 그리고 있어도 나름대로 긴장이 되는 거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 거야 결국은. 아직은 좀 힘이 필요한 것 같아 바꾸려면. 그냥 바뀌어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요즘은 오히려 그 의존하고 싶다가보다는 내가 나한테 의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온전하게... '좀 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윤다연, 29세)

내가 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원래 생긴 대로 살자는 주의인데 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를 통제하며 나를 온전하게.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나한테 투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게 완전히 그렇게는 아니고 완전히 명확하게 딱 그래야겠다는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지. (윤다연, 29세)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는 것은 권력과 유관하다. 그 느낌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권력이 있다고 느끼는 것과 관계가 있다. 즉 그 느낌은 자신이 자기의 몸에 뿌리를 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행위의 주체—권력을 행사하는 능력—라는 느낌을 신뢰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그린스팬, 1983). 다연은 자라온 환경에 의해 '긴장'과 '무기력'에 익숙해 있지만 통제와 만족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통해 자신의 힘과 주체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다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많은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 힘,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힘겨운 일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들에게 자율성의 의미는 남성성으로서의 의미와는 아주 다른 방식의 개념화가 가능하다. 성취와 야망은 어떤 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까.

성취감이라고 보면 자기 고개를 자기가 넘는 거? 그런 게 되게 큰 거 같아 내가 요구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남들이 이런 걸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내 고비를 넘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되게 큰 거 같아. 남들이 이 사람이 직장에서도 이렇다 할 이런 것도 아니고 일에서도 성취감이나 존재감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이러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자기 일기장이 자기 일기장이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라고 몇 권이라고 해야 할까. 예순 살까지 살았는데 자기 일기장이 천 권이 됐다? 천 권은 아니겠지만 (웃음) 삼백 권? 오백 권? 이렇게 하면 나는 내 인생이 보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그게 기여하는 거랑 꼭 상관없는....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일에 대한 욕망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수영을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만 아는 어떤 경지가 있잖아. 그런 한계를 끊임없이 뛰어넘으며 쌓아나가는 거.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 세상사는 재미도 있고 보람될 것 같아. (박상현, 27세)

야망과 욕망은 약간 다른 것 같긴 해. 야망은 지금 생각하면 어감이 약간 개인적인 위신 아니 어떤 개인적인 출세와 부와 명예의 수준이 평균치보다 도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땐 더 크고 아니면 전 사회와 혹은 인류나 국가나 뭐 지역 이런 걸로 뻗어나가는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규모, 범위도 넓고 정도도 되게 큰 그런 욕망을 야망이라 부르는 것 같아. 정치가나 부자, 권력자들에게겐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식의 편견도 있는 것 같고. (박상현, 27세)

근대적인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다중적인 정체성들을 화해시키고, 서로 갈등하는 정체성에 대한 해석들을 이해하고 비판하며, 그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즉 차이와 비동일성(nonidentity)을 배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갈등을 화해시키는 능력은 차이를 성찰을 통해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아(ego)를 요구한다(와이어, 1996).

한두 달 전인가, 난 정말 내가 속한 세대에서 한 발치도 벗어나지 않은 인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 (중략) 내가 물질문명이나 자본주의에 되게 반대하는 학생운동의 이념이 너무 설득력 있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마음이랑은 별개로 물질문명에 반하면서 혹은 저항하면서 살아본 세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살아보려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

고, 굳이 하지도 않았고. 그런 걸 내가 깨달았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형태, 소유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중략) 이런 키워드들도 지나갔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들. 나는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었거든. 두 달 전에는 내 세대, 00년생 아니면, 둘째딸 이런 식으로 나를 설명했었는데 여자들이 꼭 그렇다기보다는... (박상현, 27세)

제가 요즘에 보고 느끼고 듣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그만큼 열어놓고 들으니까, 가능한 한 다 수용하고 내 결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색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거나 막 끼워 맞추려고 보니까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근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여성주의가 절대적 진리였다면 종교가 됐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 삶의 어떤 방편 방법론적인 선택이니까 내가 이것에 대한 재미와 새로움 그리고 내가 어떤 여자로서 살면서 느꼈던 분노들에 대한 해답이 여기 어느 정도 있잖아요. (강미정, 32세)

나는 지금도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탐구하는 건 아닌데, 그냥 온전히 나의 진로나 내가 놓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선 생각해. 왜냐면 나는 너무나 내가 좀 가족이란 것에 일찍부터 가족을 늘 나와 붙어서 지내는, 내가 늘 책임져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늘 등짐처럼 지고 다녔기 때문에... 늘 아무리 난리를 치고 사는 것 같아도 늘 그 어떤 태두리를 내가 미리 정해 놓고 있었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떠났다고 보다는 '아~ 내가 그랬었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시기인 거지. (윤다연, 29세)

박상현과 강미정, 윤다연은 내가 속한 세대, 시대적 맥락, 사회 구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고민의 과정에서 때론 고통을, 때론 인식적 기쁨을, 때론 두려움과 공포, 혼란을 경험한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혼란과 고통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도 긍정적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앞서 와이어(1996)가 말한 타자와의 연관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상호주관적으로 구성되면서도 자율적인 능력이 있는, 타자에 의존하면서도 또한 타자로부터 독립적인 자로서 스스로를 인지하는 자아의 능력이 요구된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분화되고 복잡한 양식으로 구조화된다. 다양한 가치들이 발현되고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미를 끊임없이 (재)구성해야

하며, 모든 질문에 자신을 열어두도록 요청된다. 여기서 여성들, 그중에서도 해방과 자유의 이념을 강하게 수용하고,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삶을 꿈꾸는 젊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조건과 요구는 매우 힘겨운 딜레마에 봉착하도록 만든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의존'을 지속시키고, 남성들의 의존을 비가시화 하는 체계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훨씬 더 갈등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들은 자신의 분열과 갈등, 취약성과 상호의존의 욕구를 억압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세대, 사회구조, 젠더, 관계망들 속에서 여러 갈등하는 정체성을 해석하고 성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인정 욕구, 의존의 욕구를 받아들이고 타자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긴장과 갈등을 견디며, 차이들 속에서 자아성찰성을 획득한다면 지금까지의 이러한 갈등과 딜레마, 여성성의 이중 곤경으로부터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I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 시대 20~30대 여성들이 타인들과의 관계 혹은 자신 안에서 '의존(성)'의 흔적을 왜 끊임없이 지우려 하는가에 대한 관찰에서 출발한다. 사람은 누구나 친밀성과 의존성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는 매우 젠더화된 방식으로 구조화된다. 즉 남성은 어머니, 여자친구, 아내를 통해 의존성의 욕구를 충족하며 이러한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질적 노동을 비롯한 감정노동, 관계노동을 토대로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의존성은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되는 반면 여성의 의존성 욕구는 타인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의 정체성이 장려 혹은 강요되면서 충족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여성이 드러내는 의존의 욕구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거나 충족되기란 대단히 힘들다. 오히려 이러한 욕구는 사회 문화적 '여성성'과 연결되면서 비하되거나 폄하되곤 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의존성'과 '여성성'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의존성'은 '여성성'의 상징이자, 본연의 역할이며(그러하기에 타인을 돌보는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하며) 때론 "병"이 되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여성의 나약함으로 의미화 되기도 한다. 이제 현대 여성들에게 의존은 거부할 수도 그렇다고 요구할 수도 없는 '내 안의 타자'로 자리잡는다. 이제 우리 시대 젊은 여성들은 독립에 대한 열망 및 사회적 요구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상호의존적 구조 속에서 경제적 심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시대 여성들이 처하고 있는 이러한 의존성/독립성의 딜레마를 병리화하지 않으면서, 이 딜레마의 역사적 사회적 구체성을 분석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의존성=여성성'이라는 젠더화된 등식에 대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도전했다. 지금까지 페미니즘은 기존의 모든 가치와 신념체계들, 세상을 보는 방식들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으로 젠더권력화 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비판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즉 젠더권력에 의해 굴절된 가치와 관념들이 결코 '보편적'이거나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 편향성을 띤다는 점을 밝혀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해방적이고 여성주의적인 관점

으로 재편하는 작업(다시 젠더화re-gendering)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본 연구는 20~30대 비혼 여성의 삶에 주목한다. 이는 의존성/독립성의 딜레마를 경험하는 우리 시대 20~30대 여성들이 보이는 '의존성'에 대한 반응과 경험을 심층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구성되는 여성성의 중요한 요소인 의존성 개념을 다시 젠더화하고(re-gendering)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호인정과 성찰성을 통한 여성주의적 자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타자화되는 감정, 의존성, 친밀성에 대해 다시 젠더화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여성(성)' 혹은 '의존성=여성성'의 등식에 대한 비판적 해체 및 의존과 감정의 욕구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등식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 주체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고찰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주변화 되고 가치절하 되면서 타자화 되어왔던 '의존성' 개념을 여성의 영역(으로 의미화되는)인 감정과 친밀성, 사랑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했다. 여성(성)과 의존이 결부되면서 타자화되는 과정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끊임없는 딜레마와 자기모순에 봉착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여성 해방의 물결과 사회제도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20~30대 비혼 여성들이 여성성의 이중 곤경을 돌파하고, 모순과 분열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자율성과 성찰성을 획득할 수 있는 이론적 모색을 절실히 요청한다. 따라서 전통 철학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의 도전과 반격, 상호의존성과 타자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 벤자민이 제안하는 상호주체성과 이행공간의 개념, 와이어가 제안하는 상호주관성과 자율성 개념 등은 이러한 모색들을 풍부하게 해주리라 생각한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20~30대 고학력 비혼 여성 10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경험을 분석했다. 소위 '여성(적)' 영역이라 간주되어 온 의존성, 친밀성, 감정(노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젠더화 되는지,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어떠한 분열과 딜레마를 경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주체와 자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자율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개념화를 토대로 여성 주체성의 작은 가능성들을 모색해 보고자 시도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친밀성, 의존성에 대한 욕구는 현저하게 증가되는 반면 여성을 ‘감정적인 존재’로 폄하하는 시각은 여전히 지배적이다. ‘감정적인 존재’로 끊임없이 재현되거나 (일방적으로) 기대 혹은 폄하되는 여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감정 구조와 경험을 갖게 된다.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정신건강의 보편적인 기준(남성적 방식, 남성성)을 무시할 수 없고, 또한 그 기준에 부합하려면 자신 안의 감정이란 부분을 배제해야 한다. 이때 배제되는 감정이란 여성들에게는 대부분 부정적 감정(화, 분노, 격노, 미움)이며, 또한 사랑과 친밀성의 욕구에 대해서도 양가적 모순을 경험하게 된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남성=독립’, ‘여성=의존’이라는 ‘의존성의 신화’는 사회문화적 구조와 가치체계, 가족 구조, 일상의 관계에 걸쳐 지배적이다. 하지만 근대의 가족은 위계적 공사 이분법 속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되는 여성의 가사 노동과 보살핌 노동에 의존해 있다. 여성의 보살핌 노동과 정서적 역할에 대한 남성의 의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존은 ‘남성성’에 대한 추구하고 우월성을 토대로 비가시화되고 있음을 연구참여자들의 가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의존(성)’에 대해 어떠한 자기개념을 가지는가. 이들에게 ‘의존(성)’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1) 자율성과 독립성, 자기결정권과 대립되는 것, 2) 자기상실, 3) 삶의 조건과 관계적 의미, 4) 남성성과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의존’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중에서도 자율성과 독립성, 자기결정권과 대립되는 것으로 ‘의존’을 개념화하는 경향이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 시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과 자율에 대한 열망과 동시에 자율과 독립의 이분화된 도식이 강하게 내면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사회 문화적 ‘여성성’을 받아들이거나 수행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의존과 취약성, 낙약함, 결핍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이러한 ‘여성성’의 수행을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이기적이고’, ‘미성숙하며’, ‘여자답지 못하다’는 온갖 비난이 쏟아진다. 이제 여성들은 자신의 종속과 복종의 상태를 적절한 ‘타협’을 통해 받아들이거나 이러한 비난의 담론 속에서 불안을 경험하거나 혹은 이 둘 사이에서 자기 분열을 경험한다. 이러한 분열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모녀관계와 친밀성, 의존성에 대한 욕망이다.

현대 사회의 많은 여성/딸들은 어머니에 대한 양가성과 애증, 배반의 감정을

경험한다. 여성은 어머니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류의 여성이 되는가를 배운다. 여기서 여러 가지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오늘날 모녀간의 특성으로 보이는 영원한 적대감이다. 많은 딸들에게 어머니는 삶의 이유이자 힘의 근원이며, 연민과 애정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삶의 길이기도 하다. 불평등한 결혼 관계, 고단한 삶, 때론 폭력적인 가정환경, 억압적인 모습은 딸로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부하거나 배제하고 싶은 삶이자, 엄마의 모습이다. 또한 사회구조적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보살피주는 자(caregiver)로, 사랑을 베풀고 제공하는 자로 규정되고 강요되었던 부분이 워낙 강력하기에 여성들의 친밀성과 사랑에 대한 욕구는 폄하되거나 무시되어왔다. 특히 '의존성=여성성'의 도식과 이 도식에 대한 거부 사이에서 여성들은 더욱 여성성의 이중 곤경에 처하게 되곤 한다.

넷째, 이제는 이러한 여성성의 이중 곤경을 돌파하고, 모순과 분열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자율성과 성찰성을 획득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는 자율성과 인정 사이의 긴장을 유지시키는 것, 상호의존과 상호주체성을 인정하는 것, 통제와 만족으로 자율성을 재개념화하는 것, 다중적인 정체성들을 화해시키고, 서로 갈등하는 정체성에 대한 해석들을 이해하고 비판하며 그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차이를 성찰을 통해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그 가능성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의존성=여성성'의 도식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는 우리 시대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러한 억압적 도식을 돌파할 수 있는 자아와 주체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핵심적 개념인 '의존성'과 '여성성'의 범주가 다소 혼란스럽고 광범위하게 개념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처음 고민의 출발은 여성들이 관계와 친밀성의 영역에서 자신 안의 '의존성'의 흔적을 왜 부정하고 지우려 하는가라는 문제였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감정, 친밀성, 사랑에 대한 젠더편향성과 이러한 억압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조화되는 공/사 분리, 남성 중심적 가족구조, 젠더화된 감정구조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그만큼 '의존성'이라는 담론이 현대 사회에서 갖는 다양한 구성 맥락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시

대적 상황과 구조적 맥락 속에서 의미화되고 구성되는 '의존성'이라는 키워드로 남성 중심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페미니즘적 가치는 바로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존성=여성성'의 억압적 도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의가 절실히 요청된다. '상호의존성'의 가치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방식의 '의존'을 인간존재의 가장 근본적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고립된(남성 중심의) 개인주의의 이상을 해체한다.⁷⁷⁾ 동시에 이 시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분열과 모순, 혼란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곤경을 돌파할 수 있는 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상호의존성' 개념이 전면에서 등장하지는 않으나 II장에서 논의되는 여러 페미니스트들의 고민을 통해 공유될 수 있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핵가족' 중심의 환경에서 성장한 고학력 20~30대 여성뿐 아니라 좀더 다양한 차이를 지닌 여성들이 갖는 갈등과 딜레마, 대안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세대와 다양한 위치의 여성들의 젠더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가부장제가 규정하는 여성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억압적 규범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의미한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억압적 도식의 궁극적 수혜자인 남성들이 자신의 사회적 물적 정서적 의존의 토대를 인정하고, '평등한 친밀성'의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교하고 깊이 있는 '남성성'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절실하다.

77) 이러한 관점은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타자' 개념과도 통한다. 김미연(2003)에 따르면, 철학자들의 사유 대상이었던 주체는 그리 안정되고 충만한 주체가 아니며 통일적인 주체도 아니다.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혼성적 주체이거나 이미 자신 속에 타자성을 품고 있는 주체인 것이다. 이 혼성적 주체는 곧 자아의 '타자성'을 의미하며, 이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더 이상 배제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특히 정신분석이 제기하는 '타자성'의 문제는 지금까지 충만한 존재로 여겨졌던 서구적 '자아'의 분열과 나르시시즘적 주체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타자에 관한 많은 텍스트가 공통으로 드러내는 점은 서양과 동양, 문명과 야만, 남자와 여자 등 지배 주체와 피지배 주체 혹은 자아와 타자를 구성하는 것이 결코 본질적이거나 내재적이지 않으며, 또한 상호 배제적일 수 없다는 점이다. 타자는 배제될 수 없는 주체의 '이웃'으로서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김미연, 『페미니즘 사전-타자』, 『여/성이론』 9호(도서출판 여이연, 2003).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경미(2004). “선비의 아내, 그녀들의 숨은 노동”, 『여/성이론』 (11호), 도서출판 여이연.
- 김미연(2003). “페미니즘 사전-타자”, 『여/성이론』 (9호), 도서출판 여이연.
- 김상봉(2002). 『나르시스의 꿈-서양정신의 극복을 위한 연습』, 한길사.
- 나임윤경(2005). 『여자의 탄생』, 웅진씽크빅.
- 문은미(2000). 『‘여성 직종’에서 노동자원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민경배·남기숙(2000). 『의존성 성격장애와 회피성 성격장애』, 학지사.
- 송무 외(2003). 『젠더를 말한다: 페미니즘과 인문학의 만남』, 도서출판 박이정.
- 오세은(2004). “현대사회의 성과 사랑”,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성과 사랑의 시대: 성, 사랑, 섹슈얼리티』, 학지사.
- 이수자(2000). “여성주의적 방식으로 근대 넘어서기-유연성과 감성의 문화를 향해”, 『여/성이론』 (2호), 도서출판 여이연.
- (2004). 『후기 근대의 페미니즘 담론-노동, 몸, 그리고 욕망의 변증법』, 도서출판 여이연.
- 이재경(2003). 『가족의 이름으로: 한국 근대 가족과 페미니즘』,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이현재(2005). “인간, 여성 그리고 사랑의 정체성: 제시카 벤자민의 『사랑의 사슬』에 나타난 사랑의 윤리를 중심으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임태연(2004). 『아내폭력 피해자의 ‘취약성’과 도덕적 행위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임현주(2003). “여성적 섹슈얼리티”,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도서출판 여이연.
- 조혜자(2002). 『여성, 존재인가 과정인가: 여성심리 이론과 실제』, 철학과현실사.

- 조혜정(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1998).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한국의 여성과 남성 2』,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 여성학 강의(개정판)』, 도서출판 동녘.
- 황정미(2003). “‘후기 현대’ 한국사회의 친밀성 변화와 성적 정체성의 재구성-평등한 친밀성은 가능한가?“, 『탈권위주의 시대의 여성주의 정치학』, 한국여성학회 주최 2003년도 한국여성학회 제19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표문(2003. 11. 15).

2. 외국문헌

- Benhabib, Seyla(1987). “The Generalized and the Concrete Other,” *Feminism as Critique: On the Politics of Gende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njamin, Jessica(1988). *The Bonds of Love*, New York: Pantheon Books.
- Eichenbaum, Luise & Orbach, Susie(1999). *WHAT DO WOMEN WANT: Exploding the Myth of Dependency*, N.Y.: Berkly Books.
- Felman, Shoshona(1995). *What Does a Woman Want?: Reading and Sexual Difference*, Baltimore: Johns Hopkins UP.
- Kittay, Eva Feder(1988). “Woman as Metaphor,” in *Hypatia* vol 3, no. 2 (Summer 1988).
- (1999). *Lover’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 & Feder, Ellen K.(ed)(2002). *The subject of care: feminist perspectives on dependency*,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Ruddick, Sara(2002). “An Appreciation of Lover’s Labor,” in *Hypatia* vol. 17, no. 3 (Summer 2002).

Scott, J.(1988).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Weir, Allison(1996). *sacrificial logics: feminist theory and the critique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3. 번역서

딜런 에번스(2002). 『감정』, 임건태(역), 이소출판사.

로빈 노우드(1990). 『너무 사랑하는 여인』, 신양숙(역), 범우사.

로즈마리 통(1995/2000). 『페미니즘 사상-종합적 접근』, 이소영(역), 한신문화사.

로지 브라이도티(2004). 『유목적 주체: 우리 시대 페미니즘 이론에서 체현과 성차의 문제』, 박미선(역), 도서출판 여이연.

리사 터틀(1999). 『페미니즘 사전』, 유혜련·호승희(역), 동문선.

리처드 래저너스·버니스 래저너스(1997). 『감정과 이성』, 정영목(역), 문예출판사.

미리암 그린스팬(1995). 『우리 속에 숨어 있는 힘』, 고석주(역),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베티 프리단(2005). 『여성의 신비』, 김현우(역), 이매진.

벨 훅스(2002). 『행복한 페미니즘』, 박정애(역), 백년글사랑.

——— (2004). 『사랑의 모든 것』, 윤길순(역), 도서출판 동녘.

볼프강 슈미트바우어(1999).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전재민(역), 생각의 나무.

시몬 드 보부아르(1993). 『제2의 성』, 조홍식(역), 을유문화사.

아드리엔느 리치(1995). 『더이상 어머니는 없다: 모성의 신화에 대한 반성』, 김인성(역), 평민사.

앤소니 기든스(1996).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역), 새물결.

엘리슨 재거(1996). "21세기를 향한 페미니스트 윤리학", 『최근 여성학의 쟁점과

- 페미니스트 윤리학』, 이대아시아여성학센터.
- 아이리스 영 편(2005). 『여성주의 철학 1, 2』, 한국여성철학회(역), 서광사.
- 엘리자베스 라이트 편(1997).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박찬부·정정호 외 (역), 한신문화사.
- 우어줄라 쇼이 엮음(2003). 『여자로 살기, 여성으로 말하기: 521명의 여성들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 전옥례(역), 현실문화연구.
-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 게른샤임(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강수영·권기돈·배은경(역), 새물결.
- 이소영·정정호 공편(1992).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한신문화사.
- 조운 W. 스콧(2001).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가지 성찰”, 배은경(역), 『여성과 사회』 (13호), 한국여성연구소.
- 캐롤 길리건(1997). 『다른 목소리로: 심리 이론과 여성의 발달』, 허란주(역), 동녘.
- 린 미켈 브라운(1997). 『교차로에서의 만남: 여성 심리와 여아 발달』, 김아영(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2004). 『기쁨의 탄생: 새로운 사랑의 지형학』, 박상은(역), 빗살무늬.
- 캐롤 타브리스(1999).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히스테리아(역),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잉에 슈테판 편(2002). 『젠더연구: 성 평등을 위한 비판적 학문』, 탁선미·김륜옥·장춘익·장미영(역), 나남출판.
- 해리엇 골드허 러너(1995). 『무엇이 여성을 분노하게 하는가』, 김태련·이명선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ABSTRACT

A Feminist Study of Contemporary Female Subjectivity through a Critical Feminist Revision of 'Inter-dependency'

Sung, Mi Ra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challenges the centuries-old, gendered association of dependency to femininity, more exactly, the masculinist equation of dependency to femininity. Inspired by and based on contemporary feminist theorizing, by which (feminist) women have revealed to what extent and how the ways of seeing and the existing systems of values and faiths are gender-inflected and male-centered, I attempt to re-gender the masculinized ways of seeing and the systems of values, with a feminist focus on the issue of dependency. As feminists persuasively and critically have examined, social systems, norms and values are gender-biased, neither "universal," "rational" nor "objective." For my feminist re-gendering of the pervasive idea of dependency, which has strongly been associated with femininity or femaleness, I critically examine the various responses of ten contemporary single women in their twenties or thirties to the idea of dependency. For this, I performed interviews from August 2, 2005 to September 7, 2005 as an integral part of this study. I provide my critical, in-depth analysis of the interview results. I suggest a re-gendered, feminist, more liberating idea of dependency, at the core of which I call lies inter-dependency as a fundamental condition of existence. A feminist recognition of inter-dependency as such is a primary condition for our viability as

feminist/women in this twenty first century. Feminist subjectivity suggested in this thesis takes seriously inter-recognition and (self-)reflexivity as empowering elements of (feminist) ethics, based on such a recognition of inter-dependency.

The first chapter introduces the topics of this thesis, my own approach to the issue of (female) dependency,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In the second chapter, I critically review some of significant feminist theories of dependency such as Diana Meyers, Jessica Benjamin, Allison Weir, to name a few. The second chapter also examines both feminist ways in which the gendered associations of dependency with femininity and of emotion with female-ness have been deconstructed and feminist theories that provides the insightful ideas of new (feminist) subjectivities, without romanticizing or repressing affectivity, feelings, and emotion, all of which have been strongly associated with femininity in masculine discourses.

The third chapter provides my critical analysis on the in-depth interviews of ten contemporary single women about their concrete experiences and ideas of dependency. I also examine how the so-called "feminine" realm, to which dependency, intimacy, emotion(al labor), etc. have belonged, are gendered, analyzing how the interviewed women have experienced what splits and dilemmas. Based on my critical perspective of the established systems of values and the currently widely-circulating ideas of human subject and selfhood, I attempt to re-conceptualize female autonomy in search of feminist possibilities of viable female subjectivities and ethics.

The results of my study are following. First, the masculinist idea of seeing women as "emotional (and therefore less rational) beings" is still prevailing, while the need of dependency is noticeably increasing as our social life is increasingly unstable and complex. Many of women, who are continuously represented as or allegedly assumed to be "emotional beings," tend to show more complicated structures of feeling and experience than men.

Second, the ideas of dependency, drawn from my interviewed subjects, fall

largely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1) dependency as opposite to autonomy, independence, and self-determination; 2) dependency as loss of self; 3) dependency as an integral part of living condition and meanings of life; or 4) dependency as opposite to masculinity or manhood. It is most noticeable that my study's subjects have a strong tendency which would belong to the first category: they tend to regard dependency as opposite to autonomy, independence, and self-determination. This reveals that contemporary women in our society internalize the dichotomous idea of dependency vs. autonomy/independence, simultaneously strongly yearning for the latter.

Third, With an ironical split between yearning for female autonomy and masculinist idea of female dependency, many women including my study's subjects have suffered from socially imposed self-disrespect and anxieties or at least experienced self-splittings. It is in their desire for intimate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and other intimacies that such splits in women are revealed often most and most intensively.

Last but not least, my analysis on the interviewees' experiences implies that it is urgent for us to seek for the new, alternative ways in which we can deconstruct and thus positively break through this double bind of femininity or womanhood, without any negative perceptions of such conflicts and splits. In turn, all of these require us to know how to keep creatively tensions between autonomy and dependency and between independency and inter-recognition, how to re-think radically our fundamental inter-dependence and inter-subjectivity, how to re-theorize (female) autonomy, and how to reconcile multiple subjectivities and positions between us and in us as a single person. It is also imperative for us to re-interpret conflicting identities, and thereby to hold them in creative ways. Then, we can envision and realize a variety of possibilities opened by such versatile capabilities including those of self-reflexivity and of respecting otherness of the others as well as in our own selves.

This thesis is a *feminist search of how to break through the simultaneously oppressive and repressive ways of seeing and living, by critically looking into the lives of contemporary young women via in-depth interviews and subsequent analysis on them. All of my work in this thesis, which has been performed in a personally significant turning point to end my twenties and to open my really re-newed, empowering era of thirties, is from my years-long hope and works to envision alternative, empowering female selfhood, feminist subjectivity, and more liberating ways of relating myself to others. This thesis calls for further feminist studies of more various, more detailed aspects of the lives of contemporary single women who have been raised up in nuclear families, some of whom are university graduates, and whose conflicts and dilemmas are social marks to reveal significant undercurrents of our contemporary, increasingly masculinizing capitalist society. Further radical examinations of differences and diversity among contemporary single women are also imperative, especially in connection to the lives of elder and younger generations. Looking forward to encountering with subsequent radical re-envisionings and inquiries of how we can break through the current oppressive social norms, as well as of how gendered, female identities are constructed and deconstructed across the lines of various divides such as class, education level, age, sexual preference and orientation, religion, and so forth, I hope that my study here will be a contribution to feminist studies of gendered identities in general and of contemporary single women in particular.*